

청년층 인력수급 및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정재현

이정아

안주엽

KEIS





청년층 인력수급 및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정재현

이정아

안주엽

KEIS

발간사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했으며 저출생 국면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도 그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인력공급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이다.

청년층 인력공급, 취업자 수 감소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근로연령대 숙련 인력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노동시장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성공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변화 양상,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과 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으며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특성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NEETs)의 규모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도 수행했다. 노동시장의 특성

은 인력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계취업자 개념을 이용해 청년층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저출생의 영향으로 청년층 인력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을 감안해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을 분석했으며 청년층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대상 노동시장 정책도 살펴보았다.

청년층 인력수급 및 노동시장 분석 과제는 한국고용정보원 김수현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정재현 부연구위원, 이정아 부연구위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행하였다. 청년층 인력수급과 노동시장, 청년 정책 등의 분석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원내외 전문가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 영 돈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 및 특성 분석	5
제1절 서론	5
제2절 청년층 인력공급 추이 및 특성 분석	7
제3절 청년층 취업자 현황 분석	17
제4절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분석	32
제5절 소결	45
제3장 청년층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48
제1절 서론	48
제2절 청년층 실업자 현황 및 추이	50
제3절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및 특성	58
제4절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규모 및 특성	66
제5절 소결	74
제4장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경계취업	78
제1절 서론	78
제2절 청년 경계취업자	79
제3절 청년 취업의 불안정성	86
제4절 소결	93

제5장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95
제1절 서론	95
제2절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	97
제3절 연령대 간 임금 격차 분석	109
제4절 청년층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임금 격차 분석	118
제5절 소결	124
제6장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분석	127
제1절 들어가는 글	127
제2절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	128
제3절 직종별 비교우위	137
제4절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 직종격리지수	149
제5절 소결	155
제7장 청년층 고용정책 분석	157
제1절 서론	157
제2절 고용서비스	159
제3절 국민취업지원 제도	165
제4절 직업훈련(인턴사업)	167
제5절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171
제6절 직접 일자리 창출	176
제7절 소결	178
제8장 결 론	180
참고 문헌	187

[표 차례]

<표 2-1> 연령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10
<표 2-2> 연령대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추이	11
<표 2-3> 성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12
<표 2-4> 교육 수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13
<표 2-5> 엔트로피 균형 방법 이용 특성 통계 결과	15
<표 2-6> 연령대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21
<표 2-7> 성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22
<표 2-8> 교육 수준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23
<표 2-9> 종사상 지위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24
<표 2-10> 사업체 규모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25
<표 2-11>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수	26
<표 2-12> 직업별 청년층 취업자 수	28
<표 2-13> 지역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수	33
<표 2-14>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수	34
<표 2-15>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 수	38
<표 2-16> 비수도권 시도 청년인구의 순이동률(2019년)	44
<표 3-1> 연령대별 청년층 실업자 추이	52
<표 3-2> 연령대별 청년층 실업률 추이	53
<표 3-3> 성별 청년층 실업자 추이	54
<표 3-4> 교육 수준별 청년층 실업자 추이	55
<표 3-5> 교육 수준별 청년층 실업률 추이	55
<표 3-6> 청년층 실업 여부 영향 요인 분석	57
<표 3-7> 연령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60

<표 3-8> 성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61
<표 3-9> 교육 수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62
<표 3-10> 정규교육기관 통학자 제외 교육 수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63
<표 3-11>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여부 영향 요인 분석	64
<표 3-12> 정규교육기관 통학자 제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여부 영향 요인 분석	65
<표 3-1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응답 결과 ...	68
<표 3-14> 연령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70
<표 3-15> 성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71
<표 3-16> 교육 수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72
<표 3-17> 청년층 비경제활동 니트 여부 영향 요인 분석	74
<표 4-1> 연도별 상반기(3-8월) 미취업자 부문의 청년 수와 증감	83
<표 4-2> 연도별 상반기(3-8월) 취업자 부문의 청년 수와 증감	84
<표 4-3> 학력수준별 청년 경계취업 부문별 수와 증감	85
<표 5-1> 종사상 지위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98
<표 5-2> 사업체 규모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99
<표 5-3>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산업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	101
<표 5-4>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	104
<표 5-5> 근로형태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105
<표 5-6> 연령대 간 임금 격차 분석 기초 통계	113
<표 5-7> 청년층과 중년층 평균 및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분석	114
<표 5-8> 근로형태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임금 (각 연도 8월)	118
<표 5-9> 근로형태별 임금 격차 분석 기초 통계	121
<표 5-10> 근로형태별 평균 및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분석	122

<표 7-1> 1990년대 이후 고용률 급락 시기	158
<표 7-2>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규모	160
<표 7-3>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고용서비스 사업	162
<표 7-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상세 비교	166
<표 7-5> 정부주도형 인턴제 특징	167
<표 7-6> 대학 주도형 인턴제 특징	168
<표 7-7>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특성	169
<표 7-8>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인턴제 사업	171
<표 7-9>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직업훈련 사업	173
<표 7-10>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고용장려금 사업	174
<표 7-11> 연도별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실업률	176
<표 7-12>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177
<부표 1> 지역별 연령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수	191
<부표 2> 지역별 성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수	192
<부표 3> 지역별 교육 수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수	193
<부표 4> 지역별 연령대별 청년층 취업자 수	194
<부표 5> 지역별 성별 청년층 취업자 수	195
<부표 6> 지역별 교육 수준별 청년층 취업자 수	196

[그림 차례]

[그림 2-1]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7
[그림 2-2]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9
[그림 2-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13-2020년	14
[그림 2-4] 생산가능인구 특성 유지 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분석	16
[그림 2-5] 청년층 취업자 추이	18
[그림 2-6] 청년층 취업자 추이	19
[그림 2-7] 청년층 고용률 추이	30
[그림 2-8] 생산가능인구 특성 유지 시 청년층 취업자 분석	31
[그림 2-9]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 및 지역별 비중 변화	43
[그림 2-10]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및 지역별 비중 변화	43
[그림 3-1] 청년층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50
[그림 3-2] 코로나19 확산 전후 청년층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51
[그림 3-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59
[그림 3-4]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69
[그림 4-1]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중 청년 비중과 고용률	80
[그림 4-2] 노동시장 전체 경계취업자 규모와 청년 비중	81
[그림 4-3]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경계취업 부분별 증감	82
[그림 4-4] 청년 초단시간 취업자 수와 증가율	86
[그림 4-5] 청년 경계취업자 수와 취업자 중 비중 추이	87
[그림 4-6]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수와 비중 추이	88
[그림 4-7]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 변화(2004년=100)	89
[그림 4-8]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 변화(2013년=100)	90

[그림 4-9] 노동시장 매칭 후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 변화(2013년=100) ...	90
[그림 4-10] 평균 시간당 임금의 연령대별 격차	92
[그림 4-11] 노동시장 매칭 후 평균 시간당 임금의 연령대별 격차	92
[그림 5-1] 청년층 임금근로자 주당 노동시간 추이	107
[그림 5-2]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 임금 추이	108
[그림 5-3] 청년층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추이	109
[그림 5-4] 청년층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119
[그림 6-1] 연령별 재학 비중	130
[그림 6-2] 재학-취업 병행 비중	131
[그림 6-3] 재학 중 취업 비중	133
[그림 6-4] 연령별 졸업자 취업 비중	135
[그림 6-5] 연령별 미혼 비중	136
[그림 6-6] 성별 직종분리(2020년)	138
[그림 6-7] 재학과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분리	140
[그림 6-8] 비재학 청년층의 성별 직종분리	142
[그림 6-9] 비재학 청년층의 교육 수준별 직종분리	144
[그림 6-10] 비재학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분리	146
[그림 6-11]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분리: 임금근로	148
[그림 6-12] 직종격리지수(2020년)	152
[그림 6-13] 청년-준고령층의 직종격리지수 추이(2013~2020년)	154
[그림 7-1] 구직단념 청년(NEET) 적합도 문답표	164
[그림 7-2] 20대 청년층 고용률 장기 추세	178

요약

제1장 서론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2013년 이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인력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년층 인력공급, 취업자 수의 감소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 인력수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도 수행했다. 청년층 일자리 및 노동시장의 특성은 청년층 인력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층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였으며 청년층 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도 분석했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도 살펴보았다.

제2장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 및 특성 분석

2장에서는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인력공급은 감

ii 요약

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전에서 많이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과 전문대 졸업 학력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14년과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반면에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에 전문대 졸업 이하 학력의 취업자는 감소했다.

청년층 인력수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를 엔트로피 균형 방법(Entropy balancing method)을 이용해 통제할 경우 2019년과 2020년 모두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감소가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변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2013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3년 대비 2019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했을 수 있으며 2020년에도 감소폭이 더 작았을 수 있다.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4%였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3%였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와 비교해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3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6%p 증가했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5%p 늘어났다.

제3장 청년층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3장에서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하였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3년 43만 7천 명에서 2017년 53만 6천 명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에는 다시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실업자 증가와 함께 2013년 6.1%에서 2017년 7.6%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7.1%로 다소 하락했다. 실증분석에서는 30세 미만 연령층일수록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남성의 실업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었다.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8천 명으로 2013년 636만 7천 명에서 90만 9천 명, 연평균 2.2% 감소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96만 6천 명, 연평균 2.7% 감소했다. 이처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데는 경기 충격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NEETs)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준 주된 활동 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이들과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들을 니트로 정의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를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60만 7천 명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규모는 2013년 46만 7천 명에서 2020년 60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을 때 연령대가 높고,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니트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2017년 이전까지는 남성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컸지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증가한 2017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4장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경계취업

4장에서는 노동시장 내외부를 가르는 경계 주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경계취업자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청년층 취업자 중 상대적으로 쉽게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초단기 취업자와 근로시간 측면에서 불충분하게 취업한 초단시간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일시휴직자는 현재 취업 중인 경계취업자에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미취업자인 경계취업자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을 모두 경계취업자로 분류함으로써 유동적인 과정에 놓인 불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경계취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13.2% 수준이며 청년 중에서는 16.4%로 더 높았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경계취업자 증대를 촉진하였을 수 있으나 연도별 3~8월 기준으로 2021년까지 변화를 확인한 결과, 추세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청년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인구효과를 통제해도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초단시간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학력 수준별로 대졸 이상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고졸 이하 학력자, 성별로는 여성 중에서 크게 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이 과거보다 높은 확률로 노동시간 측면에서 불완전하게 취업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경계취업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5장에서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574만 8천 명으로 상용직이 많았으며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등에 많은 청년이 종사했으며 근로형태별로는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이 382만 8천 명, 비정규직은 201만 5천 명이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8.8시간이었으며 월평균 임금은 229만 9천 원이었다.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방법을 활용한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와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간의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중년층 대비 청년층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 격차에서는 구성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불평등한 임금 격차 역시 존재했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50분위, 90분위 임금 격차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는 대체로 임금 격차를 증가시켰으며 임금 구조효과와 경우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간과 50분위 간의 임금 격차는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분석에 대한 분석도 수행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 1만 4,582원, 비정규직이 1만 1,256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77.2% 수준이었다. 이러한 임금 격차를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평균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구성효과와 임금 구조효과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임금 구조효과와 효과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구성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 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서 관측된 청년층과 중년층 사이 지속되고 있는 임금 격차,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격차 역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비정규직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중 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6장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분석

6장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17세에는 거의 대부분 재학 중이지만 19세까지 25%, 23세까지 50% 이상이 학교를 떠나며, 27세 이후 90%에 이르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3년과 2020년 기간 중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빨리 학교를 떠나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의 주된 원인은 병역의무 이행이다. 둘째, 재학 중 취업 비중은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19~27세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늘어났으나 2020년에는 다시 줄어들었으며, 18세에서 22세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20~21세에서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셋째, 비재학 청년 중 취업한 청년의 비중으로 표현한 노동시장 진입 비중을 보면, 23세까지 급속히 상승하다가 29세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정체 수준을 보였다. 2013년에 비해 2020년 노동시장 진입 비중은 특히 18~27세 연령에서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21~27세 연령층에서 성별 격차는 거의 없는 반면에 그 이후 여성은 28세 정점에 이른 후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남성에서는 34세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성별 격차가 커졌다. 넷째, 미혼 비중은 2013년과 2020년 사이에 모든 연령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 27세에 89%에 이르며, 33세에도 절반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39세도 23%에 이르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미혼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 분리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2013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청년층에서는 비교우위를 갖는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취업 비중은 다소 낮아지는 한편, 숙련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의 취업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반면에 준고령층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진행된 결과, 이들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세대 간 직종의 분업구조가 완화 또는 경합구조가 강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제7장 청년층 고용정책 분석

7장은 주요 청년고용정책을 노동시장정책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센터로 통합되어 공공고용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는 주로 민간위탁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마다 청년 고용서비스가 운영되어 통합된 고용서비스가 청년층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인 정부지원 인턴제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턴제 운영경험을 가진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중소기업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확장되어 운영되었다. 청년층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를 제외하면 전문대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70% 수준의 대학진학률과 미래산업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학력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중간수준의 숙련과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청년을 IT직무로 신규채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고학력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청년고용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전문대 이상 고학력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이 제공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런 청년고용사업 진행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20대 초반이나 고졸 이하 학력 청년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취약계층에 놓인 20대 초반과 고졸이하 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청년고용정책이 수립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저숙련·저기능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게 중간 수준의 기능과 숙련을 제공할 직업훈련 및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숙련·중기능 역량의 일자리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숙련·중기능의 훈련을 받은 청년층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2013년 이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4,230만 4천 명에서 2020년 4,478만 5천 명으로 연평균 0.8% 증가했으나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1,348만 1천 명에서 2020년 1,219만 1천 명으로 연평균 1.4% 감소했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원인은 출생률 하락에 따른 결과로 현재의 저출생 국면이 계속될 경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인력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감소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711만 4천 명에서 2020년 673만 3천 명으로 연평균 0.8%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는 667만 7천 명에서 625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9% 줄어 들었다.

청년층 인력공급, 취업자 수의 감소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근로 연령대 숙련 인력이 감소할 것이며 결국 취업자 수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인력수급,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 파악과 향후 변화 양상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미친 2020년까지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으며 지역별 인력수급의 현황과 특성도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실업자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인력수급 분석과 함께 청년층 노동시장,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수행했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은 청년층 인력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계취업자 개념을 이용해 청년층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청년층 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저출생의 영향으로 청년층 인력공급이 감소세를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해 현재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을 분석했다. 나아가 청년층 인력수급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정책도 살펴보았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층 인력수급의 변동 양상을 분석했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Hainmueller(2012)의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또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해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특성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분석했다. 현재 고용 상황에 있지 않지만 노동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층 실업자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층 실업자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추이, 특성을 분석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NEETs)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층 일자리가 지닐 수 있는 불안정성을 경계취업자 개념을 활용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내외부를 가르는 경계 주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경계취업자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현황을 분석했다.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속성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청년층 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임금 분해 방식을 활용해 청년층과 중년층 간 임금 격차를 분석했으며 청년층 임금근로자 내 일자리의 질적 특성이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청년층 인력공급이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청년층 일자리를 다른 연령층이 대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년층의 학교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직종별 비교우위, 직종분리, 직종격리지수 등 지표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정책 방안도 고찰하였다.

7장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살펴보았다. 청년 고용 문제 심화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정책은 청년층 인력수급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을 알아보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8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이상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제2장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 및 특성 분석

제1절 서론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2013년 2,529만 9천 명에서 2019년 2,712만 3천 명으로 182만 3천 명, 연평균 1.2%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610만 8천 명에서 2,818만 6천 명으로 207만 9천 명, 연평균 1.3%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는 2,690만 4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과 비교해 취업자는 160만 5천 명, 경제활동인구는 207만 9천 명이 증가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 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를 제외하면 2014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세가 계속되었다.

반면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은 2013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층의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667만 7천 명, 711만 4천 명에서 2020년 625만 8천 명, 673만 3천 명으로 각각 41만 9천 명, 38만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층의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 역시 2013년 956만 9천 명, 1,007만 1천 명에서 2020년 912만 7천 명, 969만 1천 명으로 44만 2천 명, 38만 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연령 정의에 따라 감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을 비교했을 때에도 청년층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는데 이는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의 감소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지속되었음을 가리킨다.

인력수급의 변동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의 감소는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과 문제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의 감소가 전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청년층의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지만 중고령층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이 감소를 지속할 경우 전체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다 감소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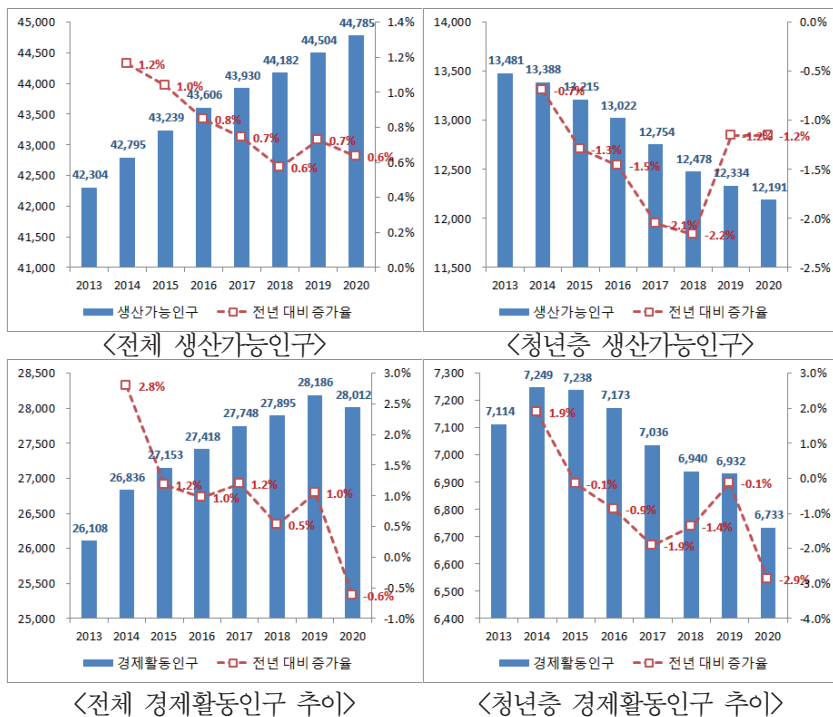
이에 본 장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에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관련 통계자료 중 하나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을 분석 대상으로 해 인력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청년층의 인력공급 현황 및 추이, 특성을 고찰하였고 3절에서는 청년층 취업자를 중심으로 인력수요를 분석하였다. 4절에서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해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제2절 청년층 인력공급 추이 및 특성 분석

2013년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서 전체 인력공급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2,610만 8천 명이었던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에는 2,818만 6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801만 2천 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청년층 인력공급은 같은 기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711만 4천 명에서 2020년 673만 3천 명으로 38만 명, 연평균 0.8% 감소했다.

[그림 2-1]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로 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는 7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5천 명 증가했으나 2015년 전년 대비 1만 1천 명, 0.1%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전년 대비 경제활동인구 감소세가 이어졌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에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1,740만 9천 명에서 2020년 1,603만 9천으로 137만 1천 명, 연평균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4,230만 4천 명에서 4,478만 5천 명으로 248만 1천 명, 0.8%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은 전체 노동시장의 인력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청년층 인력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년 대비 21만 8천 명, 0.6%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역시 감소했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전년 대비 19만 9천 명, 2.9% 줄어들어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청년층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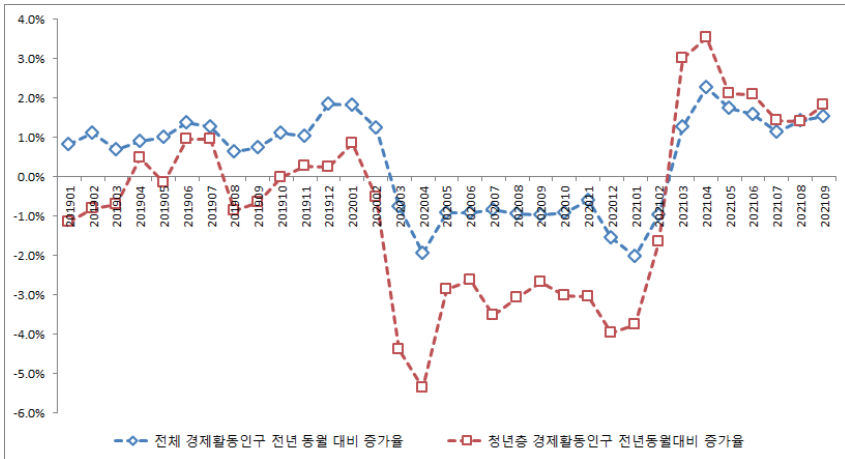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를 보였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더 높은 감소율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저효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더라도 2021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2,826만 5천 명)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2,815만 4천 명)을 넘어섰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했고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683만 4천 명)이 2020년 같은 기간 평균(676만 1천 명)보다는 증가했지만 2019년 같

은 기간(694만 9천 명)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청년층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경제가 역성장하고 취업자가 감소했던 2020년보다는 더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그림 2-2]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 세분해 보면 30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06만 1천 명에서 2020년 260만 명으로 46만 1천 명, 연평균 2.3% 감소했다. 감소율로 보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도 크게 감소했다. 15세 이상 2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25만 1천 명에서 2020년 17만 8천 명으로 연평균 4.8%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았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1%의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도 연평균 2.4% 감소해 청년층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높았다.

〈표 2-1〉 연령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251	270	274	271	270	226	217	178
20세 이상 25세 미만	1,377	1,488	1,567	1,572	1,531	1,447	1,424	1,323
25세 이상 30세 미만	2,425	2,421	2,412	2,491	2,532	2,640	2,690	2,632
30세 이상 35세 미만	3,061	3,069	2,985	2,840	2,704	2,629	2,601	2,600
청년층 계	7,114	7,249	7,238	7,173	7,036	6,940	6,932	6,7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반면 25세 이상 3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242만 5천 명에서 2020년 263만 2천 명으로 20만 7천 명, 연평균 1.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269만 명까지 증가했는데 2015년까지는 전년 대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2013년 대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137만 7천 명에서 2020년 132만 3천 명으로 5만 4천 명, 연평균 0.6%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만 보면 2013년 대비 4만 7천 명, 연평균 0.6% 증가했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참가 인구가 다른 추이를 보이는 데는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30세 이상 35세 미만의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404만 2천 명에서 2020년 328만 명으로 76만 1천 명, 연평균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높았던 15세 이상 20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역시 327만 4천 명에서 245만 2천 명으로 82만 2천 명, 연평균 4.0% 감소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25세 이상 30세 미만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327만 4천 명에서 2020년 358만 2천 명으로 30만 8천 명,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20세 이상 2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는 289만 2천 명에서 287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나 1만 5천 명, 연평균 0.1% 감소하는 수

준에 그쳤다.

<표 2-2> 연령대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3,274	3,196	3,124	3,066	2,922	2,759	2,617	2,452
20세 이상 25세 미만	2,892	2,983	3,039	3,044	3,023	2,958	2,925	2,877
25세 이상 30세 미만	3,274	3,215	3,217	3,252	3,336	3,432	3,517	3,582
30세 이상 35세 미만	4,042	3,993	3,835	3,659	3,472	3,330	3,274	3,280
청년층 계	13,481	13,388	13,215	13,022	12,754	12,478	12,334	12,1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과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감소했다.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87만 명에서 2020년 357만 6천 명으로 29만 4천 명, 연평균 1.1%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18만 7천 명, 연평균 0.8% 줄어들었다.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24만 4천 명에서 2020년 315만 7천 명으로 연평균 0.4% 감소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6천 명 증가했다.

성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이처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성별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676만 5천 명에서 618만 3천 명으로 58만 3천 감소했으며 여성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역시 671만 6천 명에서 600만 9천 명으로 70만 7천 명 감소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여성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더 많이 감소했음에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더 적게 줄어들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57.2%에서 57.8%로 0.6%p 상승한 데 비해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48.3%에서

2020년 52.5% 4.2%p 상승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촉진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2013년 45.6%에서 2020년 46.9%로 높아졌다.

<표 2-3> 성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	3,244	3,315	3,329	3,324	3,288	3,273	3,249	3,157
남성	3,870	3,933	3,909	3,849	3,749	3,668	3,683	3,576
청년층 계	7,114	7,249	7,238	7,173	7,036	6,940	6,932	6,733
여성 비중	45.6%	45.7%	46.0%	46.3%	46.7%	47.2%	46.9%	46.9%
남성 비중	54.4%	54.3%	54.0%	53.7%	53.3%	52.8%	53.1%	5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만 4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중학교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13만 6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49만 6천 명에서 233만 1천 명으로 감소했다. 전문대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역시 2013년 182만 5천 명에서 2020년 141만 8천 명으로 40만 7천 명, 연평균 3.5%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8천 명 소폭 증가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고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242만 2천 명에서 2020년 261만 7천 명으로 19만 6천 명, 연평균 1.1% 증가했으며 대학원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역시 21만 2천 명에서 23만 3천 명으로 2만 1천 명, 연평균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고학력자 비중은 2013년 37.0%에서 2020년 42.3%로 증가했다.

〈표 2-4〉 교육 수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24	17	19	24	26	24	18	15
중학교 졸업	136	132	132	139	143	142	143	119
고등학교 졸업	2,496	2,592	2,579	2,531	2,440	2,414	2,414	2,331
전문대 졸업	1,825	1,740	1,653	1,600	1,525	1,469	1,446	1,418
4년제 대학 졸업	2,422	2,545	2,622	2,638	2,676	2,684	2,690	2,617
대학원 졸업	212	224	233	242	227	209	221	233
청년층 계	7,114	7,249	7,238	7,173	7,036	6,940	6,932	6,7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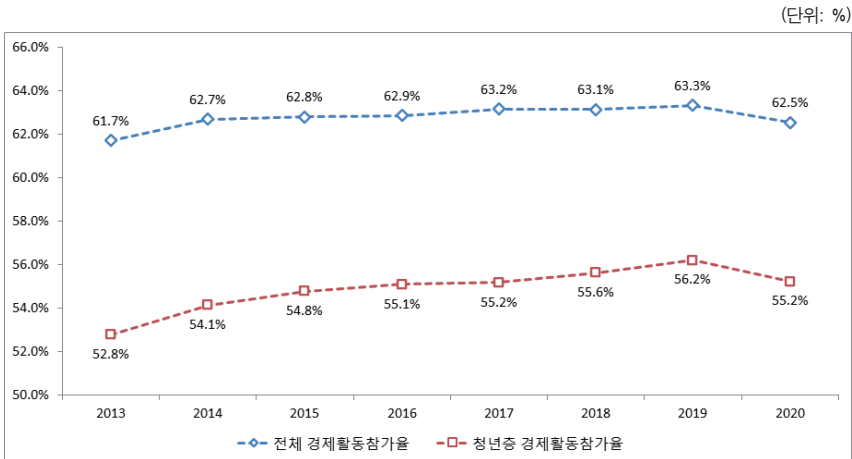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고학력화에도 관계가 있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교육 수준별 구성에서 역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2013년 24.7%에서 2020년 29.9%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의 비중은 2013년 58.2%에서 2020년 55.4%로 줄어들었으며 전문대 졸업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역시 2013년 230만 7천 명에서 2020년 178만 4천 명으로 감소하면서 그 비중이 17.1%에서 14.6%로 줄어들었다.

이상에서는 청년층 인력공급 현황과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최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전에서 많이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과 전문대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이와 같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양상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52.8%에서 2020년 55.2%로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 지속된 생산가능인

구 감소의 영향으로 청년층 인력공급은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25세 이상 30세 미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 역시 생산가능인구의 변화가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림 2-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13-2020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Hainmueller(2012)의 엔트로피 균형 방법(Entropy balancing method)을 이용해 2013년과 동일한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연령, 성별, 교육 수준별 특성도 변화가 없었을 때 연도별 경제활동인구가 어떤 양상을 보였을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엔트로피 균형 방법은 통제변수 간 엔트로피 거리 행렬을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활용해 두 집단의 특성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 방법 등과 함께 처치효과를 분석하거나 집단 간 차이, 시간 변화에서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 등에 활용된다. 이 장에서는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해 2013년 이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가중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5〉 엔트로피 균형 방법 이용 특성 통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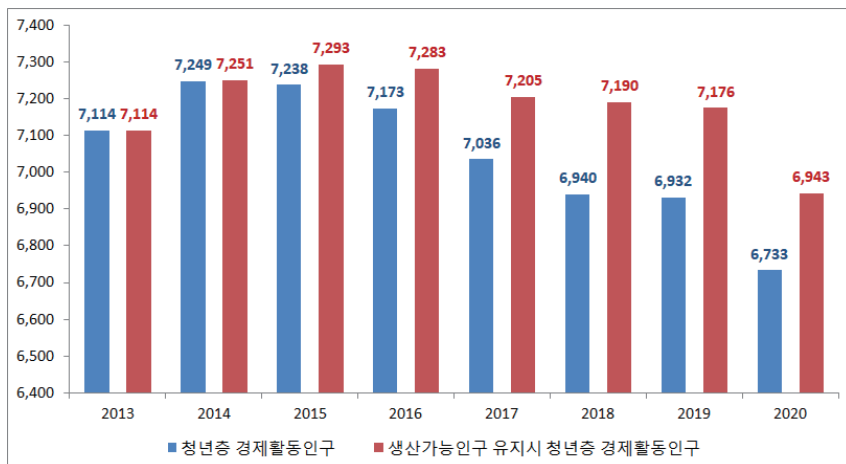
구분	특성 통제 이전								특성 통제 이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령	15	0.053	0.050	0.053	0.050	0.044	0.042	0.041	0.038	0.053	0.053	0.053	0.053	0.053	0.053	0.053
	16	0.051	0.052	0.049	0.052	0.049	0.042	0.041	0.039	0.051	0.051	0.051	0.051	0.051	0.051	0.051
	17	0.052	0.050	0.049	0.048	0.052	0.049	0.044	0.041	0.052	0.052	0.052	0.052	0.052	0.052	0.052
	18	0.049	0.047	0.046	0.047	0.045	0.049	0.046	0.042	0.049	0.049	0.049	0.049	0.049	0.049	0.049
	19	0.038	0.040	0.039	0.039	0.040	0.039	0.041	0.040	0.038	0.038	0.038	0.038	0.038	0.038	0.038
	20	0.036	0.038	0.037	0.038	0.038	0.042	0.041	0.041	0.036	0.036	0.036	0.036	0.036	0.036	0.036
	21	0.040	0.040	0.038	0.038	0.037	0.039	0.043	0.042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22	0.048	0.048	0.051	0.050	0.049	0.048	0.047	0.049	0.048	0.048	0.048	0.048	0.048	0.048	0.048
	23	0.044	0.049	0.051	0.054	0.054	0.054	0.052	0.051	0.044	0.044	0.044	0.044	0.044	0.044	0.044
	24	0.046	0.048	0.052	0.054	0.058	0.054	0.054	0.053	0.046	0.046	0.046	0.046	0.046	0.046	0.046
	25	0.045	0.047	0.049	0.051	0.054	0.057	0.058	0.058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26	0.045	0.046	0.048	0.052	0.052	0.057	0.057	0.060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27	0.049	0.048	0.048	0.048	0.053	0.055	0.058	0.059	0.049	0.049	0.049	0.049	0.049	0.049	0.049
	28	0.048	0.050	0.048	0.049	0.050	0.055	0.056	0.059	0.048	0.048	0.048	0.048	0.048	0.048	0.048
	29	0.055	0.049	0.051	0.050	0.052	0.051	0.055	0.058	0.055	0.055	0.055	0.055	0.055	0.055	0.055
	30	0.053	0.050	0.049	0.049	0.047	0.050	0.049	0.054	0.053	0.053	0.053	0.053	0.053	0.053	0.053
	31	0.058	0.058	0.053	0.051	0.050	0.048	0.052	0.052	0.058	0.058	0.058	0.058	0.058	0.058	0.058
32	0.066	0.062	0.060	0.054	0.053	0.056	0.052	0.053	0.066	0.066	0.066	0.066	0.066	0.066	0.066	
33	0.064	0.063	0.065	0.061	0.057	0.055	0.057	0.052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34	0.059	0.065	0.063	0.066	0.065	0.058	0.055	0.058	0.059	0.059	0.059	0.059	0.059	0.059	0.059	
성별(남성)	0.502	0.503	0.504	0.505	0.505	0.505	0.507	0.507	0.502	0.502	0.502	0.502	0.502	0.502	0.502	
교육수준	초졸 이하	0.031	0.031	0.034	0.031	0.030	0.030	0.029	0.026	0.031	0.031	0.031	0.031	0.031	0.031	0.031
	중졸	0.164	0.159	0.157	0.160	0.155	0.150	0.141	0.130	0.164	0.164	0.164	0.164	0.164	0.164	0.164
	고졸	0.387	0.389	0.380	0.379	0.381	0.386	0.390	0.398	0.387	0.387	0.387	0.387	0.387	0.387	0.387
	전문대졸	0.171	0.161	0.155	0.151	0.148	0.145	0.146	0.146	0.171	0.171	0.171	0.171	0.171	0.171	0.171
	4년제대졸	0.228	0.240	0.252	0.257	0.265	0.268	0.272	0.276	0.228	0.228	0.228	0.228	0.228	0.228	0.228
	대학원졸	0.019	0.021	0.022	0.022	0.021	0.020	0.022	0.024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동부거주	0.861	0.862	0.862	0.861	0.861	0.861	0.861	0.864	0.861	0.861	0.861	0.861	0.861	0.861	0.861	
가구주	0.168	0.172	0.174	0.178	0.178	0.188	0.190	0.199	0.168	0.168	0.168	0.168	0.168	0.168	0.168	
배우자 유	0.245	0.238	0.226	0.212	0.195	0.183	0.173	0.165	0.245	0.245	0.245	0.245	0.245	0.245	0.245	
생산가능인구(천 명)	13,481	13,388	13,215	13,022	12,754	12,478	12,334	12,191	13,481	13,481	13,481	13,481	13,481	13,481	13,481	

〈표 2-5〉는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도록 분석한 결과이다. 특성 통제에 사용한 변수는 1세 단위 연령, 성별, 교육 수준과 함께 읍면 거주 여부,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등이다.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해 변수 특성을 통제한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의 특성과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가중치

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생산가능인구 특성 유지 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분석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의 생산가능인구 특성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711만 4천 명에서 2020년 694만 3천 명으로 17만 1천 명, 연평균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생산가능인구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실제 현실에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같은 기간 38만 명, 연평균 0.8% 줄어들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가능인구가 변화가 없었다면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더 적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의 규모와 특성을 유지했을 때에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은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생산가능인구의 특성이 유지되는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역시 2020년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23만 3천 명, 3.2%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711만 4천 명에서 2019년 717만 6천 명으로 6만 2천 명, 연평균 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현실의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같은 기

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18만 2천 명, 연평균 0.4% 감소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활용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2013년 수준을 유지하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 특성이 모두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 대비 2019년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규모도 더 작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 외 다른 요인도 물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2013년 이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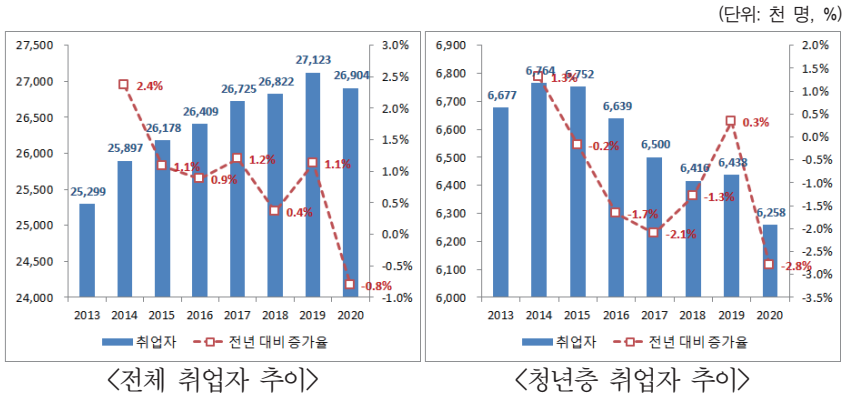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분석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생률 하락의 영향으로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15세 이상 35세 미만 인구는 2020년 1,278만 2천 명에서 2030년 1,047만 6천 명으로, 2035년에는 883만 9천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인력공급을 축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3절 청년층 취업자 현황 분석

취업자는 실현된 인력수요로 노동시장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청년층 취업자 분석을 통해 청년층 인력수요를 살펴보고자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는 2020년 625만 8천 명으로 2013년 667만 7천 명 대비 41만 9천 명, 연평균 0.9%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자 수 역시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년 대비 18만 명, 2.8%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도 청년층 취업자 수는 23만 9천

명, 연평균 0.6% 감소했다.

[그림 2-5] 청년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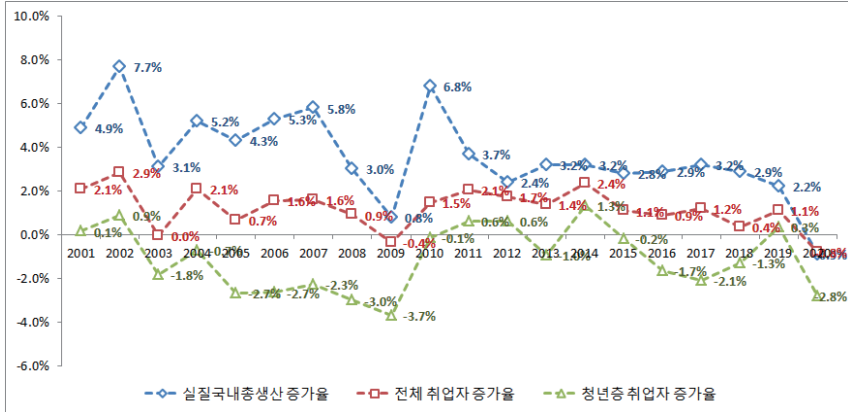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전체 취업자는 2,690만 4천 명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1만 8천 명 감소했지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60만 5천 명, 연평균 0.9%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취업자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후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만 2천 명, 0.3%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들어 다시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선 경제성장률 둔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세계 금융위기 이전 2007년까지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하락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저저효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2010년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한 해가 없었다. 2011년 이후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 대비 -0.9% 역성장을 기록할 때까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계속해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인력수요는 생산의 파생수요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인력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청년층 취업자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증가율 둔화를 경제성장률 둔화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2000년 이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전체 취업자 수 역시 2008년 이전과 2010년 이후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소폭 낮아졌다. 실질국내총생산에 비하면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하락한 것이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도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 청년층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실질국내총생산이 최근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한 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채용 관행 변화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일 수 있다. 이병희(2003), 김대일(2004), 홍성민·박진희(2012) 등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인력 수요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된 것이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확산된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 세계화에 따른 전 세계적 경쟁 구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에 시간이 소요되는 청년층을 신규로 고용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생산에 투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용이한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게 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측면의 이와 같은 변화가 사용자 하여금 청년층 채용 대신 다른 연령대 취업자를 채용하거나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수요를 줄이는 등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현재까지는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가 인력수요 감소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일자리에서 이와 같은 노동력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가 계속된다면 충원되지 않은 청년층 인력수요를 다른 연령대 혹은 기술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2013년 이후, 더 길게는 2000년 이후 관측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 경향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에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했을 것이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전체 취업자, 청년층 취업자를 감소시킨 것처럼 일시적인 외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취업자 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30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취업자는 2013년 294만 8천 명에서 2020년 249만 5천 명으로 45만 3천 명, 연평균 2.4% 줄어 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45만 5천 명, 연평균 2.8% 감소했다.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 역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만 3천 명, 연평균 4.6% 감소했으며 2019년까지는 2만 7천 명, 연평균 2.1% 감소했다. 반면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2013년 225만 3천 명에서 2020년 242만 명으로 16만 7천 명, 연평균 1.0%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2020년 이전까지로 보면 취업자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2만 3천 명,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연령대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225	245	245	244	247	205	198	162
20세 이상 25세 미만	1,251	1,337	1,402	1,402	1,368	1,292	1,272	1,181
25세 이상 30세 미만	2,253	2,220	2,217	2,262	2,292	2,408	2,475	2,420
30세 이상 35세 미만	2,948	2,963	2,887	2,732	2,593	2,512	2,493	2,495
청년층 계	6,677	6,764	6,752	6,639	6,500	6,416	6,438	6,2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대별 청년층 취업자 변동 추이는 경제활동인구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15세 이상 20세 미만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모두 감소한 반면에 25세 이상 30세 미만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증가했다. 여기에는 전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25세 이상 30세 미만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한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증가는 인력공급 확대에 이어졌으며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해당 연령대 취업자가 전체 청년층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 것이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중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3.7%에서 2020년 38.7%로 커졌다.

성별 청년층 취업자 역시 경제활동인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취업자가 모두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취업자의 감소폭이 더 컸다. 남성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361만 3천 명에서 2020년 331만 9천 명으로 29만 3천 명, 연평균 1.2% 감소했다. 2014년과 2019년 전년 대비 증가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여성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06만 4천 명에서 293만 9천 명으로 12만 5천 명, 연평균 0.6% 감소했다. 2015년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 들어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2-7〉 성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	3,064	3,107	3,121	3,091	3,062	3,037	3,030	2,939
남성	3,613	3,657	3,631	3,548	3,438	3,379	3,408	3,319
청년층 계	6,677	6,764	6,752	6,639	6,500	6,416	6,438	6,2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여성 청년층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0년 여성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 2천 명 감소해 8만 8천 명이 감소한 남성 청년층 취업자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5천 명, 연평균 1.0% 감소했으며 여성 청년층 취업자는 3만 4천 명, 연평균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 대비 남성과 여성 청년층 취업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업자가 감소했던 여성의 경우가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에 전문대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 취업자는 228만 8천 명에서 245만 5천 명으로 16만 6천 명, 연평균 1.0%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21만 4천 명, 연평균 1.5% 늘어났다. 또한 대학원 졸업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만 1천 명, 연평균 1.4%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도 8천 명, 연평균 0.7% 증가했다. 반면 전문대 졸업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172만 8천 명에서 2020년 131만 7천 명으로 41만 2천 명, 연평균 3.8% 감소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취업자도 231만 1천 명에서 213만 6천 명으로 17만 5천 명, 연평균 1.1% 줄어들었다.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 역시 같은 기간 감소했다.

〈표 2-8〉 교육 수준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23	15	17	21	25	23	18	15
중학교 졸업	122	123	120	128	134	130	131	109
고등학교 졸업	2,311	2,380	2,369	2,312	2,242	2,207	2,222	2,136
전문대 졸업	1,728	1,642	1,556	1,506	1,416	1,371	1,352	1,317
4년제 대학 졸업	2,288	2,390	2,465	2,441	2,466	2,486	2,502	2,455
대학원 졸업	204	214	225	231	217	200	213	226
청년층 계	6,677	6,764	6,752	6,639	6,500	6,416	6,438	6,2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자에서 역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커졌다. 4년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에서 이들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7.3%에서 2020년 42.8%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중 전문대 졸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5.9%에서 2020년 21.0%로 줄어들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의 비중은 36.8%에서 36.1%로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의 고학력화는 인력공급 측면에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성장, 기술 발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인력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인력수요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모두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이 1만 8천 명, 연평균 0.1%, 임시직이 24만 5천 명, 연평균 2.4%, 일용직이 6만 3천 명, 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용직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만 명,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만 3천 명, 연평균 3.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만 2천 명, 연평균 0.5%, 무급가족 종사자가 4만 8천 명, 연평균 5.7% 감소했다.

〈표 2-9〉 종사상 지위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용직	4,156	4,201	4,209	4,204	4,164	4,152	4,186	4,137
임시직	1,553	1,591	1,617	1,580	1,527	1,472	1,425	1,308
일용직	339	322	299	263	277	279	309	276
고용원있는자영업자	148	168	153	144	131	132	127	116
고용원없는자영업자	337	337	335	322	287	278	292	326
무급가족 종사자	143	145	139	127	114	102	98	95
청년층 계	6,677	6,764	6,752	6,639	6,500	6,416	6,438	6,2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취업자 중에는 상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데 2013년 이후 상용직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에 따라 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청년층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2013년 62.2%에서 2020년 66.1%로 3.9%p 증가했다. 반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2013년 23.3%, 5.1%에서 2020년 20.9%, 4.4%로 줄어들었다. 2013년 이후 전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 추이에서도 이와 같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의 또 다른 특성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작다는 것이다. 2020년 청년층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6%로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24.4%에 크게 못 미친다. 청년층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상용직과 달리 2013년 9.4%에서 2020년 8.6%로 줄어들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로 구분했을 때 2020년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체로 146만 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에 122만 9천 명이 종사했으며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 107만 2천 명,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에 104만 7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사업체 규모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인 미만	1,577	1,618	1,584	1,525	1,474	1,464	1,530	1,460
5인 이상 10인 미만	1,117	1,127	1,098	1,095	1,117	1,100	1,108	1,047
10인 이상 30인 미만	1,366	1,349	1,372	1,338	1,355	1,322	1,273	1,229
30인 이상 100인 미만	1,151	1,161	1,174	1,158	1,108	1,089	1,066	1,07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624	644	669	687	639	599	613	575
300인 이상	842	865	855	836	807	842	849	876
청년층 계	6,677	6,764	6,752	6,639	6,500	6,416	6,438	6,2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규모별 청년층 취업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까지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84만 2천 명에서 2020년 87만 6천 명으로 3만 4천 명, 연평균 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 중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는 2013년 12.6%에서 2020년 14.0%로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에서도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해 여전히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300인 미만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표 2-11>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64	59	51	46	47	50	56	58
B	2	3	2	3	4	3	2	2
C	1,266	1,270	1,300	1,240	1,199	1,145	1,073	1,041
D	21	14	18	16	16	14	19	18
E	17	19	15	21	20	22	27	27
F	253	262	254	235	243	260	266	282
G	1,023	1,078	1,038	1,005	982	962	931	899
H	194	176	186	184	179	182	188	227
I	573	649	691	744	739	724	786	708
J	322	329	343	336	330	344	359	345
K	275	257	224	219	226	230	203	198
L	52	41	36	47	56	42	46	44
M	441	436	447	436	407	391	411	412
N	288	271	281	276	278	261	262	262
O	192	207	191	185	189	233	218	223
P	631	647	639	597	556	519	536	508
Q	614	635	616	627	616	626	622	606
R	178	161	189	191	179	177	196	185
S	269	248	227	230	234	229	232	211
T	1	1	0	0	0	0	1	1
U	0	2	2	2	2	2	2	2

주: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대분류 산업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제조업이었다.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4만 1천 명이었다. 전통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매 및 소매업(89만 9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70만 8천 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0만 6천 명), 교육서비스업(50만 8천 명)에도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 비중으로 보면 정보통신업이 40.7%

로 가장 높았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5.4%), 숙박 및 음식점업(33.0%)도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변화 추이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제조업에서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제조업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126만 6천 명에서 2020년 104만 1천 명으로 22만 5천 명, 연평균 2.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2013년 19.0%에서 2020년 16.6%로 줄어들었다. 도매 및 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 역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12만 4천 명, 12만 3천 명 줄어들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57만 3천 명에서 2020년 70만 8천 명으로 13만 5천 명, 연평균 3.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1만 3천 명, 연평균 5.4%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늘어났다.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 대분류 직업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0년 청년층 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83만 4천 명으로 청년층 취업자의 29.3%를 차지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다음으로는 사무 종사자가 146만 7천 명으로 청년층 취업자의 23.4%이며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도 70만 명 이상으로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내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큰 직업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다. 전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은 33.5%였다. 그다음으로 사무 종사자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이 31.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비스 종사자(26.1%), 판매 종사자(24.5%) 직업에서는 청년층의 비중이 20% 이상이였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4%), 단순노무 종사자(14.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4.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6.6%) 직업에서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직업별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15	19	19	16	14	16	17	15
B	1,978	1,993	1,963	1,952	1,911	1,860	1,861	1,834
C	1,762	1,731	1,686	1,640	1,598	1,589	1,522	1,467
D	720	782	801	818	816	815	877	795
E	774	792	792	779	758	721	729	710
F	55	51	42	39	38	37	42	47
G	364	359	353	374	351	371	376	348
H	586	592	619	572	538	521	525	492
I	422	445	477	449	475	487	490	551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층 취업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취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는 2013년 72만 명에서 2020년 79만 5천 명으로 7만 5천 명, 연평균 1.4%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15만 8천 명, 연평균 3.4%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숙련 수준을 요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역시 증가했다. 청년층 단순노무 종사자는 2013년 42만 2천 명에서 2020년 55만 1천 명으로 12만 9천 명, 연평균 3.9%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 단순노무 종사자는 전년 대비 6만 명, 12.3% 증가했다.

이상에서는 실현된 인력수요라 할 수 있는 취업자를 통해 청년층 인력수요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14년과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

소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반면에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에 전문대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는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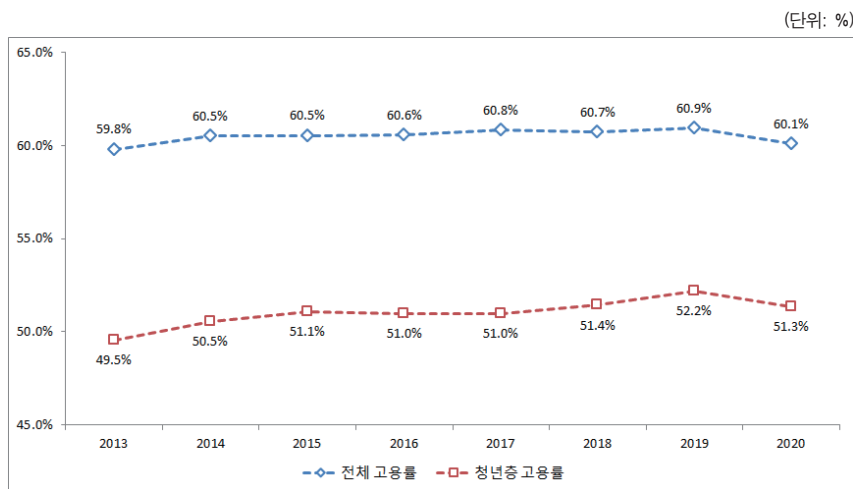
청년층 인력수요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비중이 컸다. 청년층 상용직 취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가 감소했지만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청년층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취업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줄어들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커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많았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많은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의 직업에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을 가진 청년층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2013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조).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49.5%에서 2020년 51.3%로 1.8%p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보면 52.2%까지 2.7%p 상승했는데 2013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률이 상승한 것은 청년층 취업자 수보다 더 빠르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1만 9천 명, 연평균 0.9%,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3만 9천 명, 연평균 0.6% 줄어드는 동안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29만 명, 연평균 1.4%,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14만 7천 명, 연평균 1.5% 감소했다.

[그림 2-7] 청년층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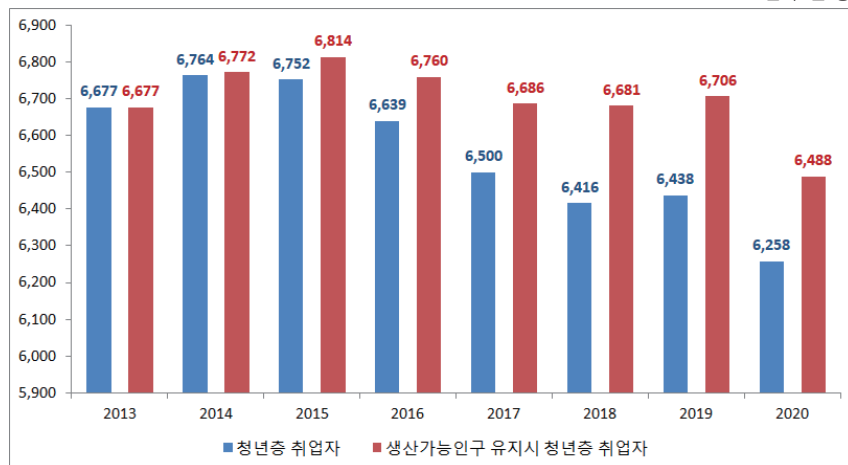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는 사용자의 인력수요와 함께 인력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이상에서 청년층 취업자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청년층 취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2절과 마찬가지로 Hainmueller(2012)의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해 2013년과 생산가능인구가 동일한 규모, 동일한 특성을 가졌을 때 2013년 이후 청년층 취업자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생산가능인구의 특성 통제에는 2절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했다).

1)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해 도출한 결과는 <표 2-5> 참조.

[그림 2-8] 생산가능인구 특성 유지 시 청년층 취업자 분석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2013년의 생산가능인구 특성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667만 7천 명에서 2020년 648만 8천 명으로 18만 8천 명, 연평균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참조). 생산가능인구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실제 청년층 취업자가 같은 기간 41만 9천 명, 연평균 0.9%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청년층 취업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2020년 이전인 2019년까지로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 규모와 특성을 유지했다면 취업자가 3만 명, 연평균 0.1% 증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생산가능인구를 통제했을 때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은 취업자 추이에서 명확하게 관측되었다. 생산가능인구의 특성 변화를 통제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도 2020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 8천 명, 3.3% 감소했다.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취업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성별,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 특성을 유지했다면 2013년 대비 2019년 청년층 취업자 수는 증가

했을 수 있으며 2013년 대비 2020년 취업자 감소 규모 역시 더 작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되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취업자 규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4절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분석

지역별로 보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20년 하반기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1,214만 명 중 53.4%인 648만 5천 명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50.4%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에 속한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323만 2천 명이 거주하며 그다음으로는 서울 지역이 255만 5천 명으로 많았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9만 명이었으며 제주 지역도 14만 6천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2절에서 살펴본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관측된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하반기 1,346만 명에서 2020년 1,214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을 보면 울산 지역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30만 8천 명에서 2020년 25만 명으로 연평균 3.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2.7% 감소한 부산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지역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 이상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

〈표 2-13〉 지역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2,909	899	647	781	431	451	308	0	3,294	348	406	576	441	377	641	811	140
2014	2,847	881	636	775	424	445	309	0	3,290	346	406	583	439	378	634	808	143
2015	2,768	859	621	762	416	436	306	0	3,269	344	405	592	435	376	624	797	145
2016	2,705	839	608	748	403	429	297	0	3,239	339	404	600	429	371	613	777	145
2017	2,638	809	593	731	391	419	285	71	3,215	331	396	529	418	358	591	752	146
2018	2,579	780	576	716	381	408	271	80	3,197	322	388	522	405	346	571	728	147
2019	2,556	760	564	710	375	401	259	87	3,228	314	386	518	393	336	557	708	149
2020	2,555	741	545	698	372	393	250	90	3,232	307	379	505	381	323	541	682	14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반면 수도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같은 기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연평균 0.3% 수준으로 시도 별로 보았을 때 가장 낮았으며 서울 지역은 연평균 1.8%, 인천 지역은 연평균 1.6%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상승했다. 전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대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3년 하반기 51.9%에서 2020년 53.4%로 1.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49.5%에서 50.4%로 0.9% 상승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역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668만 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376만 9천 명, 56.4%로 생산가능인구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180만 3천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서울 지역이 155만 9천 명, 인천 지역이 40만 6천 명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부산 지역이 39만 2천 명이었고 경남 지역은 34만 1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4〉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1,654	440	319	429	200	222	153	0	1,791	156	208	302	202	187	329	407	71
2014	1,669	455	319	430	206	233	150	0	1,802	150	219	322	214	193	343	404	77
2015	1,593	447	321	431	200	223	157	0	1,851	157	213	336	201	188	321	411	82
2016	1,605	447	309	432	186	221	157	0	1,811	161	214	332	198	179	318	401	84
2017	1,552	433	274	421	189	208	153	36	1,845	177	215	281	175	171	303	381	82
2018	1,538	419	289	433	190	206	149	41	1,849	166	220	289	177	172	285	384	84
2019	1,557	425	277	434	190	212	138	44	1,870	168	215	280	176	173	279	371	80
2020	1,559	392	282	406	194	212	129	46	1,803	157	203	271	180	155	271	341	7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도 2013년 이후 감소했다. 각 연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706만 9천 명에서 2020년 668만 명으로 연평균 0.8%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0.4%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절반 이상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0.1%,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0.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중 경기 지역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0.7%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연평균 0.1% 늘어났다. 인천 지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보면 연평균 0.8% 감소했지만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0.2% 증가했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1.0%,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0.8% 감소해 다른 지역보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높았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 충북, 제주에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그중 강원, 제주 지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다.

서울 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지만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

은 2013년 하반기 54.8%에서 2020년 하반기 56.4%로 1.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 비중은 50.0%에서 50.2%로 0.2%p 상승해 청년층 인력공급의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역시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이면서 수도권의 청년층 인력공급 집중도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서울 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13년 하반기 23.4%에서 2019년 하반기 22.6%로 하락했다가 2020년 하반기 23.3%로 회복해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인천 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13년 하반기 6.1%에서 2019년 하반기 6.3%로 상승했으나 2020년 하반기 6.1%로 하락해 201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경기 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3년 하반기 25.3%에서 2019년 하반기 27.1%, 2020년 하반기 27.0% 수준으로 높아져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지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15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였다(부표 1) 참조).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비중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55.7%, 20세 이상 25세 미만은 52.5%, 25세 이상 30세 미만은 56.7%,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58.1%였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경기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서울 지역의 비중이 컸다.

연도별 하반기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5세 이상 2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5.2% 감소하는 동안 수도권 15세 이상 2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3.9% 감소해 수도권의 비중이 50.6%에서 55.7%로 5.1%p 늘어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보면 전체 15세 이상 2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3% 감소했지만 수도권 15세 이상 2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1%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이 커졌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9% 감소했으며 수도권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는 연평균 0.7% 감소했다. 그 결과 전체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 비중은 51.8%에서 52.5%로 0.7%p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보면 전체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4% 증가했고 수도권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3% 증가해 수도권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25세 이상 3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3%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25세 이상 3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3% 증가해 그 비중은 56.1%에서 56.7%로 0.5%p 상승했다. 2013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로 보았을 때에도 전체 25이상 3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9% 증가했으며 수도권 25세 이상 3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3% 증가해 수도권의 비중이 커졌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이 커졌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30세 이상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3% 감소했지만 수도권 30세 이상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7% 줄어들어 수도권의 비중은 2013년 55.4%에서 2018년 58.1%로 2.7%p 상승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보았을 때에도 수도권 30세 이상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가 2.3% 감소하는 동안 전체 30세 미만 3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8%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비중이 커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청년층 모든 연령대 경제활동인구가 수도권에, 특히 경기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3년 이후 대체로 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적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25세 이상 30세 미만보다 15세 이상 20세 미만 저연령대와 교육기관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의 비중이 많은 3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더 컸다(부표 2 참조).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54.4%였으며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58.7%였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여성 인력공급이 남성에 비해 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경기 지역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에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경기 지역보다 서울 지역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 비중의 차이는 더 커졌다. 연도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1.2% 감소하는 동안 수도권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0% 감소하면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3.6%에서 54.4%로 0.8%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4% 감소했지만 수도권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2% 증가했고 전체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3%에서 58.7%로 2.5%p 늘어났다.

교육 수준별로 구분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지역별 비중을 분석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거주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 참조).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수도권의 비중은 46.9%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수도권의 비중은 53.2%였다. 전문대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5.3%였으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9.8%였다. 시도별로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는 경기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는 경기보다 서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더 컸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43.9%에서 46.9%로, 전문대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0.0%에서 55.3%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9.1%에서 59.8%로 각각 3.0%p, 5.3%p, 0.7%p 증가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0.1%p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비중이 작았던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의 수도권 비중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높았던 전문대 이상 고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학력 청년층 경제

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인력수요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해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자 622만 7천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350만 4천 명으로 56.3%였다. 전체 취업자에서는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49.9%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청년층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68만 8천 명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곳은 서울로 144만 2천 명이었다. 인천 지역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만 4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이 청년층 취업자가 30만 명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15>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1,546	409	295	403	189	213	145	0	1,697	145	199	284	193	178	298	388	68
2014	1,534	428	297	399	198	224	144	0	1,715	140	209	302	205	181	324	382	74
2015	1,504	422	303	398	190	213	149	0	1,741	144	209	318	192	179	310	388	79
2016	1,479	420	286	398	175	209	143	0	1,689	152	205	315	189	164	293	380	81
2017	1,435	403	245	394	176	196	142	34	1,714	161	209	257	171	160	288	359	77
2018	1,417	389	262	404	179	192	135	39	1,716	158	213	270	170	168	270	359	80
2019	1,468	404	259	404	181	198	131	41	1,768	155	205	264	160	166	257	351	77
2020	1,442	366	255	374	179	203	119	44	1,688	147	191	261	167	150	249	320	7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에서도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3년 하반기 665만 명에서 2020년 하반기 622만 7천 명으로 42만 3천 명, 연평균 0.8%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하반기까지로 보았을 때에도 16만 2천 명, 연평균 0.4% 줄어들었다. 수도권 청년층 취업자 역시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작았다. 수도권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64만 5천 명에서 350만 4천 명으로 14만 1천 명, 연평균 0.6% 감소했으며 2019년까지는 5천 명, 소폭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

권 거주자의 비중은 2013년 54.8%에서 2020년 56.3%로, 1.5%p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2013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청년층 취업자가 연평균 1.0% 감소해 전체 취업자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가 2013년 하반기 169만 7천 명에서 2020년 하반기 16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1%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전체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은 확대되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연평균 0.4% 감소한 반면에 경기 지역 청년층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했으며 인천 지역 역시 청년층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증가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수도권 외 지역 중 제주, 강원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해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15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별로 보면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모든 연령대 취업자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부표 4 참조). 연령대별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5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55.6%, 20세 이상 25세 미만에서 52.7%, 25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56.5%,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57.8%였다. 청년층 취업자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5.1% 감소한 반면, 수도권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3.6%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49.7%에서 55.6%로 5.9%p 늘어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보면 전체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2.0% 감소한 반면에 수도권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1.0% 증가해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은 59.6%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25세 미만 취업자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도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20년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20세 이상 25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1.0% 감소했으며 수도권 20세 이상 25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0.8% 줄어들면서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은 52.1%에서 52.7%로 늘어났다. 하

지만 2013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기간으로 보면 전체 20세 이상 25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0.4% 증가했고 수도권 20세 이상 25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0.3% 증가해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 역시 소폭 증가했다.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1.2% 증가했지만 수도권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1.3%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0%에서 56.5%로 0.5%p 확대되었다.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2.0% 증가했으며 수도권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2.5% 증가했다.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30세 이상 35세 미만 취업자는 2013년 295만 명에서 2020년 248만 명으로 연평균 2.4%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30세 이상 35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1.9% 감소하면서 전체 30세 이상 35세 미만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5.4%에서 57.8%로 2.4%p 늘어났다.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전체 30세 이상 35세 미만 취업자가 연평균 2.8% 감소할 동안 수도권 30세 이상 35세 미만 취업자는 연평균 2.3% 감소해 확대폭이 줄어들었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청년층 취업자 모두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부표 5> 참조).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남성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4.3%였으며 여성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8.5%였다.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여성 청년층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남성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지역이었으며 서울 지역이 그다음인 반면에 여성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고 그다음이 경기 지역이었다.

연도별 하반기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청년층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360만 8천 명에서 2020년 329만 6천 명으로 연평균 1.3% 감소했지만 수도권 남성 청년층 취업자가 같은 기간 193만 4천 명에서 178만 9천 명으로 연평균 1.1% 감소하면서 남성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3.6%에서 54.3%로 0.7%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체 여성 청

년층 취업자는 2013년 304만 2천 명에서 2020년 293만 2천 명으로 연평균 0.5% 줄어들었고 수도권 여성 청년층 취업자는 171만 1천 명에서 171만 5천 명으로 4천 명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여성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2%에서 58.5%로 2.3%p 늘어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층 취업자가 수도권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더 빠르게 그 비중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절반 이하인 46.9%였지만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취업자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 이상으로 분석되었다(〈부표 6〉 참조). 전체 취업자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은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에서 53.2%, 전문대 졸업 청년층에서 55.3%, 4년제 대학 졸업 학력 청년층에서 59.8%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 보면 교육 수준별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학력 청년층 취업자는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반면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청년층 취업자는 서울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명에서 12만 5천 명으로 연평균 3.5%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취업자는 7만 명에서 5만 9천 명으로 연평균 2.5% 감소해 수도권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43.9%에서 46.9%로 3.0%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수도권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해 수도권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238만 5천 명에서 2020년 228만 2천 명으로 연평균 0.6% 줄어들었으며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 127만 명에서 2020년 121만 3천 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3.2%로 0.1%p

소폭 감소했다.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 비중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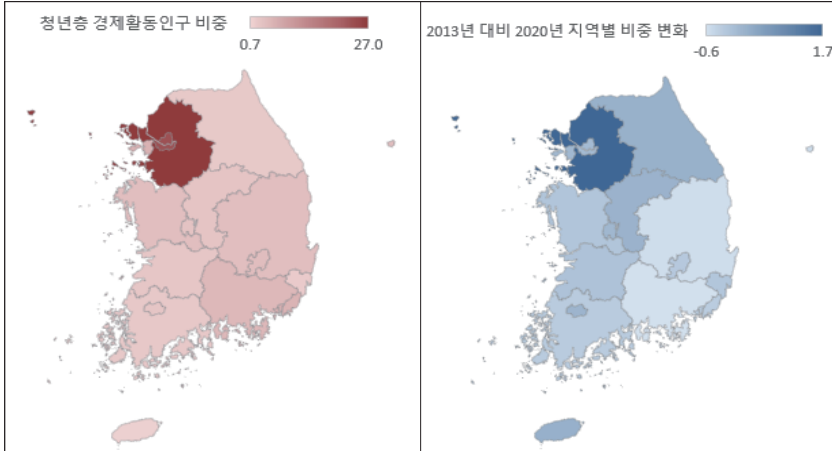
전문대 졸업 청년층 취업자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전문대 졸업 청년층 취업자는 연평균 2.4% 감소했지만 수도권 전문대 졸업 청년층 취업자는 연평균 1.0% 감소하는 수준에 그침에 따라 전체 전문대 졸업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0.0%에서 55.3%로 5.3%p 확대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전문대 졸업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2%p 확대되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청년층 취업자에서 청년층의 비중 역시 증가했다. 각 연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취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96만 명에서 295만 4천 명으로 5천 명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취업자는 같은 기간 175만 명에서 176만 7천 명으로 0.1% 증가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취업자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은 59.1%에서 59.8%로 0.7%p 늘어났다. 전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취업자가 연평균 0.3% 증가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보았을 때에도 수도권 청년층 취업자가 0.5% 증가해 마찬가지로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하반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4%였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3%였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의 수도권 비중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서울, 경기, 인천이 속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9]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 및 지역별 비중 변화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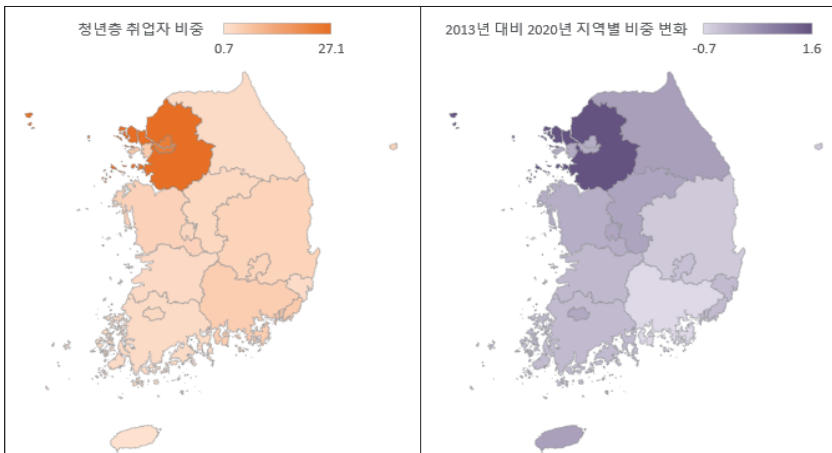


주: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20년 하반기 기준, 지역별 비중 변화는 2013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그림 2-10]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및 지역별 비중 변화

(단위: %, %p)



주: 지역별 취업자 비중은 2020년 하반기 기준, 지역별 비중 변화는 2013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이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의 수도권 비중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더욱 확대되어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4.8%에서 56.4%로 1.6%p 증가했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4.8%에서 56.3%로 1.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0.2%p 늘어났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2013년 49.9% 수준을 2020년에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의 수도권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크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 비중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상림(2020)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수도권 중 충북, 세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2-16〉 참조)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커졌으며 여전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비수도권 시도 청년인구의 순이동률(2019년)

(단위: %)

구분	전체	수도권	타지방	구분	전체	수도권	타지방
전북	-35.5	-25.6	-9.9	경남	-23.0	-17.4	-5.6
강원	-19.8	-21.7	1.9	충남	-10.3	-16.4	6.1
경북	-25.2	-20.7	-4.5	대전	-12.9	-16.1	3.2
전남	-30.7	-19.4	-11.3	부산	-14.1	-15.5	1.4
울산	-23.8	-19.0	-4.8	충북	-9.0	13.1	4.1
대구	-23.5	-18.3	-5.2	제주	-4.4	-10.5	6.1
광주	-9.8	-18.2	8.4	세종	108.4	6.1	102.3

자료: 이상림(2020), p. 5. 〈표 1〉 인용.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에서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가장 컸다. 수도권 비중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15세 이상 20세 미만 저연

령대와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컸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청년층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모두에서 수도권 비중이 더 컸으며 비중 증가 속도도 빨랐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컸으며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과 전문대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컸다.

제5절 소결

이상에서는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인력공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많이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과 전문대 졸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실현된 인력수요라 할 수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도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14년과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반면에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고학력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에 전문대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는 감소했다.

청년층 인력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상용직의 비중은 증가했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증

가하면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을 가진 청년층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했다.

최근의 청년층 인력수급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에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통해 2013년과 청년층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도록 통제된 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2020년 모두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감소가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2013년 수준을 유지하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 특성이 모두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 대비 2019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했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에도 감소폭이 더 작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4%였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3%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와 비교해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6%p 증가했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5%p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 변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에서 인력 수요와 공급의 수도권 집중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가장 컸다. 수도권 비중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15세 이상 20세 미만과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컸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청년층의 수도권 비중이 더 컸으며 비중 증가 속

도도 빨랐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 비중이 컸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과 전문대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 비중이 컸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장기적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할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출생률 하락의 영향으로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15세 이상 35세 미만 인구는 2020년 1,278만 2천 명에서 2030년 1,047만 6천 명으로 2035년에는 883만 9천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와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신규 노동력을 양성하고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향후 기술변화를 고려한 청년층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최근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존의 인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청년층 인력수요와 공급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인력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수도권 비중이 계속된다면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층 인력수요를 충원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청년층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착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은 3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 여성,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비수도권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질적 측면 개선 같은 노동시장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청년층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전반적인 생활·공간 측면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제3장

청년층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제1절 서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1,219만 1천 명 중 취업자는 625만 8천 명이었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593만 3천 명, 48.7%가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실업자이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아닌 이들로 노동시장에 참가해 일을 구하고 있지만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2020년 청년층 실업자 수는 47만 5천 명이었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중을 의미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7.1%였다.

실업은 인력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시장 문제 중 하나이다.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스스로 실업 상태를 택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위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도 존재한다.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같은 비자발적 실업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중년층, 장

년층에 비해 실업률이 높는데 이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중 상당수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경제활동인구 외의 생산가능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8천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44.8%를 차지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다수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육아·가사 등을 위해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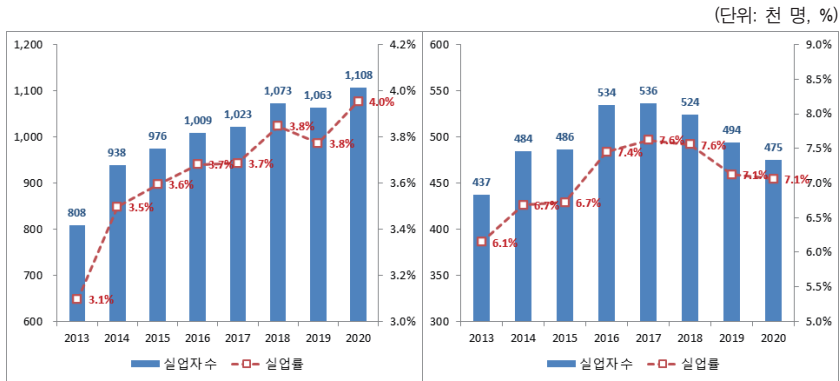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선택한 이들도 있다. 오랫동안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4주 넘게 쉬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또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육아나 가사를 하고 있는 청년층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추이도 면밀하게 관측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 니트(NEETs)에 해당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일하지도 않고 교육 또는 훈련도 받지 않는(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의 증가는 노동력과 숙련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분석했다. 우선 2절에서는 청년층 실업자를 살펴보았다. 청년층 실업자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으며 그 추이를 고찰하였다. 3절에서는 청년층 비취업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과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니트 개념을 이용해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규모를 추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2절 청년층 실업자 현황 및 추이

실업자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²⁾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실업자 수는 47만 5천 명이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3년 43만 7천 명에서 2017년 53만 6천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에는 다시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3-1] 청년층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전체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청년층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실업자 수 감소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력직 선호, 청년층 일자리 특성 변화 등 인력수요 측면의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전 연령대 실업자 수와 달리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실업자 수가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는 청년층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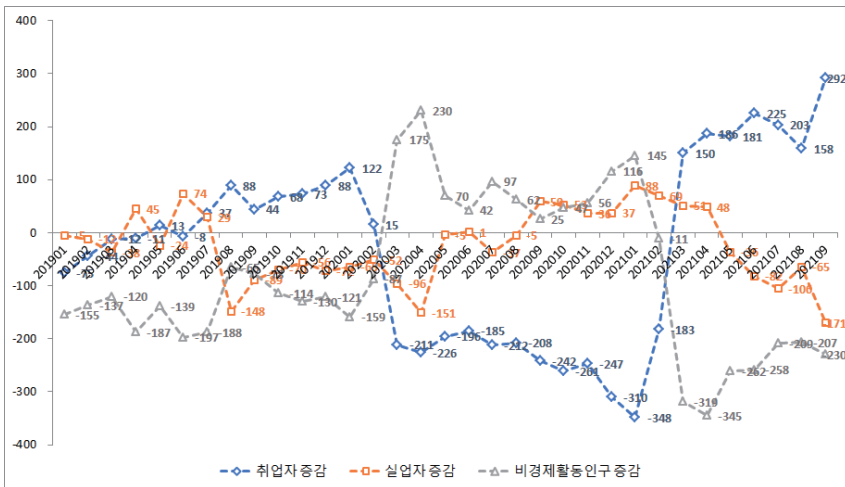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실업자 정의 참조.

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력공급 측면의 요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실업자 증가와 함께 2013년 6.1%에서 2017년 7.6%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7.1%로 다소 하락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로만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청년층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 연령대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실업률 역시 2019년 3.8%에서 2020년 4.0%로 증가했다. 하지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실업자 역시 감소하고 실업률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3-1] 참조). 이는 전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선택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코로나19 확산 전후 청년층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2]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해 청년층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분석한 것이다. 월별로 보면 2020년 들어 코로

나19 확산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2021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층 실업자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청년 중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취업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3-2 참조).

<표 3-1> 연령대별 청년층 실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26	25	29	27	23	21	19	16
20세 이상 25세 미만	126	151	165	170	163	155	153	142
25세 이상 30세 미만	172	201	195	229	240	232	215	213
30세 이상 35세 미만	113	107	97	108	111	117	108	105
청년층 계	437	484	486	534	536	524	494	4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 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실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다(표 3-1 참조). 2020년 기준 25세 이상 30세 미만 실업자는 21만 3천 명이다.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2020년 현재 14만 2천 명이다. 25세 이상 30세 미만과 20세 이상 25세 미만은 2013년 대비 각각 4만 명, 1만 6천 명의 실업자가 증가했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20세 이상 25세 미만 실업자 증가에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242만 5천 명에서 2020년 263만 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20세 이상 2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도 2013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까지 137만 7천 명에서 142만 4천 명으로 증가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실업자 수는 10만 5천 명으로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보다 적었다. 2020년 30세 이상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60만 명으로 25세 이상 30세 미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학교 졸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이 늘어나면서 30세 이상 35세 미만 실업자 수가 더 적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률을 보면 이와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30세 이상 35세 미만 실업률은 4.0%로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0년 30세 이상 35세 미만 실업자는 2013년 11만 3천 명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 개인의 특성,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306만 1천 명에서 260만 명으로 줄어든 것 역시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연령대별 청년층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10.3%	9.3%	10.6%	10.0%	8.7%	9.3%	8.6%	8.8%
20세 이상 25세 미만	9.2%	10.2%	10.5%	10.8%	10.6%	10.7%	10.7%	10.7%
25세 이상 30세 미만	7.1%	8.3%	8.1%	9.2%	9.5%	8.8%	8.0%	8.1%
30세 이상 35세 미만	3.7%	3.5%	3.3%	3.8%	4.1%	4.4%	4.2%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실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여성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실업자는 21만 8천 명으로 남성 청년층 실업자 25만 7천 명의 85.0% 수준이었다. 남성 실업자가 더 많은 것은 인력공급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전체 연령대에도 여성보다 남성 실업자가 더 많았는데 경제활동인구가 더 큰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실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에도 인력공급 측면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 실업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 실업자는 3만 9천 명 늘어났다. 경제

활동인구의 변화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남성 청년층은 29만 4천 명이 감소한 반면에 여성 청년층은 8만 7천 명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는 2013년 대비 증가했다.

<표 3-3> 성별 청년층 실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	180	208	208	233	226	235	219	218
남성	257	276	278	301	310	289	275	257
청년층 계	437	484	486	534	536	524	494	475
여성 실업률	5.5%	6.3%	6.3%	7.0%	6.9%	7.2%	6.7%	6.9%
남성 실업률	6.6%	7.0%	7.1%	7.8%	8.3%	7.9%	7.5%	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은 남성 청년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여성 실업률보다 높았다. 청년층에서 이처럼 남성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이 더 빨리 졸업을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을 보면 군대를 갔다 오는 남성 청년층에 비해 25세 이상 30세 미만 여성 청년층의 실업률이 낮았다.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이 해당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 청년층의 실업률 차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 청년층 역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실업률 격차가 줄어들었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실업자는 2020년 19만 4천 명으로 2013년 18만 5천 명보다 1만 명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실업자가 많았다. 4년제 대학 졸업 청년 실업자는 2020년 16만 3천 명으로 2013년 13만 3천 명 대비 3만 명 증가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에 청년층 실업자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실업자가 더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4년제 대학 졸

업 이상 학력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교육 수준별 청년층 실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2	1	2	1	1	0	0
중학교 졸업	14	9	12	11	9	12	12	10
고등학교 졸업	185	211	210	218	198	206	192	194
전문대 졸업	96	97	97	94	110	98	94	102
4년제 대학 졸업	133	154	157	197	210	198	188	163
대학원 졸업	7	10	8	11	9	9	8	7
청년층 계	437	484	486	534	536	524	494	4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5> 교육 수준별 청년층 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6.7%	10.5%	7.4%	10.2%	2.7%	5.3%	1.1%	1.3%
중학교 졸업	10.3%	6.8%	9.3%	8.0%	6.3%	8.6%	8.3%	8.0%
고등학교 졸업	7.4%	8.2%	8.2%	8.6%	8.1%	8.6%	8.0%	8.3%
전문대 졸업	5.3%	5.6%	5.9%	5.9%	7.2%	6.7%	6.5%	7.2%
4년제 대학 졸업	5.5%	6.1%	6.0%	7.5%	7.8%	7.4%	7.0%	6.2%
대학원 졸업	3.5%	4.6%	3.4%	4.4%	4.1%	4.3%	3.5%	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만으로 청년층 실업자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교육 수준별로 인력수요 측면의 요인 역시 청년층 실업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별 청년층 실업률을 보면 2020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실업률은 각각 8.0%, 8.3%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대학원 졸업 청년층의 실업률 각각 6.2%, 3.0%보다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청년층 구직자가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고학력 구직자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13년

이후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한 전문대 졸업 청년층의 실업률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실업 문제는 중요한 노동시장 문제로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 역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에 직면할 위험이 높은 청년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상의 분석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노동시장에 참여한 청년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이 상대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가를 로짓 모형을 이용해 간략하게 살펴해보았다. 노동시장에 참가한 청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실업 여부를 이용했다. 독립변수로는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 성별, 교육 수준과 함께 배우자 유무, 가구주 여부, 읍면 거주 여부 등의 정보를 활용했으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특성을 통제했을 때 30세 이상 35세 미만보다 낮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실업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세 이상 25세 미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3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 변수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느려 실업률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그보다 학력 수준이 낮은 중학교 졸업 청년의 경우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의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의 청년인 경우 2016년과 2017년, 2019년의 경우에는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청년층 실업 여부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령대	15세 이상 20세 미만	0.050	-0.175**	0.044	-0.082	-0.138*	-0.136*	-0.056	-0.123
	20세 이상 25세 미만	0.133***	0.072*	0.194***	0.123***	0.111***	0.150***	0.286***	0.200***
	25세 이상 30세 미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30세 이상 35세 미만	-0.287***	-0.534***	-0.645***	-0.574***	-0.550***	-0.378***	-0.367***	-0.465***
성별(남성)		0.332***	0.293***	0.337***	0.301***	0.392***	0.241***	0.232***	0.143***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0.276	0.949***	0.386	0.542**	-0.751*	0.036	-1.428***	-1.120**
	중학교 졸업	0.383***	-0.051	0.204**	0.045	-0.124	0.263***	0.250**	0.204*
	고등학교 졸업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전문대 졸업	-0.238***	-0.314***	-0.211***	-0.275***	0.020	-0.173***	-0.091**	-0.043
	4년제대학 졸업	-0.097**	-0.107***	-0.050	0.084**	0.201***	0.038	0.124***	-0.079*
대학원 졸업	-0.311***	-0.014	-0.267**	-0.086	-0.097	-0.300***	-0.310**	-0.543***	
배우자 있음		-1.034***	-0.886***	-0.634***	-0.824***	-0.902***	-0.991***	-1.055***	-0.888***
가구주		-0.487***	-0.740***	-0.650***	-0.683***	-0.726***	-0.574***	-0.457***	-0.410***
동부 거주		0.290***	0.400***	0.252***	0.298***	0.215***	0.286***	0.033	0.226***
상수		-2.707***	-2.572***	-2.580***	-2.501***	-2.554***	-2.513***	-2.467***	-2.486***
표본수		99,225	98,051	95,245	91,375	87,527	85,454	81,973	79,036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처럼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의 청년이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청년층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4년제 대학 졸업 학력 청년층의 인력공급이 인력수요를 초과하거나 4년제 졸업 취업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고학력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정책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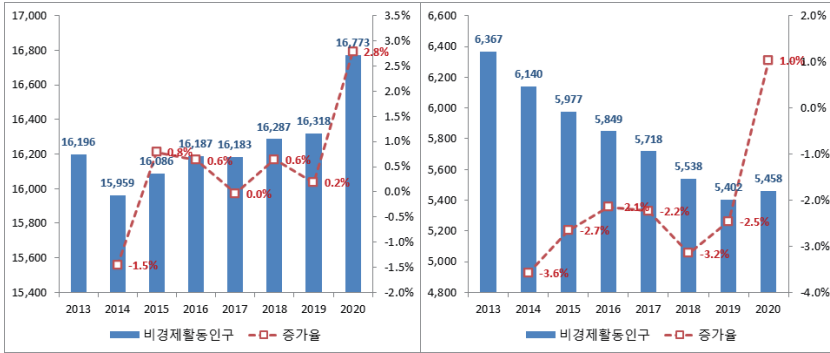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생산가능인구를 의미한다. 즉,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생산가능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실업자와 동일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업자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는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노동시장 문제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구직 활동을 지속하다 잠시 쉬는 경우, 사실상 구직활동 중이지만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교육, 육아, 가사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모두를 노동시장 문제로, 해결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력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견인하는 정책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3 참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8천 명으로 2013년 636만 7천 명에서 90만 9천 명, 연평균 2.2% 감소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96만 6천 명, 연평균 2.7% 감소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데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연령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이후 전체 연령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과 달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림 3-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경기 충격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연령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역시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일을 잃은 청년층 중 다수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완화되면서 취업자 증가와 함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5세 이상 2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27만 4천 명이었다. 그다음은 20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적었다. 이는 저연령층일수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92.8%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학교를 졸업한 이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되는 30세 이상 35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68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20.7% 수준이었다.

〈표 3-7〉 연령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20세 미만	3,023	2,926	2,850	2,795	2,652	2,533	2,401	2,274
20세 이상 25세 미만	1,515	1,496	1,472	1,472	1,492	1,511	1,501	1,554
25세 이상 30세 미만	849	794	805	761	805	792	827	950
30세 이상 35세 미만	981	924	850	819	769	701	673	680
청년층 계	6,367	6,140	5,977	5,849	5,718	5,538	5,402	5,4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5세 이상 20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02만 3천 명에서 2020년 227만 4천 명으로 74만 8천 명 감소했다. 이와 같은 15세 이상 20세 미만 저연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저출생 국면이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의 비중이 큰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과 비교해 2020년 증가했다. 20세 이상 25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151만 5천 명에서 2020년 155만 4천 명으로 3만 9천 명 늘어났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84만 9천 명에서 95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와 경기 효과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가 소폭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작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98만 1천 명에서 2020년 68만 명으로 30만 명, 연평균 5.1% 감소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과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 이후 빠른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만 8천 명, 연평균 6.1%의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7천 명, 1.1%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285만 2천 명으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260만 6천 명보다 24만 6천 명이 더 많았다. 전 연령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전체 연령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74만 3천 명으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603만 명보다 471만 3천 명이 더 많았다. 이처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육아, 가사 등을 이유로 스스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층 역시 상대적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서 육아와 가사를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표 3-8> 성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	3,472	3,339	3,229	3,126	3,023	2,903	2,835	2,852
남성	2,895	2,801	2,748	2,722	2,695	2,635	2,567	2,606
청년층 계	6,367	6,140	5,977	5,849	5,718	5,538	5,402	5,458
여성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51.7%	50.2%	49.2%	48.5%	47.9%	47.0%	46.6%	47.5%
남성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42.8%	41.6%	41.3%	41.4%	41.8%	41.8%	41.1%	4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289만 5천 명에서 2020년 260만 6

천 명으로 28만 9천 명, 연평균 1.5% 감소했지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347만 2천 명에서 285만 2천 명으로 620만 명, 연평균 2.8% 감소했다. 이는 여성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남성보다 더 큰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전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생산가능인구보다 빠르게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여성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었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2020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많았다(표 3-9) 참조).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로 판단된다.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했을 때 중학교 졸업 학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7만 1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표 3-10) 참조). 다만 고등학교 졸업 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97만 1천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여전히 교육 수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 3-9> 교육 수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8	397	425	382	361	352	336	306
중학교 졸업	2,080	2,002	1,942	1,940	1,831	1,730	1,593	1,470
고등학교 졸업	2,717	2,612	2,448	2,408	2,420	2,409	2,400	2,519
전문대 졸업	483	411	392	364	363	343	360	366
4년제 대학 졸업	650	666	714	708	701	659	665	741
대학원 졸업	39	51	54	46	41	46	48	56
청년층 계	6,367	6,140	5,977	5,849	5,718	5,538	5,402	5,4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10〉 정규교육기관 통학자 제외 교육 수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	22	29	22	24	19	16	13
중학교 졸업	78	79	81	70	71	79	77	71
고등학교 졸업	1,115	1,043	1,024	1,001	975	941	935	971
전문대 졸업	483	411	392	364	363	342	360	366
4년제 대학 졸업	608	597	646	639	633	610	619	686
대학원 졸업	33	43	42	36	33	36	39	47
청년층 계	2,336	2,196	2,214	2,132	2,098	2,027	2,047	2,1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보면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관측되는데 이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저연령층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학력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모두 2013년 대비 2020년 감소했다. 전문대 졸업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생산가능인구와 함께 감소했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는 해당 학력 생산가능인구와 함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증가하기도 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이 노동시장 밖에 있다. 그러므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전망처럼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견인해 생산활동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밖의 청년을 돕는 청년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정책 수립에 앞서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11〉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청년 연령대 인구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비경제활동인구 여부를 독립변수로는 연령대별, 성별, 교육 수준 등의 청년층 개인의 특성 관련 정보를 이용하였다. 로짓 모형을 이용했으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중치를 활용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1>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여부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령대	15세 이상 20세 미만	2.101***	2.004***	1.959***	2.045***	1.967***	2.242***	2.267***	2.296***
	20세 이상 25세 미만	0.866***	0.858***	0.838***	0.890***	0.858***	0.973***	0.962***	0.892***
	25세 이상 30세 미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30세 이상 35세 미만	-0.224***	-0.208***	-0.329***	-0.196***	-0.196***	-0.240***	-0.270***	-0.367***
성별(남성)		-0.214***	-0.226***	-0.167***	-0.152***	-0.140***	-0.123***	-0.170***	-0.12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70***	2.099***	2.234***	1.869***	1.762***	1.659***	1.799***	1.703***
	중학교 졸업	1.423***	1.563***	1.608***	1.562***	1.451***	1.292***	1.215***	1.147***
	고등학교 졸업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전문대 졸업	-1.129***	-1.154***	-1.094***	-1.093***	-1.109***	-1.064***	-0.956***	-0.952***
	4년제대학 졸업	-0.914***	-0.842***	-0.750***	-0.746***	-0.825***	-0.803***	-0.765***	-0.686***
	대학원 졸업	-1.227***	-0.925***	-0.816***	-1.018***	-1.134***	-0.787***	-0.702***	-0.621***
배우자 있음		1.014***	0.923***	1.045***	1.036***	0.911***	0.785***	0.669***	0.568***
가구주		-1.755***	-1.643***	-1.685***	-1.630***	-1.513***	-1.264***	-1.128***	-1.219***
동부 거주		0.247***	0.303***	0.238***	0.218***	0.157***	0.146***	0.164***	0.148***
상수		-0.598***	-0.715***	-0.724***	-0.777***	-0.628***	-0.674***	-0.661***	-0.485***
표본수		201,439	192,907	185,110	176,127	170,115	165,200	157,873	155,255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연

령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연령층의 경우 현재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층 연령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이 육아, 가사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으로 여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정규교육기관 통학자 제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여부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령대	15세 이상 20세 미만	1.107***	1.133***	0.772***	0.851***	0.710***	0.897***	0.832***	0.850***
	20세 이상 25세 미만	0.388***	0.335***	0.349***	0.335***	0.308***	0.385***	0.366***	0.241***
	25세 이상 30세 미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30세 이상 35세 미만	-0.040**	-0.042**	-0.178***	-0.084***	-0.063***	-0.074***	-0.153***	-0.258***
성별(남성)		-0.373***	-0.339***	-0.193***	-0.196***	-0.165***	-0.141***	-0.127***	-0.1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0.417***	0.811***	1.380***	0.818***	0.869***	0.833***	0.837***	0.715***
	중학교 졸업	0.047	0.097*	0.079	-0.018	-0.041	0.134***	0.141***	0.134***
	고등학교 졸업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전문대 졸업	-0.667***	-0.653***	-0.530***	-0.549***	-0.541***	-0.482***	-0.374***	-0.380***
	4년제대학 졸업	-0.592***	-0.537***	-0.379***	-0.392***	-0.448***	-0.399***	-0.353***	-0.285***
	대학원 졸업	-1.151***	-0.813***	-0.784***	-0.975***	-1.040***	-0.710***	-0.555***	-0.463***
배우자 있음		1.185***	1.172***	1.351***	1.325***	1.179***	1.065***	0.969***	0.825***
가구주		-1.879***	-1.909***	-1.992***	-1.819***	-1.730***	-1.670***	-1.608***	-1.604***
동부 거주		0.101***	0.080***	0.044**	-0.018	-0.042*	0.001	-0.004	-0.002
상수		-0.902***	-0.987***	-1.116***	-1.088***	-0.985***	-1.063***	-1.020***	-0.834***
표본수		130,704	126,281	126,417	120,495	115,424	112,457	107,885	105,973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의 상당수는 여전히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표 3-12>는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를 이용해 정규교육기관 통학자를 제외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청년층을 기준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축소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가리킨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 3D 프린터 등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자동화가 인력수요를 줄일 수도 있지만 이시균 외(2019)의 전망처럼 기술 발전에도 생산성 증대와 함께 인력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없는 청년층을 파악하고 그들을 돕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났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제4절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규모 및 특성

청년 니트(NEETs)는 청년 연령대 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를 의미한다. 청년 니트는 해외에서 먼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다. 청년 니트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제시된 곳은 영국이다.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의 10대 청소년

을 니트로 지칭했다(김기현, 2017; 김범식·장윤희, 2020). 일본 역시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발생한 젊은 무업자를 주목해 이들의 규모를 노동경제백서 등을 통해 공표했다(김기현, 2005; 2017).

하지만 용어는 간단하지만 니트를 정확히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은 16~18세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하지 않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이들을 니트로 정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중 학교를 졸업한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니트로 규정했다(김기현, 2005). 또한 European Commision(2011)은 취업하지 않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15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을 니트로 보았으며 OECD(2014a)는 정규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을 니트로 정의했다. 이처럼 니트의 정의가 다른 것은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할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청년 니트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 김기현(2017), 김종욱(2017), 이규용 외(2015), 채창균 외(2008)와 같이 15세 이상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있는 반면에 남재량(2006), 김광석(2015), 박진희·김두순·이재성(2015), 김범식·장윤희(2020)와 같이 15세 이상 35세 미만을 기준으로 청년 니트를 규정한 연구도 있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입시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나 기혼자가 아니면서 가사나 육아를 하는 사람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때 조사 대상 기준이 주된 활동 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과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는 청년을 니트로 보았다. 이는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만 니트로 본 박진희·김두순·이재성(2015)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청년 니트를 정의한 것으로 미혼이면서 육아·가사를 선택한 청년 중 다수는 장기 미취업 같은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육아·가사를 하는 이들로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정규 교육 외 입시학원이나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도 니트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역시 교육을 받거나 취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를 분석했다.³⁾

<표 3-1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응답 결과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육아	802	745	711	643	568	483	453	431
가사	265	253	229	222	197	188	169	157
정규교육기관 통학	4,032	3,944	3,763	3,717	3,620	3,511	3,355	3,305
입시학원 통학	55	66	66	64	56	68	67	45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159	157	193	190	202	191	208	206
취업준비	333	319	323	342	383	403	411	467
진학준비	133	116	122	152	125	115	106	120
심신장애	67	62	54	61	73	71	63	65
군입대 대기	59	67	74	67	71	71	66	63
쉬었음	426	370	393	356	391	399	466	569
기타	38	40	50	35	32	38	38	31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6,367	6,140	5,977	5,849	5,718	5,538	5,402	5,4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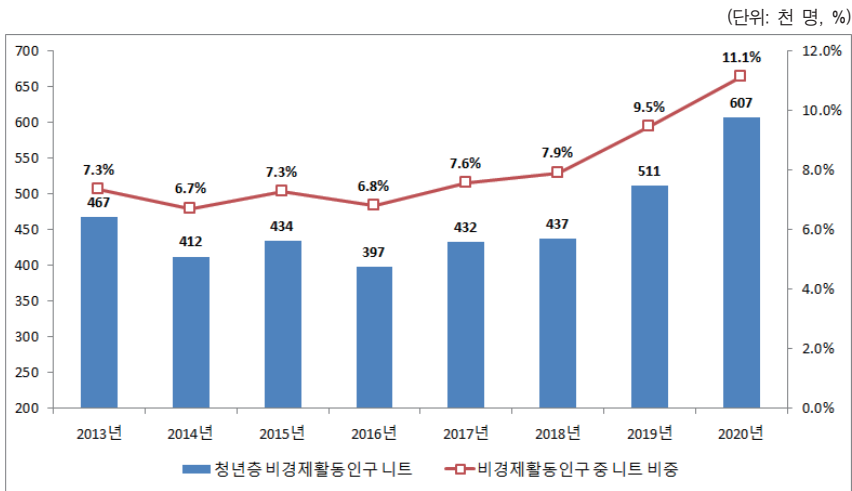
이상의 개념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추산했을 때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60만 7천 명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규모는 2013년 46만 7천 명에서 2020년 60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같은 기간 636만 7천 명에서 545만 8천 명으로 감소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취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청년의 수는 늘

3) 청년 니트의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로, 정의에 따라 청년층 니트 규모는 다르게 측정됨. 본 연구는 비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니트를 분석함.

어난 것이다.

2020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니트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모두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별개로 최근 들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2016년 39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2019년까지 51만 1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2018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함께 이전까지의 경향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3-4]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에서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비중이 가장 컸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24만 4천 명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니트의 40.1%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19만 3천 명이었다. 정규교육 졸업 후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 중 일부가 이처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정규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수가 적었다. 노동시장에 진출한 취업자의 비중이 큰 30세 이상 35세 미만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13만 6천 명 수준으로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연령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규 모	15세 이상 20세 미만	34	34	36	25	30	31	30	35
	20세 이상 25세 미만	165	144	165	148	168	168	183	193
	25세 이상 30세 미만	136	120	132	125	127	136	178	244
	30세 이상 35세 미만	132	113	101	99	108	101	120	136
	청년층 계	467	412	434	397	432	437	511	607
비 중	15세 이상 20세 미만	7.3%	8.3%	8.3%	6.3%	6.9%	7.1%	5.9%	5.7%
	20세 이상 25세 미만	35.3%	35.1%	38.1%	37.3%	38.9%	38.6%	35.8%	31.8%
	25세 이상 30세 미만	29.0%	29.1%	30.4%	31.6%	29.3%	31.1%	34.8%	40.1%
	30세 이상 35세 미만	28.4%	27.5%	23.2%	24.8%	24.9%	23.2%	23.5%	22.4%
	청년층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2013년 13만 6천 명에서 2020년 24만 4천 명으로 10만 8천 명, 연평균 8.7%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19년 대비 6만 6천 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도 전년 대비 4만 2천 명이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20세 이상 25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규모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만 8천 명, 연평균 2.3% 증가했다. 20세 이상 25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역시 2019년과 2020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천 명, 연평균 0.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여성보다 더 많았다. 2020년 기준 남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33만 6천 명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절반 이상인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이를 보면 여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5만 4천 명, 연평균 2.5% 증가하는 동안 여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 6천 명, 연평균 5.6% 증가했다. 다만 전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크게 증가했던 2019년과 2020년에는 남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표 3-15> 성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규	여성	185	180	185	175	206	205	232	271
	남성	282	232	249	223	226	232	279	336
모	청년층 계	467	412	434	397	432	437	511	607
비	여성	39.7%	43.8%	42.6%	43.9%	47.7%	47.0%	45.4%	44.7%
	남성	60.3%	56.2%	57.4%	56.1%	52.3%	53.0%	54.6%	55.3%
중	청년층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 수준별로 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2020년 기준 31만 4천 명으로 전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의 청년층 비경제활동 동인구 니트의 규모도 27만 명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44.5%나 되었으며 그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15만 1천 명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24.8%였다.

<표 3-16> 교육 수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규 모	초등학교 졸업 이하	7	3	7	5	2	2	3	2
	중학교 졸업	20	18	17	10	16	22	24	21
	고등학교 졸업	276	231	243	221	239	241	279	314
	전문대 졸업	85	77	66	63	75	76	93	120
	4년제 대학 졸업	75	79	94	97	96	93	108	143
	대학원 졸업	4	4	7	2	3	4	4	7
	청년층 계	467	412	434	397	432	437	511	607
비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	0.7%	1.6%	1.1%	0.5%	0.5%	0.6%	0.3%
	중학교 졸업	4.2%	4.3%	4.0%	2.6%	3.8%	4.9%	4.7%	3.5%
	고등학교 졸업	59.1%	56.1%	56.1%	55.5%	55.3%	55.1%	54.6%	51.7%
	전문대 졸업	18.2%	18.6%	15.3%	15.8%	17.5%	17.4%	18.3%	19.7%
	4년제 대학 졸업	16.1%	19.1%	21.6%	24.3%	22.2%	21.3%	21.2%	23.6%
	대학원 졸업	0.8%	1.1%	1.5%	0.6%	0.8%	0.8%	0.7%	1.2%
	청년층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 수준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추이를 보면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그 이상의 학력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원 졸업 학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3천 명, 연평균 9.4% 증가했으며 4년제 대학 졸업 학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6만 8천 명, 연평균 9.7%가 늘어났다. 전문대 졸업 학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도 같은 기간 3만 4천 명, 연평균 5.0%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고학력 청년

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증가하면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비중은 2013년 64.8%에서 2020년 55.5%로 줄어들었으나 전문대 졸업 학력의 비중은 18.2%에서 19.7%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비중은 16.1%에서 23.6%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니트를 선택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표 3-17>은 로짓 분석을 통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니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니트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니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구직 또는 일 경험을 돕는 정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2017년 이전까지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여성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더 컸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이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 청년층 모두 니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전문대 졸업 학력과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니트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원 졸업,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는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인별 인적 속성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쉬었음 외 육아나 가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주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도 상대적으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1인 독립가구 청년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7〉 청년층 비경제활동 니트 여부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령대	15세 이상 20세 미만	-2.410***	-2.142***	-2.189***	-2.291***	-2.073***	-2.315***	-2.836***	-2.615***
	20세 이상 25세 미만	-0.749***	-0.819***	-0.740***	-0.790***	-0.606***	-0.680***	-0.909***	-1.079***
	25세 이상 30세 미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30세 이상 35세 미만	1.146***	1.022***	0.870***	0.819***	0.870***	0.764***	0.773***	0.519***
성별(남성)		0.375***	0.115***	0.141***	0.038	-0.121***	-0.047	0.013	0.036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0.562***	-1.487***	-0.840***	-1.032***	-1.891***	-1.743***	-1.226***	-1.624***
	중학교 졸업	-1.020***	-1.199***	-1.252***	-1.573***	-1.220***	-0.705***	-0.507***	-0.820***
	고등학교 졸업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전문대 졸업	0.945***	1.149***	0.856***	0.891***	1.048***	1.006***	0.789***	1.065***
	4년제대학 졸업	-0.257***	-0.121**	0.001	0.037	-0.060	0.005	-0.195***	-0.119***
대학원 졸업	-0.293	-0.369**	-0.070	-1.082***	-0.551**	-0.625***	-0.990***	-0.473***	
배우자 있음		-3.333***	-3.711***	-3.372***	-3.271***	-3.094***	-3.003***	-2.942***	-2.986***
가구주		0.949***	0.547***	0.412***	0.596***	0.713***	0.562***	0.194***	0.247***
동부 거주		-0.331***	-0.418***	-0.469***	-0.384***	-0.379***	-0.312***	-0.250***	-0.222***
상수		-1.336***	-1.170***	-1.039***	-1.136***	-1.160***	-1.209***	-0.901***	-0.782***
표본 수		102,214	94,856	89,865	84,752	82,588	79,746	75,900	76,219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 실업자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3년 43만 7천 명에서 2017년 53만 6천 명으

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에는 다시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실업자 증가와 함께 2013년 6.1%에서 2017년 7.6%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7.1%로 다소 하락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른 특성을 통제했을 때 30세 미만 연령층일수록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노동시장에 늦게 진출하는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컸으며 4년제 대학 졸업 학력 청년의 경우에도 2016년, 2017년, 2019년에는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었다.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8천 명으로 2013년 636만 7천 명에서 90만 9천 명, 연평균 2.2% 감소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96만 6천 명, 연평균 2.7% 감소했다. 이처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데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경기 충격도 비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전체 연령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역시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분석에 따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교육기관 통학자를 제외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청년층을 기준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4절에서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

준 주된 활동 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과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는 청년을 니트로 정의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추산했을 때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60만 7천 명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규모는 2013년 46만 7천 명에서 2020년 60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교육을 받지 않고 취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청년의 수는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니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분석에 따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니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보면 2017년 이전까지는 남성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컸지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증가한 2017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니트가 될 가능성이 컸으며 배우자가 없거나 1인 독립가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도 니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전인하는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크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중 더 많은 청년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정책은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청년층 취업 지원 정책,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의 수립에서는 교육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학력 청년일수록 실업 상황에 직면하기 쉬우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고학력자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

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고학력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증가하고 있는 고학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돕는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경계취업

제1절 서론

청년이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갖는 취약성은 노동시장의 경험을 통해 취득한 경력과 숙련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숙련의 형성에 기꺼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은 더욱 취약해진다. 청년 개인은 스스로에게 시간과 자원을 쏟아 이룬바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청년이 인적자본을 쌓아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여부는 단지 투자한 자원의 규모나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에게 불안정성은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청년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해소될 듯이 보이지만 현실의 노동시장은 유동적이므로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고용의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개인이 쏟는 노력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신호는 다양하게 관찰된

다. 청년 세대의 선택과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변화는 변화하는 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상호작용의 결과인 셈이다.

이 장에서는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치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계취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내외부를 오가는 불안정한 영역의 최소 규모에 있어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내부에는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놓인 취업자가 있고 노동시장의 외부에는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물론 실업자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미취업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구 부문의 존재와 규모 변화는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중 일부를 설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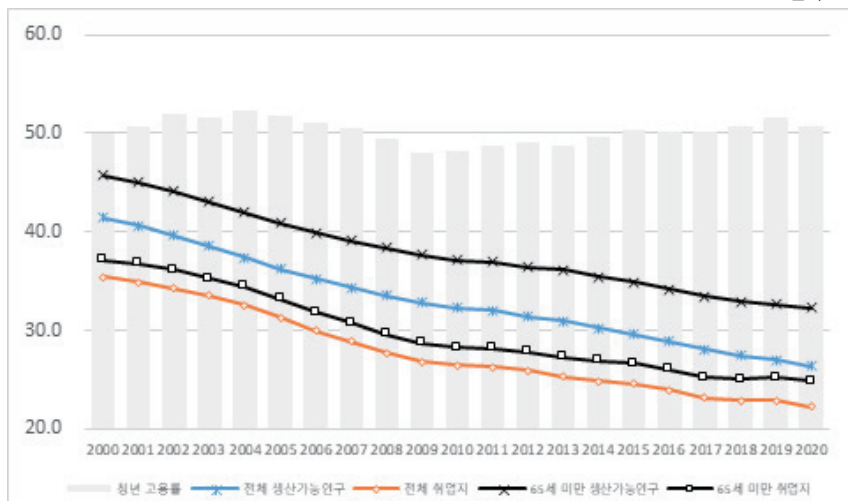
청년 노동시장 내 경계취업자의 증대 경향은 일자리에서 질적 변화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진입한 일자리에서 지속과 일을 통해 얻는 소득 수준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다른 인구 부문과 비교 속에서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년의 취약성, 청년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이 기성세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질적 변화를 확인하여 청년 내 경계취업자 증대 경향이 나타나는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2절 청년 경계취업자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에서 35세 미만 청년의 비중 감소는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현재까지 계속 늘고 65세 미만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의 비중은 각각 26.4%와 32.3%까지 하락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48-5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22.2%, 65세 미만 취업자 중에서 24.8% 수준으로 떨어졌다. 20년 전과 비교하여 청년의 고용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노동시장 안팎으로 청년의 비중은 12%p 이상 하락하였다.

[그림 4-1]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중 청년 비중과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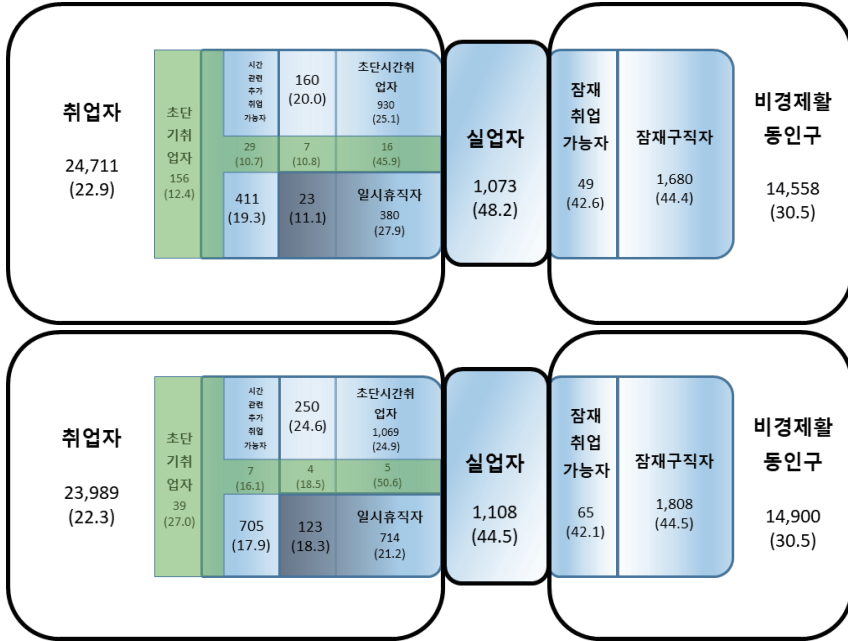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원자료.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청년에게 한국 노동시장의 문은 과거보다 더 열려 있는가? 취업자 수가 증가한 만큼 노동시장은 커지고 일자리는 늘었다. 그러나 청년의 수와 비중이 줄어든 만큼 청년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경험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확인된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그러나 취업자 내부에는 언제든지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영역이 존재하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도 경제활동을 기대하거나 준비하는 실질적 실업자가 존재한다. 노동시장 내외부의 경계 영역에 위치하는 이러한 인구 부문을 ‘경계취업자’로 정의하고 [그림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2] 노동시장 전체 경계취업자 규모와 청년 비중

(단위: 천 명, %)



주: 1. 2018년(상), 2020년(하) 생산가능인구의 부문별 규모에 대한 청년의 비중을 괄호 안에 표시
 2. 일시휴직자는 초단시간 취업자, 초단기 취업자 부문과 교차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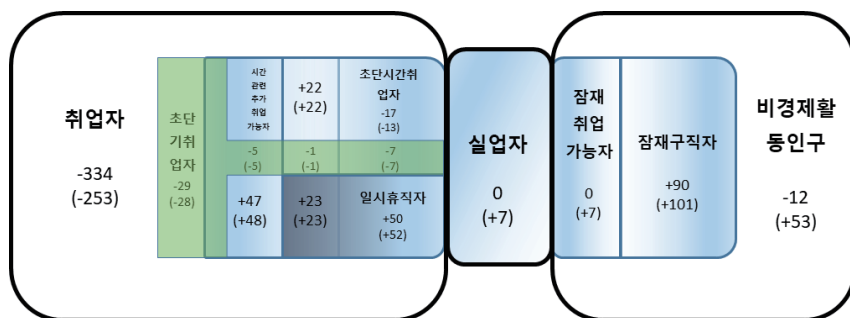
[그림 4-2]에서 음영 영역은 청년 고용률이 각각 50.6%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2018년과 2020년의 경계취업 부문으로, 노동시장 내부의 불안정 영역과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외부 영역의 인구 부문을 나타낸 것이다. 취업자 중 경계취업자는 1-6개월 단기 고용계약을 맺은 초단기 취업자,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취업한 일자리에서 일시적으로 휴직 중인 일시휴직자로 구성되며 교차 영역이 존재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사 시점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잠재취업가능자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며 가능한 잠재구직자도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내부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계취업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노동시장의 경계 부문에 위치하는 경계취업자의 규모는 2018년 생산가능

인구의 11.1%에서 2020년 13.2%로 증대하였다. 청년 중에서 경계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14.6%와 16.4%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그림 4-2]의 괄호 안은 각 부문 내 청년 비중이며,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경계취업 부문에서 청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실업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중에서 청년의 비중은 40%를 상회한다.

[그림 4-3]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경계취업 부분별 증감

(단위: 천 명)



주: 1. 2020년 3월-2021년 2월 평균 부분별 규모를 전년 동기와 비교.
 2. 괄호 안은 생산가능인구 중 부분별 비중을 고려하는 인구효과를 제거한 순효과이며 고용효과로 해석 가능.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경계취업 부분별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의 영향이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3월로, 취업자 감소가 2021년 2월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0.6%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는 1.6% 감소하였고 청년 취업자는 4.1% 감소하였다. 청년 중 경계취업자의 비중은 3-8월 상반기 기준 2019년 16.2%에서 2020년 17.2%, 2021년 16.7%로 변화하였다. [그림 4-3]에 팬데믹 영향 시기인 2020년 3월~2021년 2월의 전년 동기 대비 청년의 부분별 증감 규모를 나타냈다. 더불어 인구효과를 제거한 고용효과를 함께 나타냈다. 팬데믹 후 청년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는 대부분 인구효과가 아닌 고용효과로 설명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경계취업자는 초단기 취업자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모두 늘었고, 순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하였으나 인구효과를 통제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 연도별 상반기(3-8월) 미취업자 부문의 청년 수와 증감

(단위: 천 명)

구 분	실업자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순비경황	
여 성	2018년	247	10	351	2,460
	2020년	225	15	380	2,396
	2021년	209	12	373	2,216
	18-20년 증감 (고용효과)	-22 (-15)	6 (6)	29 (39)	-63 (7)
	18-21년 증감 (고용효과)	-38 (-28)	2 (3)	22 (36)	-244 (-149)
남 성	2015년	309	11	387	2,198
	2020년	267	16	434	2,130
	2021년	255	19	412	2,087
	18-20년 증감 (고용효과)	-42 (-36)	4 (5)	48 (55)	-68 (-25)
	18-21년 증감 (고용효과)	-54 (-47)	8 (8)	26 (34)	-111 (-62)

주: 괄호 안은 생산가능인구 중 부문별 비중을 고려하는 인구효과를 제거한 순효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완화된 2021년 최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 3-8월의 비경제활동인구 부문별 평균 청년 수와 증감을 <표 4-1>에 나타냈다. 2021년 상반기를 2018년 동기와 비교함으로써 팬데믹의 영향을 통제하고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20년, 2021년 청년 생산가능인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하였으나 경제취업자 중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특히 인구효과를 제거했을 때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은 커지고 실업자의 감소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2020년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난 양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표 4-2〉 연도별 상반기(3-8월) 취업자 부문의 청년 수와 증감

(단위: 천 명)

		순 취업자	초단기 취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일시 휴직자	초단시간 취업자
여성	2018년	2,599	12	49	85	188
	2020년	2,371	6	67	137	225
	2021년	2,532	8	67	66	281
	2018~20년 증감 (고용효과)	-228 (-153)	-5 (-5)	18 (20)	53 (55)	36 (42)
	2018~21년 증감 (고용효과)	-67 (34)	-3 (-3)	18 (20)	-18 (-15)	93 (100)
남성	2018년	3,010	20	34	24	90
	2020년	2,856	6	67	72	112
	2021년	2,915	5	72	40	138
	2018~20년 증감 (고용효과)	-154 (-96)	-13 (-13)	34 (34)	48 (48)	21 (23)
	2018~21년 증감 (고용효과)	-95 (-28)	-15 (-14)	38 (39)	15 (16)	48 (50)

주: 괄호 안은 생산가능인구 중 부문별 비중을 고려하는 인구효과를 제거한 순효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2〉는 취업자 내에서 부문별 평균 청년 수와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경계취업자가 아닌 순취업자 수가 여성과 남성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고용효과는 증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계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초단시간 취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두 부문에서 인구효과를 통제한 고용효과는 실제 증가폭보다 크다. 청년은 과거보다 높은 확률로 노동시간 측면에서 불완전하게 취업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경계취업자가 된다.

〈표 4-3〉 학력수준별 청년 경제취업 부문별 수와 증감

(단위: 천 명)

구 분	수 (2021년 3-8월)			증감 (2018년 동기 대비)			고용효과 (2018-21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순취업자	1,874	1,199	2,374	-92	-57	-13	-32	-19	59
순초단기취업자	6	1	0	-8	-1	-2	-8	-1	-2
초단기/시간관련	0	0	0	-2	0	0	-2	0	0
순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56	33	48	22	16	20	23	17	21
시간관련/일시휴직	2	2	5	1	1	5	1	1	5
순일시휴직	30	23	44	9	7	-25	10	8	-23
초단기/초단시간	2	1		-7	1	-1	-6	1	-1
순초단시간	273	9	52	86	0	11	91	1	12
시간관련/초단시간	37	14	30	25	10	14	25	10	15
초단기/시간관련/초단시간	1	1	1	0	1	1	0	1	1
실업자	194	101	168	-35	4	-61	-28	7	-54
잠재취업가능자	15	3	13	-1	2	9	-1	2	9
잠재구직자	321	128	337	15	-0	33	24	4	43
순비경활	3,696	191	416	-414	-9	69	-289	-3	79
계	6,508	1,704	3,489	-403	-25	60	-192	28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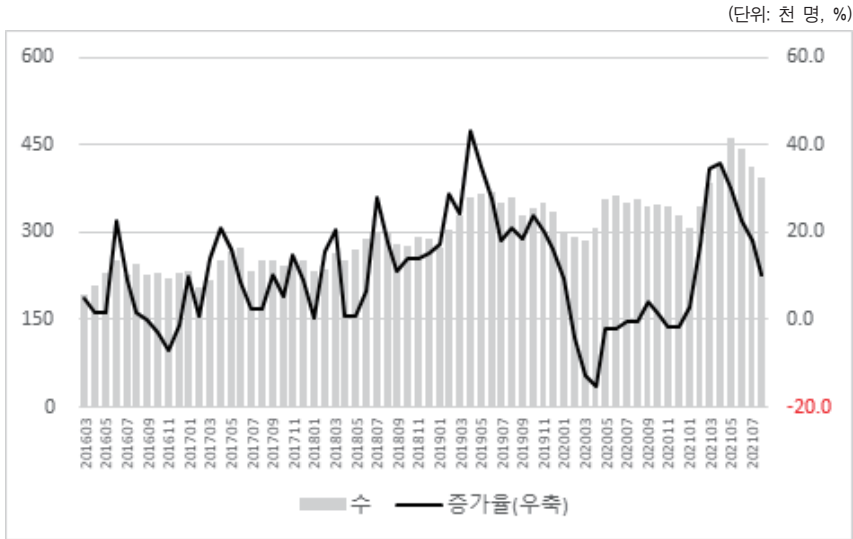
주: 고용효과는 생산가능인구 중 부문별 비중을 고려하는 인구효과를 제거한 순효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3〉에는 2018~2021년 상반기 기준 학력 수준에 따른 경제취업 부문별 청년 수와 증감을 고용효과와 함께 나타냈다. 청년 순취업자 중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제일 크지만 고졸 이하 학력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인구효과를 고려해도 고졸 이하 학력자의 감소폭이 크고 대졸 이상 학력자의 고용효과는 양의 값을 갖는다. 고졸 이하 학력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초단시간 취업자이다. 초단시간 취업자는 [그림 4-4]에서 보듯이 경기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취약한 경제취업 상태로 고려된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도 크게 늘었는데, 단시간의 불완전한 취업을 한 경제취업자 증대에 고졸 이하 학력자의 영향이 크다. 청년 대졸 이상 학력자는 실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잠재구직자가 크게 늘었는데 유일하게 순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였다. 대졸 이상 학력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자가 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커졌다. 같은 기간 순비경제활동인구에서

주된 활동 상태가 취업준비인 응답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가장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그림 4-4] 청년 초단시간 취업자 수와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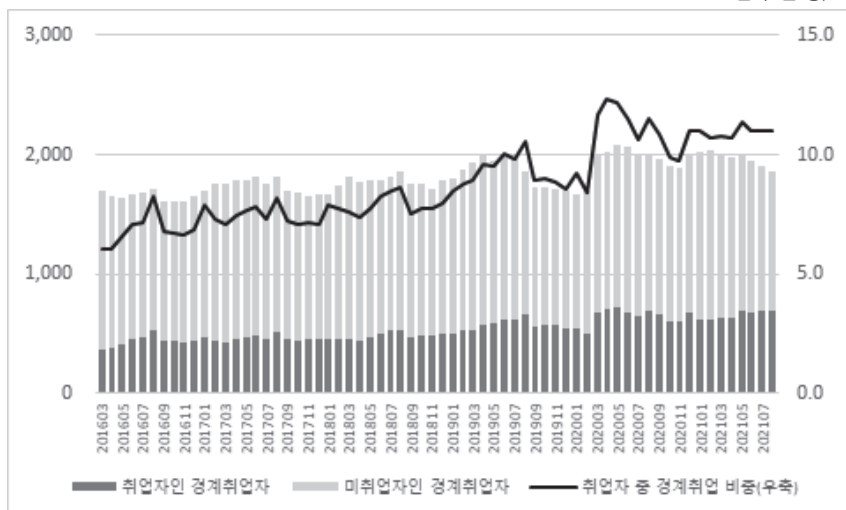
제3절 청년 취업의 불안정성

2절의 청년 경계취업자 분석에서는 청년 내 경계취업자의 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내 경계취업자는 단지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증가하지 않고 취업자 중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청년 취업자 중 경계취업자의 비중은 10.7%로, 이는 2018년 7.9%에서 2.9%p 높아진 수치이다. [그림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비중은 특히 팬데믹의 영향 시기에 높아졌다. 전체 경계취업자 중에서도 취업자인 경계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한 일자리의 높은 불안정성이 청년으로 하여금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동기이자 배경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5] 청년 경계취업자 수와 취업자 중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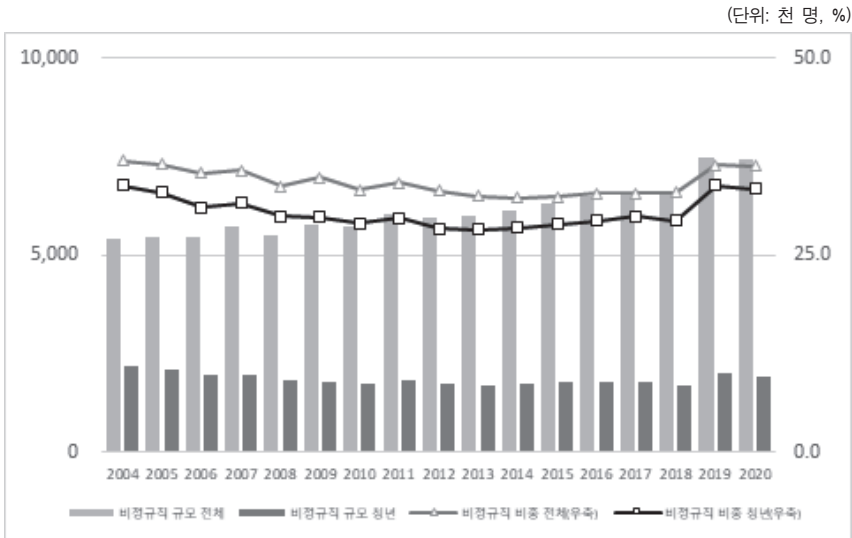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이하에서는 이정아·김수현(2017)에서 분석한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분석 기간을 확장하여 살펴본다. 이전 연구에서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소개된다. 즉,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 등의 단일 지표로 대리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은 생애과정 중에 불안정성을 다양한 양상과 내용으로 경험한다. 초기에 영어권에 불안정성 개념을 소개한 Rodgers and Rodgers(1989)는 불확실성, 통제력, 보호, 소득이라는 네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하나의 단일 지표로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변수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확정된 상태로서 정태적 개념이므로 불안정성의 개념이 갖는 유동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에서 보듯이 청년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다른 중장년층보다 낮게 나타나며 이는 경계취업자 비중이 청년 중

에서 더 높게 나타난 사실과 비교된다.

[그림 4-6]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수와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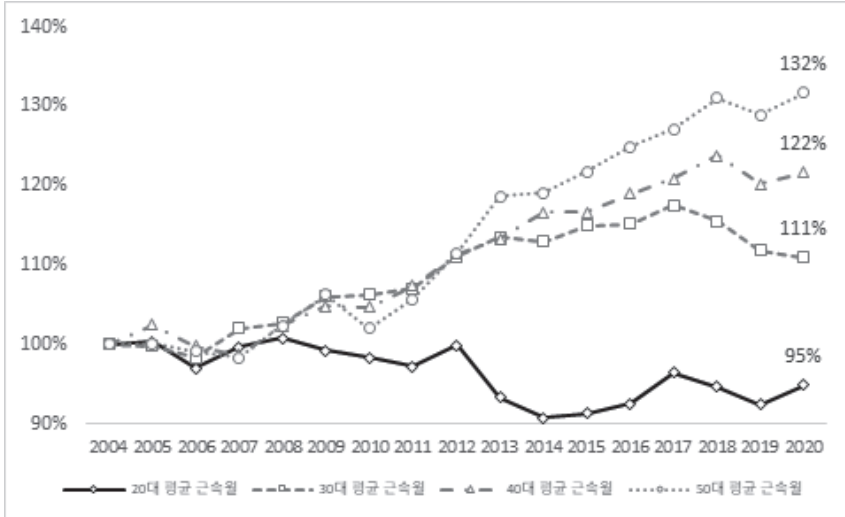


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상대적으로 청년 노동 문제는 일자리의 유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소개한 경제취업자는 이를 더 확장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자 내에도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오기 쉬운 불안정 영역이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림 4-7]은 각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을 2004년에 대한 상대 수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2004년 8월 평균 근속기간은 20대 20.5개월, 30대 51.1개월, 40대 78.8개월, 50대 88.7개월 순으로 길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의 평균 근속기간만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 변화(2004년=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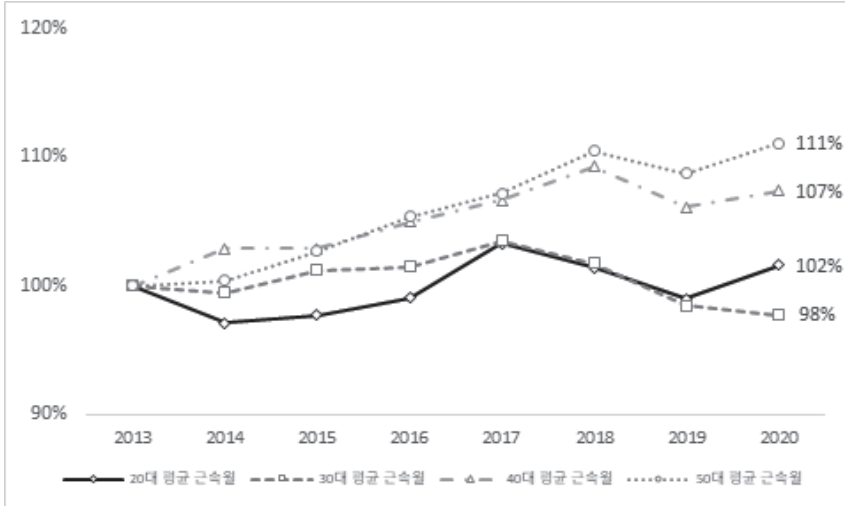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평균적인 근속기간의 변화 측면에서 크게 두 개의 분기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분기 시점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국제적으로 파급된 2008~2009년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던 근속기간이 20대 이상과 이하 연령대에 따라 나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분기 시점은 국내외 거시경제 부진, 제조업 불황의 여파가 노동시장에서 관찰되었던 2013년이며, 연령대별 분기가 시작되었다. [그림 4-8]은 2013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근속기간의 변화를 다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8]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 변화(2013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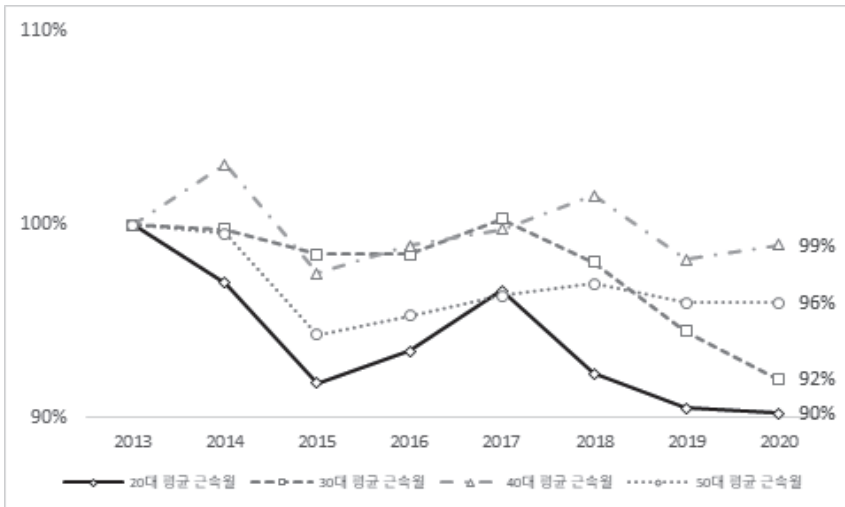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그림 4-9] 노동시장 매칭 후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 변화(2013년=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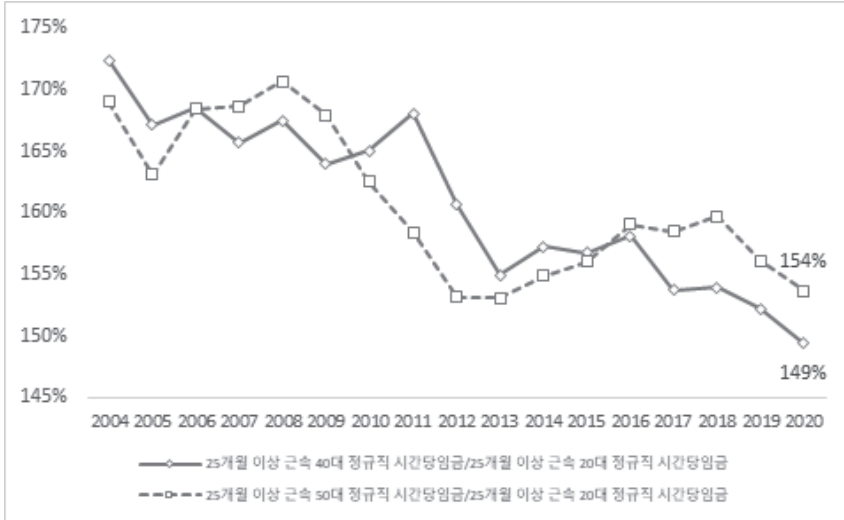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짧아진 평균 근속기간은 40대, 50대와 달리 20대와 30대에서 2020년까지 유지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청년 중 노동시장의 경계에서 불안정하게 오가는 경계취업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노동시장 내 구성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4-9]는 Hairmueller(2012)의 엔트로피 균형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를 통제한 뒤 다시 나타난 연령대별 근속기간 변화이다.⁴⁾ [그림 4-8]과 달리 [그림 4-9]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취업한 일자리에서 기업 규모와 직업, 산업의 구성을 맞춘 반사실적(Counterfactual) 노동시장에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구성 변화를 통제하고 나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2013년보다 훨씬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 구성 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일자리 내에서 취업기간이 짧아지게 된 것이다. 취업자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인적자본이나 인구학적 속성과 무관하게 맞닥뜨리게 된 환경인 셈이다. 이는 일단 취업하더라도 짧은 기간 근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은 어떠한가? [그림 4-10]에서 보듯이 20대 시간당의 임금 상대 수준 변화에는 세 개의 분기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분기점은 60% 이상 수준에서 격차가 유지되다가 하락하기 시작한 2008~2009년이고 두 번째 분기점은 격차의 감소가 멈춘 2013~2016년, 그리고 그 이후이다. 중장년층 입장에서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청년과 임금 격차는 축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정아·김수현(2017)은 불안정성의 두 차원이 교환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사용자 관점에서 노동 생산성이 같을 때 숙련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에게 지불하는 상대적 보상 수준이 낮아졌다면 신규로 고용하여 훈련하기보다는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선택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체와 선택을 낳는다. 일자리의 지속기간이라는 안정성의 한 차원이 상대 보상 수준의 안정성이라는 다른 차원과 교환된 것이다.

4) 분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정아·김수현(2017) 참조.

[그림 4-10] 평균 시간당 임금의 연령대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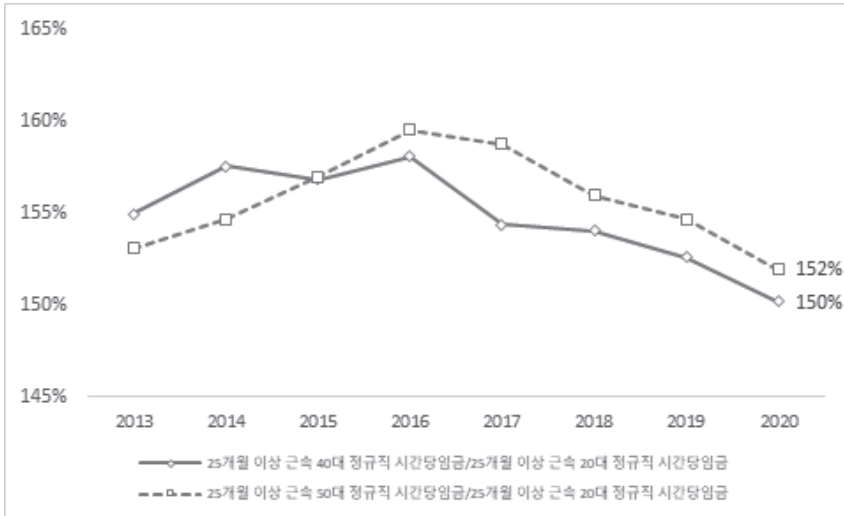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그림 4-11] 노동시장 매칭 후 평균 시간당 임금의 연령대별 격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그림 4-11]은 앞서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분석에서 활용한 엔트로피 균형 매칭 방법으로 노동시장 구성 변화를 통제하여 평균 시간당 임금의 연령대별 상대 임금 격차를 다시 나타낸 것이다. 노동시장 매칭 후 평균 시간당 임금의 연령대별 격차가 다시 하락한 시점은 [그림 4-9]에서 20대와 30대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진 시점과 일치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구성을 통제해도 나타난 변화를 통해 청년이 마주하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는 기성세대와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진입하더라도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과거보다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노동시장의 경계에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 내외부를 가르는 경계 주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경계취업자’로 정의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쉽게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초단기 취업자와 시간 측면에서 불충분하게 취업한 초단시간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일시휴직자는 현재 취업 중인 경계취업자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미취업자인 경계취업자이다. 이들을 모두 경계취업자로 분류함으로써 유동적인 과정에 놓인 불안정성을 포착하고자 했다.

청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청년 고용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청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청년에게 더 많은 노동시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모두 확인된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경계취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13.2% 수준이며 청년 중에서는 16.4%로 더 높다. 물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경계취업자 증대를 촉진했을 수도 있으나 연도별 3-8월 기준으로 2021년까지 변화를 확인한 결과, 추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청년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인구효과를 통제

해도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초단시간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학력 수준별로 대졸 이상 학력자를 중심으로 늘었지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고졸 이하 학력자, 성별로는 여성 중에서 크게 늘었다. 청년은 과거보다 높은 확률로 노동시간 측면에서 불완전하게 취업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경계 취업자가 된다.

3절에서는 현재 취업한 청년의 불안정성에 더해 많은 청년이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정아·김수현(2017)에서 분석한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대상 기간을 확장하였다. 먼저 연령대별 평균 근속기간은 2008년부터 분기하기 시작했다. 거시경제가 부진했던 2013년부터 특히 20대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졌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엔트로피 균형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구성 변화를 통제할 결과 2020년에는 구성 외 변화만으로 20대의 평균 근속기간이 2013년의 90% 수준으로 짧아지게 되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중장년층과 청년의 임금 격차는 축소되었고, 이를 불안정성의 두 차원이 교환되었다고 해석했다. 숙련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노동에 지불해야 하는 상대 보상 수준이 낮아지면서 신규 고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고용을 더 활용할 유인이 생긴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환경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체와 선택을 발생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청년 취업자의 소득 수준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이러한 일자리에 진입하거나 장기적인 고용 유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노동시장의 경제에서 취업하고자 준비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제5장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제1절 서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711만 4천 명에서 2020년 673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년 대비 19만 9천 명, 2.9%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1,348만 1천 명에서 2020년 1,219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 인력수요 측면의 요인도 청년층의 인력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에 따른 경기 위축은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백신이 없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한 청년도 있겠지만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 상태에 머물게 된 청년도 있다.

청년이 인력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자리의 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시장이론에서 개인은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받고자 하는 희망임금과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사회적 임금을 비교해 노동시장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즉, 유보임금이 사회적 임금보다 높을 경우 참여하지 않고 사회적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을 경우 노동시장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임금 수준만이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닐 것이다. 일자리의 질적 수준, 일의 특성 등도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년층의 인력공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근로형태 같은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임금 수준도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는 통계청의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는 개별 근로자의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근로형태, 임금 수준 등의 조사로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현황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분석했다.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이용해 중년층과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4절에서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는 근로형태별 임금 수준과 격차를 살펴보았다.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살펴보고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분석 방법을 이용해 임금 격차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5절은 결론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함의를 찾고자 했다.

제2절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살펴보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개별 근로자의 인적 속성과 함께 일자리의 특성, 임금, 노동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가구 표본조사이다. 개별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자료로 사업체 표본조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8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574만 8천 명이다.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2013년 605만 명에서 2020년 574만 8천 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8월 595만 7천 명에서 574만 8천 명으로 20만 9천 명, 3.5% 감소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 8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까지 전체 연령층 임금근로자는 1,840만 3천 명에서 2,055만 9천 명으로 215만 6천 명, 연평균 1.9% 증가했지만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605만 명에서 595만 7천 명으로 9만 3천 명, 연평균 0.3%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 중 다수는 상용직 일자리이다(〈표 5-1〉 참조).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수는 414만 3천 명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574만 8천 명의 72.1%를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71.3%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는 55세 이상 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과 비교하면 상용직 비중이 작았다.

〈표 5-1〉 종사상 지위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층 임금 근로자	상용직	4,172	4,218	4,238	4,190	4,209	4,155	4,204	4,143
	임시직	1,525	1,630	1,625	1,612	1,518	1,453	1,439	1,312
	일용직	353	340	317	271	275	257	314	293
	소계	6,050	6,189	6,179	6,073	6,002	5,865	5,957	5,748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직	11,974	12,329	12,798	13,050	13,517	13,795	14,287	14,570
	임시직	4,886	5,139	5,131	5,213	5,046	4,859	4,857	4,539
	일용직	1,543	1,524	1,545	1,480	1,443	1,391	1,415	1,337
	소계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청년층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에 비해 2020년 8월 2만 9천 명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까지로 보면 2013년 8월 대비 3만 2천 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청년층의 상용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큰 충격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2013년 8월 69.0%에서 2019년 8월 70.8%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이 줄어들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2.1%로 오히려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며 28.7%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15.5%였다.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작고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컸다. 35세 이상 55세 미만 청년층과 비교해서는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더 크지만 30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작았으며 55세 이상 장년층과 비교해서는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작

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컸다.

<표 5-2> 사업체 규모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층 임금 근로자	5인 미만	982	1,010	1,027	1,025	1,022	986	1,053	961
	5인 이상 10인 미만	1,100	1,113	1,056	1,060	1,089	1,044	1,102	1,014
	10인 이상 30인 미만	1,357	1,344	1,371	1,338	1,343	1,311	1,288	1,232
	30인 이상 100인 미만	1,155	1,174	1,183	1,162	1,101	1,072	1,049	1,075
	100인 이상 300인 미만	599	656	663	672	639	596	604	577
	300인 이상	857	891	880	816	808	857	861	889
	소계	6,050	6,189	6,179	6,073	6,002	5,865	5,957	5,748
전체 임금 근로자	5인 미만	3,506	3,612	3,643	3,554	3,584	3,528	3,783	3,648
	5인 이상 10인 미만	3,225	3,323	3,436	3,529	3,543	3,544	3,648	3,511
	10인 이상 30인 미만	4,041	4,195	4,341	4,454	4,549	4,588	4,581	4,611
	30인 이상 100인 미만	3,659	3,678	3,769	3,790	3,847	3,891	3,896	3,997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759	1,847	1,881	1,973	2,016	1,959	1,989	1,979
	300인 이상	2,212	2,336	2,404	2,443	2,466	2,534	2,661	2,700
	소계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코로나19 확산은 중소 규모 사업체의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5인 미만 사업체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3천 명, 8.8% 감소했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청년층 임

금근로자는 8만 8천 명, 8.0% 줄어들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8천 명, 3.3% 증가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8월에도 전체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도 2019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3년 8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대분류 산업별로 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이었다.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574만 8천 명 중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102만 명으로 17.7%를 차지했다. 제조업 다음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76만 3천 명이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전통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각각 62만 7천 명, 61만 8천 명으로 모두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에도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20만 명 이상이었다. 금융 및 보험업, 운수 및 창고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는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10만 명 이상이었으며 부동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10만 명 미만이었다.

〈표 5-3〉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산업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천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층 임금 근로자	A	21	17	11	14	18	21	28	23
	B	3	4	2	4	4	2	1	2
	C	1,205	1,255	1,263	1,187	1,170	1,085	1,034	1,020
	D	21	14	20	14	12	18	22	18
	E	20	20	16	21	20	24	28	24
	F	246	245	231	213	213	237	257	279
	G	857	919	879	865	884	827	809	763
	H	145	147	165	149	152	159	165	187
	I	506	571	632	675	677	612	695	618
	J	318	313	333	315	317	339	337	321
	K	275	265	221	232	228	227	202	190
	L	51	37	32	42	53	39	45	39
	M	402	413	436	415	366	355	395	374
	N	274	254	260	271	265	258	261	264
	O	198	211	185	192	210	235	210	218
	P	543	542	553	497	473	455	489	447
	Q	602	631	600	620	598	625	612	627
	R	147	126	160	147	139	156	175	155
	S	214	202	180	199	201	189	187	173
	T	1	1	0	0	0	0	2	1
U	0	3	1	3	1	3	1	4	
소계	6,050	6,189	6,179	6,073	6,002	5,865	5,957	5,748	
전체 임금 근로자	A	3,506	3,612	3,643	3,554	3,584	3,528	3,783	3,648
	B	3,225	3,323	3,436	3,529	3,543	3,544	3,648	3,511
	C	4,041	4,195	4,341	4,454	4,549	4,588	4,581	4,611
	D	3,659	3,678	3,769	3,790	3,847	3,891	3,896	3,997
	E	1,759	1,847	1,881	1,973	2,016	1,959	1,989	1,979
	F	135	127	126	130	122	115	123	120
	G	15	13	14	19	24	18	12	11
	H	3,706	3,924	4,100	3,989	4,018	3,941	3,946	3,930
	I	78	69	78	73	67	71	71	71
	J	93	99	99	108	106	124	132	142
	K	1,369	1,383	1,410	1,480	1,513	1,584	1,627	1,662
	L	2,139	2,295	2,247	2,236	2,321	2,251	2,253	2,172
	M	769	776	793	775	783	791	808	813
	N	1,240	1,310	1,430	1,483	1,448	1,362	1,446	1,306
	O	653	637	715	710	718	784	777	771
	P	862	819	760	776	758	804	761	749
	Q	304	314	311	324	366	356	406	363
	R	868	891	912	950	901	925	996	986
	S	1,127	1,143	1,224	1,292	1,306	1,193	1,241	1,274
	T	993	988	961	1,025	1,103	1,131	1,079	1,134
U	1,420	1,446	1,473	1,494	1,538	1,505	1,548	1,482	
소계	1,495	1,650	1,703	1,817	1,852	1,998	2,173	2,328	

주: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구성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비중은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 산업별 구성보다 그 비중이 작았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산업은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이었지만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청년층은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제조업보다 작았지만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의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산업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각 연도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가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2013년 8월 120만 5천 명에서 2020년 8월 102만 명으로 18만 6천 명, 연평균 2.4%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청년층 임금근로자도 2013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9만 6천 명, 연평균 2.7% 감소했다. 제조업 다음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도매 및 소매업의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도 2013년 85만 7천 명에서 2020년 76만 3천 명으로 9만 4천 명, 연평균 1.6% 감소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50만 6천 명에서 2020년 8월 61만 8천 명으로 11만 2천 명, 2.9% 증가했다. 코로나 19 확산이 영향을 미치기 이전인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9만 명, 연평균 5.4%의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7천 명, 11.1% 감소했다. 운수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도 2013년 8월 14만 5천 명에서 2020년 8월 18만 7천 명으로 4만 1천 명, 연평균 3.6% 증가했다. 운수 및 창고업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2020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의 산업도 2013년 8월 대비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증가했다. 이 두 산업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늘어났다.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 대분류 직업별로 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다. 2020년 8월 기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69만 명으로 29.4%였다. 그다음으로 비중이 큰 직업은 사무 종사자였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사무 종사자는 144만 1천 명으로 25.1%였다.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청년층 임금근로자에서 그 비중이 더 컸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68만 6천 명, 59만 3천 명이었다. 두 직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모두 전체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10% 이상으로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순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에서 이들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2013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직업은 사무 종사자였다. 사무 종사자 직업의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172만 5천 명에서 2020년 8월 144만 1천 명으로 28만 4천 명, 2.5%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7만 3천 명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11만 2천 명 줄어 들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2013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4만 명, 연평균 1.1% 감소했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청년층 임금근로자도 같은 기간 7만 7천 명, 연평균 2.2% 감소했다.

〈표 5-4〉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층 임금 근로자	A	11	18	18	12	13	12	13	10
	B	1,830	1,799	1,822	1,752	1,733	1,729	1,694	1,690
	C	1,725	1,706	1,625	1,613	1,595	1,555	1,552	1,441
	D	606	697	692	760	755	707	759	686
	E	613	640	643	655	660	587	610	593
	F	10	8	7	5	6	9	10	15
	G	329	320	319	318	308	330	351	308
	H	533	554	582	536	510	482	489	455
	I	394	447	472	423	423	454	479	549
	소계	6,050	6,189	6,179	6,073	6,002	5,865	5,957	5,748
전체 임금 근로자	A	317	344	302	289	285	345	364	355
	B	4,142	4,177	4,264	4,340	4,433	4,536	4,586	4,578
	C	3,989	4,094	4,147	4,241	4,388	4,432	4,509	4,418
	D	1,726	1,857	1,897	2,004	2,015	1,976	2,130	2,028
	E	1,582	1,669	1,676	1,673	1,682	1,659	1,656	1,625
	F	56	48	50	54	50	64	76	72
	G	1,624	1,636	1,751	1,748	1,694	1,695	1,762	1,763
	H	2,113	2,217	2,305	2,263	2,279	2,200	2,219	2,103
	I	2,853	2,950	3,082	3,131	3,181	3,140	3,258	3,504
	소계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39만 4천 명에서 2020년 8월 54만 9천 명으로 15만 4천 명, 연평균 4.8%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8만 5천 명, 연평균 3.3% 증가했으며 전체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감소한 2020년 8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6만 9천 명이 증가했다. 서비스 종사자를 직업으로 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도 증가했

다. 서비스 종사자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60만 6천 명에서 2020년 8월 68만 6천 명으로 8만 1천 명, 연평균 1.8% 증가했다.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15만 3천 명이 증가해 단순노무 종사자 청년층 임금근로자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7만 3천 명이 감소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을 보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이 382만 2천 명(66.6%), 비정규직이 192만 명(33.4%)이었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청년층이 정규직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과 비교하면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더 컸다. 2020년 8월 중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은 73.1%였다.

<표 5-5> 근로형태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층 임금 근로자	전체	6,050	6,189	6,179	6,073	6,002	5,865	5,957	5,748
	정규직	4,337	4,424	4,391	4,288	4,202	4,143	3,942	3,828
	비정규직	1,713	1,765	1,788	1,785	1,800	1,721	2,015	1,920
	- 한시직	1,083	1,101	1,118	1,092	1,033	1,036	1,295	1,160
	- 시간제	603	676	704	756	834	773	910	896
	- 비전형	316	301	302	281	248	250	275	286
전체 임금 근로자	전체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정규직	12,426	12,869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비정규직	5,977	6,123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 한시직	3,446	3,529	3,655	3,671	3,725	3,823	4,785	4,608
	- 시간제	1,882	2,035	2,236	2,488	2,663	2,709	3,156	3,252
	- 비전형	2,234	2,137	2,229	2,245	2,112	2,071	2,045	2,073

주: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정의를 따름.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은 중복이 가능.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합이 비정규직 규모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은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한시직은 116만 명, 시간제는 89만 6천 명, 비전형 임금근로자는 28만 6천 명으로 각각 21.7%, 15.3%,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모두 청년층에서 비중이 더 작았다. 하지만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과 비교하면 비전형 임금근로자는 중년층에서 비중이 더 컸지만 한시직과 시간제는 청년층에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근로유형별로 보면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2013년 8월 171만 3천 명에서 2020년 8월 192만 명으로 20만 7천 명, 연평균 1.6%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청년층 임금근로자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0만 2천 명, 연평균 2.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5천 명이 감소했다.

비정규직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한시직, 시간제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였다. 한시직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108만 3천 명에서 2020년 8월 116만 명으로 7만 7천 명, 1.0% 증가했다.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1만 2천 명, 연평균 3.0% 증가했으나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천 명이 감소했다. 시간제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60만 3천 명에서 2020년 8월 89만 6천 명으로 29만 3천 명, 연평균 5.8% 증가했다.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0만 7천 명, 연평균 7.1% 증가했지만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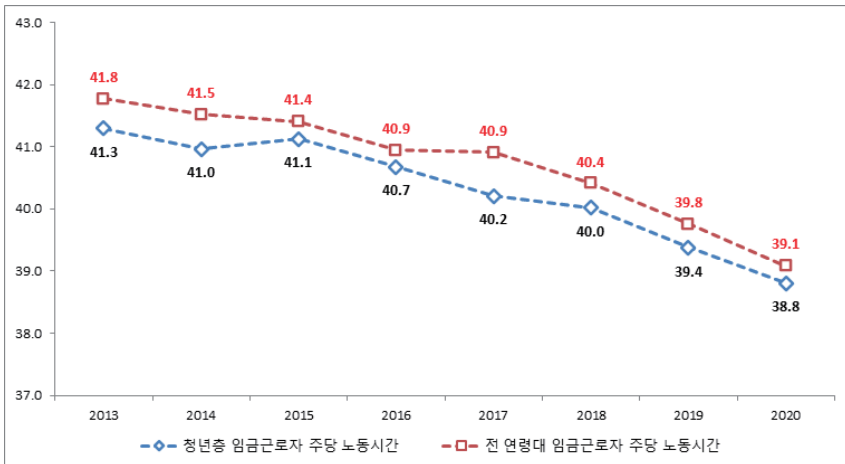
비정규직 중 비전형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31만 6천 명에서 2020년 28만 6천 명으로 3만 명, 연평균 1.4% 감소했다.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만 1천 명 감소했으나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 증가했다. 정규직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433만 7천 명에서 2020년 382만 8천 명으로 51만 명, 연평균 1.8%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9만 5천 명, 연평균 1.6% 감소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5천 명, 2.9% 줄어들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2020년 8월 38.8시간으로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 주당 노동시간 38.8시간보다 짧았다.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과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중년층 임금근로자의 2020년 8월 주당 근로시간은 40.8시간이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짧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주당 노동시간은 2013년 8월 41.3시간에서 2020년 8월 38.8시간으로 2.5시간 줄어 들었다.

[그림 5-1] 청년층 임금근로자 주당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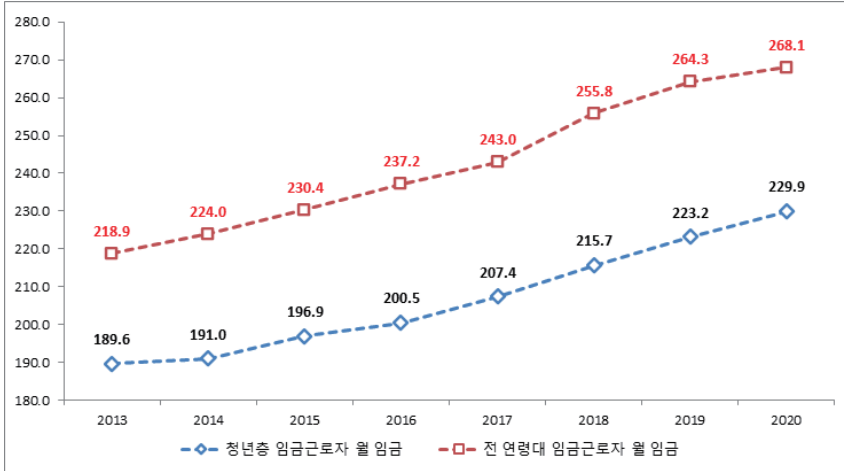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3년 8월 189만 6천 원에서 2020년 8월 229만 9천 원으로 40만 원, 연평균 2.8%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34만 원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 8월에도 전년 대비 7만 원, 3.0% 증가했다. 하지만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 추이와 비교했을 때 임금 상승 수준이 조금 낮았다.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3년 8월 218만 9천 원에서 2020년 268만 1천 원으로 49만 원, 연평균 2.9% 증가했다.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연평균 3.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그림 5-2]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 임금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임금 상승 속도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중년층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3년 8월 253만 8천 원에서 2020년 8월 315만 7천 원으로 62만 원, 연평균 3.2% 증가하면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월 임금은 57만 원,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 8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전년 동월 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청년층 임금근로자와 중년층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 격차는 2013년 8월에 비해 2020년 8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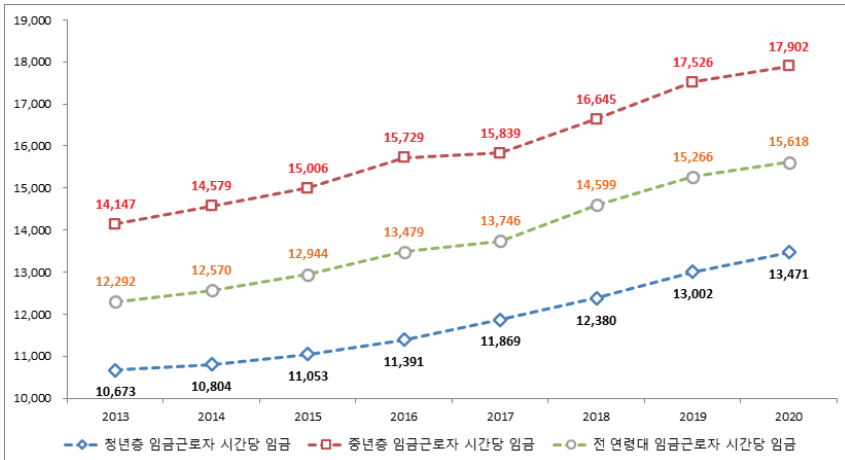
제3절 연령대 간 임금 격차 분석

임금은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개인의 노동시장 참가와 일자리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의 임금 정보를 이용해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월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이용해 추산한 시간당 임금⁵⁾을 이용했다. 시간당 임금은 동일한 한 시간을 일했을 때 해당 일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이를 이용해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를 통제할 분석을 할 수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20년 8월 기준 13,471원이었다. 이는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15,618원의 86.3% 수준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55세 이상 장년층을 제외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5.2% 수준이었다.

[그림 5-3] 청년층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5) 시간당 임금은 월 임금÷(주당 노동시간÷7×365÷12)로 계산.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8월 10,673원에서 2020년 8월 13,471원으로 2,799원, 연평균 3.4% 증가했다.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연평균 3.3% 상승함에 따라 전 연령대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지만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6%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 임금근로자와 다른 연령층 임금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확대되지만 2020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다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의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절에서는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이용해 이를 분석하였다. Oaxaca(1973), Blinder(1973) 이후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은 두 집단 간 임금 격차의 구체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에 이용되었다. Oaxaca(1973)는 두 집단의 임금이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집단별로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식 (1)과 같은 방식으로 분해했다. 이때 \bar{W}_A 와 \bar{W}_B 는 A, B 두 집단의 임금이며 $(\bar{X}_A - \bar{X}_B)\hat{\beta}_A$ 는 변수값의 차이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 $(\hat{\beta}_A - \hat{\beta}_B)\bar{X}_B$ 는 변수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이다.

$$\bar{W}_A - \bar{W}_B = (\bar{X}_A - \bar{X}_B)\hat{\beta}_A + (\hat{\beta}_A - \hat{\beta}_B)\bar{X}_B \quad (1)$$

두 집단 간 임금 격차를 분해하는 방법은 여전히 많은 사회과학 연구에 이용되고 있으며 분해 방법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Cotton, 1988; Fortin, Lemieux and Firpo, 2011; Oaxaca and Ransom, 1999; Reimers, 1983).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연구 중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활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분해 분석했다. Oaxaca(1973), Blinder(1973)의 임금 격차 분해 분석은 조건부 기댓값이 비선형인 경우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Barsky et al., 2002) Fortin, Lemieux and Firpo(2011)는 DiNardo, Fortin and Lemieux(1996)의 재가중치를 활용해 임금 격차를 분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식 (2)는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방법을 이용해 A, B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분해한 결과이다. B집단이 A집단과 독립변수 특성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재가중치를 이용해 도출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임금 분포를 바탕으로 하는 임금 방정식 $\bar{X}_{B|G=A}^C \hat{\beta}_{B|G=A}^C$ 를 포함해 A, B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분해한 것이다.

$$\begin{aligned} \bar{W}_A - \bar{W}_B = & \{ \bar{X}_{A|G=A} (\hat{\beta}_{A|G=A} - \hat{\beta}_{B|G=A}^C) \\ & + (\bar{X}_{A|G=A} - \bar{X}_{B|G=A}^C) \hat{\beta}_{B|G=A}^C \} \\ & + \{ \bar{X}_{A|G=A}^C (\hat{\beta}_{B|G=A}^C - \hat{\beta}_{B|G=B}) \\ & + (\bar{X}_{B|G=A}^C - \bar{X}_{B|G=B}) \hat{\beta}_{B|G=B} \} \end{aligned} \quad (2)$$

Fortin, Lemieux and Firpo(2011)는 두 집단의 변수값 차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bar{X}_{B|G=A} - \bar{X}_{B|G=B}) \hat{\beta}_{B|G=B}$ 를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s)로, 계수값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에 해당하는 $\bar{X}_{A|G=A} (\hat{\beta}_{A|G=A} - \hat{\beta}_{B|G=A}^C)$ 를 임금 구조효과(Wage structure effects)로 구분했다. 또한 반사실적 분포를 바탕으로 한 $\bar{X}_{B|G=A}^C \hat{\beta}_{B|G=A}^C$ 와 실제 B 집단의 임금에 해당하는 $\bar{X}_{B|G=B} \hat{\beta}_{B|G=B}$ 간의 계수값 차이에 따른 $\bar{X}_{B|G=A}^C (\hat{\beta}_{B|G=A}^C - \hat{\beta}_{B|G=B})$ 를 설정오차(Specification error)로, 재가중치를 이용해 만든 $\bar{X}_{B|G=A}^C$ 가 $\bar{X}_{A|G=A}$ 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bar{X}_{A|G=A} - \bar{X}_{B|G=A}^C) \hat{\beta}_{B|G=A}^C$ 를 재가중치오차(Reweighting error)로 분류했다.

재가중치를 이용한 $\bar{X}_{B|G=A}^C \hat{\beta}_{B|G=A}^C$ 의 도출에는 DiNardo, Fortin and Lemieux(1996)의 방법을 활용한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와 달리 Hainmueller(2012)가 제시한 엔트로피 균형(Entropy balancing) 방법을 이용했다. 엔트로피 균형 방법은 통제변수 간 거리행렬을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활용해 두 집단의 특성을 동일하게 만드는 가중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사용해 기준이 되는 집단과 통제변수의 전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개별 변수의 특성이 일치했을 때의 반사실적 분포와 그에 따른 임금 방정식 $\bar{X}_{B|G=A}^C \hat{\beta}_{B|G=A}^C$ 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재가중치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Yun(2005)을 활용해 식별문제를 피하고자 했다.

임금 격차 분해 분석은 두 집단의 평균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Machado and Mata(2005), Melly(2005) 등과 같이 분위별 임금

격차 역시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청년층과 중년층 간 평균임금과 함께 분위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격차 분해 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위별 임금 변화의 분석에는 Firpo, Fortin and Lemieux (2009)의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을 바탕으로 한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임금 격차 분해 방식을 활용했다.

이들의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은 Firpo, Fortin and Lemieux(2009)의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을 바탕으로 한다. Firpo, Fortin and Lemieux(2009)는 Koenker and Basset(1978) 등 기존의 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의 대안으로 재중심 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를 이용하는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제시했다. 식 (3)은 Firpo, Fortin and Lemieux(2009)의 분위별 재중심 영향함수이다.⁶⁾ 이들은 재중심 영향함수로 만든 종속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위별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text{RIF}(y; q_\gamma, F_Y) = q_\gamma + \left(\frac{\gamma - I\{y \leq q_\gamma\}}{f_Y(q_\gamma)} \right) \quad (3)$$

Fortin, Lemieux and Firpo(2011)는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재가중치를 이용한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활용해 A, B 두 집단의 γ 분위별 임금 $W_{\gamma,A}$ 와 $W_{\gamma,B}$ 의 격차를 식 (4)와 같이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begin{aligned} W_{\gamma,A} - W_{\gamma,B} = & \{ X_{\gamma,A|G=A} (\hat{\beta}_{\gamma,A|G=A} - \hat{\beta}_{\gamma,B|G=A}^C) \\ & + (X_{\gamma,A|G=A} - X_{\gamma,B|G=A}^C) \hat{\beta}_{\gamma,B|G=A}^C \} \\ & + \{ X_{\gamma,B|G=A}^C (\hat{\beta}_{\gamma,B|G=A} - \hat{\beta}_{\gamma,B|G=B}) \\ & + (X_{\gamma,B|G=A}^C - X_{\gamma,B|G=B}) \hat{\beta}_{\gamma,B|G=B} \} \end{aligned} \quad (4)$$

6) 식에서 q_γ 는 종속변수(Y)의 γ 분위값이며 $I\{\cdot\}$ 는 종속변수 Y 가 q_γ 보다 작거나 같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함수임. $f_Y(q_\gamma)$ 는 종속변수의 γ 분위값 한계밀도함수 값임. 이 때 재중심 영향함수를 이용해 도출한 RIF의 기댓값 $E(\text{RIF}_Y; q_\gamma, F_Y)$ 는 q_γ 가 됨.

〈표 5-6〉 연령대 간 임금 격차 분석 기초 통계

구 분		2013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8월	
		청년층	중년층	청년층	중년층	청년층	중년층
시간당 임금		10,673	14,147	13,002	17,526	13,471	17,902
성별(남성=1)		0.533	0.599	0.523	0.582	0.523	0.586
가구주 여부(가구주=1)		0.288	0.657	0.289	0.631	0.312	0.640
배우자 유무(유=1)		0.309	0.827	0.216	0.768	0.209	0.76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0.002	0.026	0.003	0.008	0.003	0.008
	중학교 졸업	0.015	0.066	0.020	0.031	0.014	0.027
	고등학교 졸업	0.339	0.432	0.344	0.378	0.348	0.367
	전문대 졸업	0.261	0.128	0.209	0.155	0.212	0.159
	4년제 대학 졸업	0.351	0.284	0.393	0.355	0.388	0.370
	대학원 졸업	0.032	0.064	0.031	0.073	0.035	0.070
근속기간(월)		31.171	88.179	28.215	92.954	28.556	94.0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0.690	0.694	0.706	0.778	0.721	0.801
	임시직	0.252	0.233	0.242	0.171	0.228	0.148
	일용직	0.058	0.073	0.053	0.051	0.051	0.051
근로형태(정규직=1)		0.717	0.725	0.662	0.724	0.666	0.731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0.162	0.174	0.177	0.161	0.167	0.151
	5인 이상 10인 미만	0.182	0.165	0.185	0.162	0.176	0.162
	10인 이상 30인 미만	0.224	0.215	0.216	0.215	0.214	0.218
	30인 이상 100인 미만	0.191	0.216	0.176	0.205	0.187	0.206
	100인 이상 300인 미만	0.099	0.104	0.101	0.105	0.100	0.108
	300인 이상	0.142	0.127	0.145	0.152	0.155	0.156
노조 가입 여부(가입=1)		0.107	0.154	0.107	0.156	0.110	0.156
분석 대상(천 명)		6,050	9,355	5,757	9,839	5,748	9,608

주: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대분류 산업,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 대분류 직업 변수도 분석에 활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청년층과 중년층 간 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은 그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2013년 8월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 8월을 각각 분석했다. 〈표 5-6〉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기초 통계이다. 임금 격차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는 시간당 임금을 로그 전환한 값을 이용했으며 독립변수로는 성별,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근속기간 등 개인 속성 변수와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사업체 규모, 산업, 직종 등 일자리 및 사업체 특성 변수를 활용했다.

<표 5-7> 청년층과 중년층 평균 및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분석

구분	2013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8월					
	평균	10분위	50분위	90분위	평균	10분위	50분위	90분위	평균	10분위	50분위	90분위		
임금격차	0.212 ^{***}	0.098 ^{***}	0.225 ^{***}	0.415 ^{***}	0.250 ^{***}	0.074 ^{***}	0.182 ^{***}	0.441 ^{***}	0.241 ^{***}	0.105 ^{***}	0.238 ^{***}	0.334 ^{***}		
구성효과	0.201 ^{***}	0.031	0.223 ^{***}	0.385 ^{***}	0.200 ^{***}	0.038 ^{**}	0.159 ^{***}	0.449 ^{***}	0.201 ^{***}	0.063 ^{**}	0.190 ^{***}	0.417 ^{***}		
임금구조효과	0.056 ^{***}	-0.049 ^{***}	0.005 ^{***}	0.252 ^{***}	0.048 ^{***}	-0.041 ^{***}	-0.046 ^{***}	0.246 ^{***}	0.054 ^{***}	-0.031 ^{***}	-0.002	0.158 ^{***}		
구성효과	성별	0.008 ^{***}	0.005 ^{***}	0.011 ^{***}	0.010 ^{***}	0.004 ^{***}	0.001	0.004 ^{***}	0.006 ^{***}	0.004 ^{***}	0.001	0.005 ^{***}	0.008 ^{***}	
	가구주 여부	0.031 ^{***}	0.019 ^{**}	0.030 ^{***}	0.033 ^{***}	0.015 ^{***}	0.004	0.013 ^{***}	0.034 ^{***}	0.015 ^{***}	0.011 ^{**}	0.015 ^{***}	0.031 ^{***}	
	배우자 유무	0.051 ^{***}	0.001	0.052	0.091 ^{***}	0.040 ^{***}	0.009	0.024 ^{**}	0.076 ^{***}	0.053 ^{***}	0.012	0.028 ^{***}	0.095 ^{***}	
	교육수준	-0.015 ^{***}	-0.035 ^{***}	-0.016	0.008	0.001	-0.003	-0.004 ^{**}	0.014 ^{**}	0.002	-0.005 ^{**}	0.000	0.013 ^{**}	
	근속기간	0.130 ^{***}	0.033 ^{**}	0.143	0.263 ^{***}	0.108 ^{***}	-0.007	0.088 ^{***}	0.303 ^{***}	0.097 ^{***}	-0.008	0.116 ^{***}	0.269 ^{***}	
	종사상 지위	-0.001	-0.009 [*]	0.002	0.001 [*]	0.013 ^{***}	0.019 ^{***}	0.012 ^{***}	-0.004	0.015 ^{***}	0.035 ^{***}	0.012 ^{***}	-0.004	
	근로유형	0.000	0.001	0.000	0.000	0.001	0.001	0.002 ^{**}	-0.002	0.001	0.003 ^{**}	0.001	-0.003	
	사업체 규모	-0.001	-0.002	0.000	-0.004 [*]	0.004 ^{**}	0.003 ^{**}	0.004 ^{***}	0.003	0.003 ^{**}	0.002 ^{**}	0.004 ^{***}	0.002	
	산업	0.012 ^{**}	0.022 ^{***}	0.011 ^{***}	0.010 [*]	0.009 ^{**}	0.006 [*]	0.011 ^{***}	0.006	0.011 ^{***}	0.009 ^{**}	0.007 ^{***}	0.021 ^{**}	
	직종	-0.017 ^{***}	-0.002	-0.016 ^{***}	-0.034 ^{***}	0.001	0.006 [*]	0.000	0.001	-0.005 [*]	0.003	0.000	-0.023 ^{***}	
	노조가입 여부	0.004 ^{***}	-0.002	0.006 ^{**}	0.006 ^{**}	0.004 ^{***}	-0.001	0.003 ^{***}	0.012 ^{***}	0.003 ^{**}	-0.001	0.002 ^{**}	0.009 ^{**}	
	임금구조효과	성별	0.088 ^{***}	0.001	0.190 ^{***}	0.027	0.069 ^{**}	0.037 ^{**}	0.097 ^{***}	0.004	0.083 ^{***}	0.004	0.107 ^{***}	0.019
		가구주 여부	0.021 ^{***}	-0.006	0.039 ^{**}	0.004	-0.010	-0.051 ^{***}	0.046 ^{***}	-0.084 ^{***}	-0.014	-0.113 ^{***}	-0.015	0.048 ^{***}
배우자 유무		0.015	-0.059 ^{**}	-0.005	0.082 ^{***}	-0.001	-0.125 ^{***}	0.027 ^{**}	0.095 ^{***}	-0.036 ^{***}	-0.106 ^{***}	-0.015	0.007	
교육수준		-0.014 [*]	-0.076 ^{***}	-0.002	0.019	0.036 ^{***}	0.104 ^{***}	0.018	-0.035 ^{**}	0.016	-0.093 ^{***}	0.025	-0.044 ^{**}	
근속기간		0.000	-0.144 ^{***}	0.057 ^{***}	0.029	-0.056 ^{***}	-0.225 ^{***}	-0.062 ^{***}	0.073 ^{***}	0.014	-0.099 ^{***}	-0.008	0.037 ^{**}	
종사상 지위		-0.017 [*]	0.002	0.072 ^{***}	0.012	0.042 ^{**}	-0.012	0.086 ^{***}	-0.004	0.018	0.043	0.044 ^{***}	-0.044 ^{***}	
근로유형		0.003	-0.070 ^{***}	0.055 ^{***}	0.033	-0.015	0.065 ^{***}	-0.064 ^{***}	-0.047 ^{**}	-0.016	-0.040	-0.002	0.016	
사업체 규모		0.003 ^{**}	0.000	0.000	0.019 ^{***}	0.000	-0.005 [*]	0.001	0.003	0.000	-0.005	-0.002	0.003	
산업		-0.037 ^{***}	0.005	-0.055 ^{***}	-0.022	0.022	0.022	-0.022	-0.033	0.013	-0.001	0.018	0.040 [*]	
직종		-0.028 ^{**}	0.066 ^{**}	-0.057 ^{***}	-0.090 ^{***}	0.000	0.032	0.013	-0.121 ^{***}	0.001	0.179 ^{***}	-0.077 ^{***}	-0.032	
노조가입 여부		-0.007 ^{***}	0.000	-0.001	-0.022 ^{***}	0.001	0.006	0.005	-0.013 ^{**}	-0.010 ^{**}	-0.003	0.008 ^{**}	-0.030 ^{***}	
상수		0.029	0.233 ^{***}	-0.287 ^{***}	0.161 ^{**}	-0.040	0.111 ^{**}	-0.191 ^{***}	0.410 ^{***}	-0.016	0.203 ^{***}	-0.085 ^{**}	0.137 ^{***}	
설정오차		-0.046 ^{***}	0.116 ^{***}	-0.003	-0.222 ^{***}	0.001	0.077 ^{***}	0.069 ^{***}	-0.254 ^{***}	-0.013	0.074 ^{***}	0.051 ^{***}	-0.242 ^{***}	
재가중치오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청년층과 중년층 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에 대한 분해 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다. 우선 평균임금 격차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 8월 중년층의 시간당 임금(로그 시간당 임금)은 청년층보다 0.24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정오차와 재가중치오차를 구분하고 임금 격차를 분석했

을 때 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는 구성효과에 따른 임금 격차는 0.201이었다. 성별,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산업, 노조 가입 등의 변수값 차이에 기인한 구성효과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중년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이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특성이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또한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산업 등 청년층 일자리 특성 역시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상대적으로 노조가입률이 낮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특성 역시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성효과와 함께 임금 구조효과 역시 청년층과 중년층 간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임금 구조효과에 따른 임금 격차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임금근로자가 다른 임금을 받는 노동시장 내 임금 구조로 발생한 임금 차이에 해당한다. 숙련, 교육 수준 등이 동일한 근로자가 다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임금 격차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성별, 교육 수준, 근속기간 등 인적 속성이 동일하고 종사상 지위, 근로유형, 사업체 규모, 산업, 직업 등 일자리 및 사업체 특성이 동일한 청년층 임금근로자와 중년층 임금근로자 중 중년층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청년층과 중년층 간 평균임금 격차의 변화 양상을 보면 2013년 8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8월까지 청년층과 중년층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었다. 하지만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분석 방법을 이용해 설정오차와 재가중치오차를 구분했을 때 구성효과와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는 모두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구조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연령 외 개인적 속성과 일자리, 사업체의 특성이 동일한 청년층과 중년층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 8월 임금 구조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2019년 8월과 2020년 8월 청년층과 중년층 간 임금 격차 분해 분석에서 구성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는 0.200과 0.201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는 0.048에서 0.054로 다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일 수 있다는 점

에서 향후 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과 중년층 간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 8월 기준 10분위 저임금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성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 격차를 증가시켰다.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임금 격차에는 종사상 지위, 근로유형, 사업체 규모, 산업 등 일자리 및 사업체 특성 변수의 차이가 청년층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구조효과는 임금 격차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특성을 가졌을 때 저임금 일자리에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과 중년층 50분위 임금 격차 분석에서도 중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분위 중위임금층에서의 임금 격차는 성별,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산업, 노조가입 여부 등의 특성 차이의 영향을 받았다. 90분위 임금 격차는 다른 분위에 비해 컸다. 청년층 임금 90분위의 임금은 중년층 임금 90분위의 임금보다 0.334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과 중년층 90분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구성효과와 임금 구조효과가 모두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교육 수준, 근속기간, 산업, 노조가입 여부 등의 특성 차이는 청년층과 중년층 임금 90분위 사이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도 0.158로 다른 분위와 비교해 청년층과 중년층의 임금 격차를 크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임금 격차의 변화 양상을 보면 10분위 임금 격차는 2013년 8월 0.098에서 2019년 8월 0.074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 8월 0.105로 증가했다.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임금 격차에서 임금 구조효과는 임금 격차를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했는데 2013년 8월에 비해 2019년 8월, 2020년 8월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임금 격차를 줄였던 임금 구조효과가 축소되고 임금 격차를 늘리는 구성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저임금층의 임금 격차는 이전과 비교해 더욱 확대되었다.

청년층과 중년층 50분위 중위임금층의 임금 격차는 2013년 8월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도 축소되었고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근속기간 등의 변수로 설명되는 구성효과가 확대되고 2019년 8월에는 중위임금층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던 임금 구조효과가 축소되면서 청년층과 중년층 50분위 임금 격차는 0.182에서 0.238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과 중년층 90분위 임금 격차는 구성효과로 설명되는 격차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구성효과에 따른 임금 격차의 축소로 감소했다. 그 결과 고임금층에서의 임금 구조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 간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평균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에서는 중년층 대비 청년층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 격차에서는 구성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불평등한 임금 격차 역시 존재했다.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는 2013년 8월 대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 줄어들었지만 2020년 8월 다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청년층과 중년층 사이 지속되고 있는 임금 격차,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가 남아있었다는 것 역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50분위, 90분위 임금 격차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와 임금 구조효과로 구분하면 구성효과와 경우 대체로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며 임금 구조효과와 경우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와 50분위의 임금 격차를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임금 90분위 분석에서는 임금 구조효과 역시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도 관측되는 청년층 임금근로 일자리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임금층에서 관측되는 임금 구조효과로 발생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청년층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임금 격차 분석

근로형태별로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근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 또한 낮다(금재호·최재문, 2021; 김유선, 2021). 이는 청년층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 574만 8천 명 중 정규직이 382만 8천 명으로 66.6%이며 비정규직은 192만 명으로 33.4%이었다. 그중 청년층 정규직의 월 임금은 265만 3천 원이었으며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159만 5천 원으로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60.1% 수준이었다.

<표 5-8> 근로형태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임금(각 연도 8월)

(단위: 시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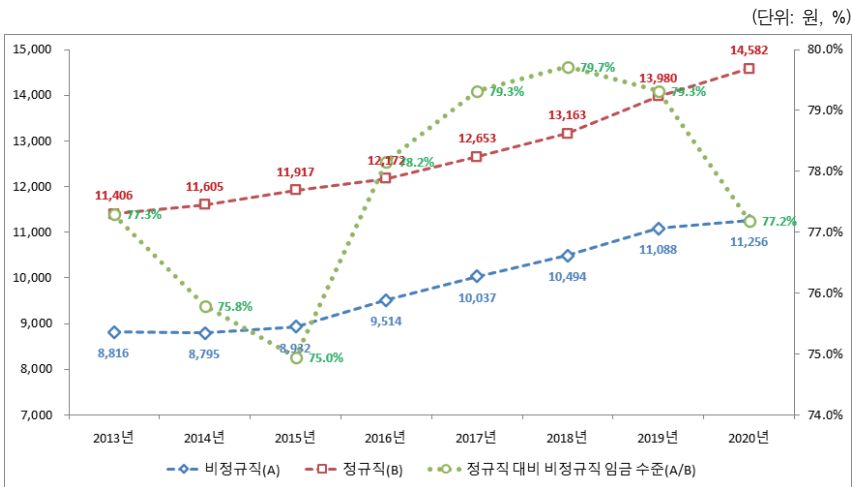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당 근로 시간	전체	41.3	41.0	41.1	40.7	40.2	40.0	39.4	38.8
	정규직	43.6	43.4	43.7	43.5	43.4	43.0	42.8	42.4
	비정규직	35.5	34.9	34.8	33.8	32.8	32.8	32.6	31.7
	- 한시직	39.7	39.4	40.0	38.6	38.6	37.3	37.0	36.7
	- 시간제	21.4	21.5	20.9	20.8	20.4	20.4	19.9	19.2
	- 비전형	39.6	38.8	38.4	39.1	38.8	38.1	38.1	37.0
월임금	전체	189.6	191.0	196.9	200.5	207.4	215.7	223.2	229.9
	정규직	210.3	213.2	221.2	225.1	233.5	242.0	256.3	265.3
	비정규직	137.3	135.2	137.3	141.4	146.6	152.2	158.3	159.5
	- 한시직	162.8	161.0	166.0	169.5	180.8	182.7	182.0	193.1
	- 시간제	61.5	64.5	63.6	67.8	73.5	80.0	85.8	80.2
	- 비전형	149.7	151.6	147.3	167.8	184.6	172.4	185.8	18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직의 월 임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 임금은 80만 2천 원 수준이었다. 비전형 근로자의 월 임금은 185만 9천 원이었으며 한시직의 월 임금은 193만 1천 원으로 시간제보다는 높았지만 정규직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20년 8월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42.4시간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31.7시간으로 40시간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9.2시간이었다. 한시직과 비전형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각각 36.7시간, 37.0시간으로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길었지만 모두 정규직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림 5-4] 청년층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근로시간을 통제해 동일한 한 시간 노동의 보상인 시간당 임금을 추산해 보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청년층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4,582원이었으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1,256원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7.2% 수준이었다. 근로시간을 통제함에 따라 월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9,881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비전형이 11,582원, 한시직이 11,971원이었다.

2020년 8월의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2013년

8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까지로 보면 2013년 8월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다.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8년 77.3% 수준에서 2015년 8월 75.0%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이후 2018년 8월까지 격차가 줄어들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79.7%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8월에는 79.3%로 격차가 조금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 8월에는 77.2%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한 시간을 일했을 때의 보상인 시간당 임금 격차에서도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임금 격차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금재호·최재문, 2021; 김윤환·김기승, 2018; 남재량, 2007; 박기성·김용민, 2007; 안주엽, 2001; 이인재·김태기, 2009).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에게서도 관측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의 수준과 그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금재호·최재문(2021)과 같이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이용했는데 앞서 3절에서 설명한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활용했다. 3절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격차를 분석했으며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을 활용한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이용해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10분위, 50분위, 90분위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기초 통계는 <표 5-9>와 같다. 임금 격차의 변화를 고려해 2013년 8월과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8월의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분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증가했던 2020년 8월의 임금 격차도 분석했다. 종속변수로는 시간당 임금을 로그로 전환한 값을 이용했으며 독립변수로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근속기간 등 개인 속성 변수, 종사상 지위, 사

업체 규모, 노조가입 여부, 산업, 직종 등 일자리 및 사업체 속성 변수를 이용했다.

<표 5-9> 근로형태별 임금 격차 분석 기초 통계

구 분	2013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8월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시간당 임금	8,816	11,406	11,088	13,980	11,256	14,582	
연령	26.232	28.661	25.942	28.563	25.963	28.624	
성별(남성=1)	0.472	0.557	0.479	0.546	0.475	0.547	
가구주 여부(가구주=1)	0.202	0.323	0.231	0.319	0.250	0.343	
배우자 유무(유=1)	0.219	0.345	0.159	0.245	0.154	0.237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0.003	0.002	0.001	0.003	0.004	0.003
	중학교 졸업	0.026	0.011	0.034	0.013	0.025	0.009
	고등학교 졸업	0.484	0.282	0.510	0.260	0.521	0.261
	전문대 졸업	0.182	0.292	0.161	0.233	0.164	0.236
	4년제 대학 졸업	0.272	0.382	0.265	0.458	0.257	0.453
	대학원 졸업	0.033	0.031	0.028	0.033	0.030	0.038
근속기간(월)	17.002	36.765	14.638	35.153	14.008	35.853	
종사상 지위	상용직	0.398	0.805	0.350	0.888	0.371	0.896
	임시직	0.427	0.183	0.509	0.105	0.486	0.099
	일용직	0.175	0.012	0.142	0.007	0.143	0.005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0.209	0.144	0.275	0.127	0.277	0.112
	5인 이상 10인 미만	0.202	0.174	0.232	0.161	0.207	0.161
	10인 이상 30인 미만	0.228	0.223	0.210	0.219	0.215	0.214
	30인 이상 100인 미만	0.189	0.192	0.134	0.198	0.142	0.209
	100인 이상 300인 미만	0.076	0.108	0.070	0.118	0.066	0.118
300인 이상	0.096	0.160	0.079	0.178	0.093	0.186	
노조 가입 여부(가입=1)	0.033	0.136	0.020	0.151	0.026	0.152	
분석 대상(천명)	1,713	4,337	2,015	3,942	1,920	3,828	

주: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대분류 산업,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 대분류 직업 변수도 분석에 활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분석 결과는 <표 5-10>과 같다. 2020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임금(로그 시간당 임금) 격차는 0.24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분석 방법을 이용해 설정오차와 재중심오차

를 통제했을 때 구성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는 0.201이었다. 연령,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직종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0> 근로형태별 평균 및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분석

구분	2013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8월				
	평균	10분위	50분위	90분위	평균	10분위	50분위	90분위	평균	10분위	50분위	90분위	
임금격차	0.313 ^{***}	0.382 ^{***}	0.326 ^{***}	0.184 ^{***}	0.277 ^{***}	0.356 ^{***}	0.251 ^{***}	0.259 ^{***}	0.303 ^{***}	0.418 ^{***}	0.243 ^{***}	0.210 ^{***}	
구성효과	0.285 ^{***}	0.180 ^{***}	0.343 ^{***}	0.318 ^{***}	0.219 ^{***}	0.274 ^{***}	0.251 ^{***}	0.279 ^{***}	0.267 ^{***}	0.273 ^{***}	0.300 ^{***}	0.347 ^{***}	
임금구조효과	0.028 ^{***}	0.050 ^{***}	0.078 ^{***}	0.022 ^{***}	0.041 ^{***}	0.047 ^{***}	0.066 ^{***}	0.003 ^{***}	0.022 ^{***}	0.021 ^{***}	0.014 ^{***}	-0.074 ^{***}	
구성효과	연령	0.029 ^{***}	0.021 ^{***}	0.055 ^{***}	-0.007 ^{***}	0.017 ^{***}	0.010 ^{***}	0.019 ^{***}	0.027 ^{***}	0.018 ^{***}	0.007 ^{***}	0.014 ^{***}	0.040 ^{***}
	성별	0.006 ^{***}	0.006 ^{***}	0.004 ^{***}	0.015 ^{***}	0.003 ^{***}	0.000 ^{***}	0.002 ^{***}	0.008 ^{***}	0.002 ^{***}	-0.001 ^{***}	0.003 ^{***}	0.008 ^{***}
	가구주여부	0.016 ^{***}	0.000 ^{***}	0.011 ^{***}	0.028 ^{***}	0.003 ^{***}	0.005 ^{***}	0.000 ^{***}	0.008 ^{***}	0.004 ^{***}	0.007 ^{***}	0.002 ^{***}	0.009 ^{***}
	배우자유무	0.008 ^{***}	0.000 ^{***}	0.003 ^{***}	0.035 ^{***}	0.008 ^{***}	0.012 ^{***}	0.002 ^{***}	0.016 ^{***}	0.014 ^{***}	0.015 ^{***}	0.007 ^{***}	0.020 ^{***}
	교육수준	0.019 ^{***}	0.015 ^{***}	0.025 ^{***}	0.016 ^{***}	0.019 ^{***}	0.012 ^{***}	0.019 ^{***}	0.040 ^{***}	0.027 ^{***}	0.025 ^{***}	0.027 ^{***}	0.038 ^{***}
	근속기간	0.040 ^{***}	0.005 ^{***}	0.028 ^{***}	0.099 ^{***}	0.009 ^{***}	-0.043 ^{***}	0.008 ^{***}	0.088 ^{***}	0.012 ^{***}	-0.058 ^{***}	0.009 ^{***}	0.133 ^{***}
	종사상 지위	0.104 ^{***}	0.119 ^{***}	0.164 ^{***}	0.014 ^{***}	0.092 ^{***}	0.213 ^{***}	0.115 ^{***}	-0.024 ^{***}	0.105 ^{***}	0.218 ^{***}	0.142 ^{***}	-0.029 ^{***}
	사업체 규모	0.015 ^{***}	0.005 ^{***}	0.014 ^{***}	0.019 ^{***}	0.021 ^{***}	0.024 ^{***}	0.020 ^{***}	0.023 ^{***}	0.032 ^{***}	0.033 ^{***}	0.023 ^{***}	0.054 ^{***}
	산업	0.006 ^{***}	-0.012 ^{***}	-0.004 ^{***}	0.017 ^{***}	-0.014 ^{***}	-0.001 ^{***}	0.007 ^{***}	0.012 ^{***}	0.002 ^{***}	0.003 ^{***}	0.022 ^{***}	-0.012 ^{***}
	직종	0.031 ^{***}	0.017 ^{***}	0.044 ^{***}	0.013 ^{***}	0.041 ^{***}	0.029 ^{***}	0.043 ^{***}	0.038 ^{***}	0.049 ^{***}	0.029 ^{***}	0.055 ^{***}	0.066 ^{***}
노조가입여부	0.011 ^{***}	0.006 ^{***}	0.000 ^{***}	0.068 ^{***}	0.019 ^{***}	0.013 ^{***}	0.015 ^{***}	0.042 ^{***}	0.003 ^{***}	-0.006 ^{***}	-0.002 ^{***}	0.020 ^{***}	
임금구조효과	연령	0.301 ^{***}	-0.162 ^{***}	1.528 ^{***}	0.988 ^{***}	0.772 ^{***}	0.126 ^{***}	0.488 ^{***}	1.699 ^{***}	-0.728 ^{***}	0.324 ^{***}	-0.506 ^{***}	-2.858 ^{***}
	성별	0.029 ^{***}	0.048 ^{***}	0.039 ^{***}	0.042 ^{***}	0.007 ^{***}	-0.019 ^{***}	0.043 ^{***}	-0.058 ^{***}	0.035 ^{***}	0.026 ^{***}	0.041 ^{***}	0.054 ^{***}
	가구주여부	-0.024 ^{***}	-0.030 ^{***}	-0.011 ^{***}	-0.075 ^{***}	-0.017 ^{***}	-0.006 ^{***}	-0.012 ^{***}	0.002 ^{***}	0.007 ^{***}	0.004 ^{***}	0.011 ^{***}	0.039 ^{***}
	배우자유무	-0.017 ^{***}	0.002 ^{***}	-0.017 ^{***}	-0.046 ^{***}	0.002 ^{***}	-0.014 ^{***}	0.014 ^{***}	0.037 ^{***}	-0.011 ^{***}	-0.014 ^{***}	-0.011 ^{***}	-0.025 ^{***}
	교육수준	0.052 ^{***}	0.063 ^{***}	0.021 ^{***}	0.093 ^{***}	0.046 ^{***}	0.103 ^{***}	0.021 ^{***}	0.016 ^{***}	-0.002 ^{***}	-0.029 ^{***}	0.016 ^{***}	-0.031 ^{***}
	근속기간	0.000 ^{***}	0.006 ^{***}	0.008 ^{***}	-0.017 ^{***}	0.029 ^{***}	0.014 ^{***}	0.021 ^{***}	0.075 ^{***}	0.011 ^{***}	0.029 ^{***}	-0.003 ^{***}	-0.046 ^{***}
	종사상 지위	0.019 ^{***}	0.051 ^{***}	0.068 ^{***}	0.049 ^{***}	0.011 ^{***}	-0.027 ^{***}	-0.039 ^{***}	-0.026 ^{***}	0.108 ^{***}	0.051 ^{***}	0.069 ^{***}	0.096 ^{***}
	사업체 규모	-0.001 ^{***}	-0.001 ^{***}	-0.005 ^{***}	0.017 ^{***}	0.002 ^{***}	-0.007 ^{***}	0.005 ^{***}	0.006 ^{***}	0.002 ^{***}	-0.003 ^{***}	0.000 ^{***}	0.008 ^{***}
	산업	-0.032 ^{***}	-0.034 ^{***}	-0.011 ^{***}	-0.023 ^{***}	-0.003 ^{***}	-0.042 ^{***}	0.015 ^{***}	0.082 ^{***}	0.013 ^{***}	-0.044 ^{***}	-0.021 ^{***}	0.146 ^{***}
	직종	-0.031 ^{***}	-0.278 ^{***}	-0.070 ^{***}	0.081 ^{***}	-0.053 ^{***}	-0.001 ^{***}	-0.081 ^{***}	0.055 ^{***}	-0.066 ^{***}	0.020 ^{***}	-0.068 ^{***}	-0.206 ^{***}
노조가입여부	0.002 ^{***}	0.006 ^{***}	-0.001 ^{***}	0.001 ^{***}	-0.017 ^{***}	-0.006 ^{***}	0.002 ^{***}	-0.082 ^{***}	0.001 ^{***}	-0.004 ^{***}	0.001 ^{***}	0.018 ^{***}	
상수	-0.270 ^{***}	0.379 ^{***}	-1.471 ^{***}	-1.088 ^{***}	-0.738 ^{***}	-0.075 ^{***}	-0.409 ^{***}	-1.803 ^{***}	0.652 ^{***}	-0.334 ^{***}	0.485 ^{***}	2.732 ^{***}	
설정오차	0.000 ^{***}	0.152 ^{***}	-0.096 ^{***}	-0.155 ^{***}	0.016 ^{***}	0.036 ^{***}	-0.096 ^{***}	-0.023 ^{***}	0.013 ^{***}	0.123 ^{***}	-0.071 ^{***}	-0.063 ^{***}	
제가중치오차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령층의 비중이 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의 비중이 크다는 청년층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또한 청년층 정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용직의 비중이 크며 대규모 사업체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다는 것도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종 구성의 차이도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청년층 정규직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33.3%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사무직이 30.0%이며 단순노무직은 5.1%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1.6% 수준이었으며 서비스 종사자, 단순 노무직,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20.4%, 18.4%, 1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성효과와 함께 변수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구조효과 역시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 구조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는 0.022였다. 이는 동일한 개인 속성과 일자리 및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가 다른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년층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임금 구조에 직면해 있을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과 비정규직 간 평균임금 격차는 2013년 8월 대비 2019년 8월 줄어들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의 축소는 변수값으로 설명되는 구성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임금 구조효과로 설명되는 격차는 커졌지만 구성효과로 설명되는 격차는 조금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는데 이 역시 구성효과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 청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을 수도 있다.

분위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10분위 저임금층에서는 변수값의 차이로 설명되는 구성효과만 임금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상 지위,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 차이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0분위 중위임금층 역시 구성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 개인 속성 변수와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산업, 직종 등 일자리 및 사업체 특성의 차이가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90분위 고임금층에서도 구성효과는 임금 격차를 증가시켰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 개인 속성과 근속기간, 사업체 규모, 직종 등 일자리 특성의 차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층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임금 구조효과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위별 임금 격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분위별 임금 격차에서 변수값으로 설명되는 구성효과는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분위 간 임금 격차와 90분위 고임금층 간 임금 격차에서는 구성효과가 2013년 8월에 비해 2019년 8월과 2020년 8월 증가했으며 50분위 간 임금 격차에서는 2013년 8월에 비해 2019년 8월과 2020년 8월 그 수준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임금 격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임금 구조효과가 분위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 8월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와 50분위 임금 격차에서 임금 구조효과의 영향은 2013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줄어들었으며 90분위 고임금층에서의 임금 격차에서는 2020년 8월 들어 오히려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절 소결

이상에서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2절에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574만 8천 명으로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201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을 보면 상용직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작고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등에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이 382만 8천 명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66.6%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은 201만 5천 명이었으며 한시직이 116만 명, 시간제가 89만 6천 명, 비전형 근로자가 28만 6천 명이었다. 2013년 8월과 비교했을 때 2020년 8월 정규직은 감소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증가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더 커졌다. 2020

년 기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8.8시간이었으며 월 임금은 229만 9천 원이었다.

3절에서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임금과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사이의 임금 격차를 분해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는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방법을 활용했으며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년층 대비 청년층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 격차에서는 구성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임금 구조효과로 인한 불평등한 임금 격차 역시 존재했다. 임금 구조효과에 따른 임금 격차는 2013년 8월 대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 줄어들었지만 2020년 8월 다시 증가했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50분위, 90분위 임금 격차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와 경우 대체로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며 임금 구조효과와 경우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와 50분위의 임금 격차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임금 90분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금 구조효과 역시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작용을 했다.

4절에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 수준도 정규직보다 낮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에서도 동일한 한 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은 14,582원, 비정규직은 11,256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77.2%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3절과 동일한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임금 격차 분해 방법을 활용해 분석했을 때 청년층 내에서도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에서는 구성효과와 함께 변수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구조효과 역시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구성효과는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임금 구조효과는 10분위, 50분위 임금 격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90분위 임금 격차는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관측된 청년층과 중년층 사이 지속되고 있는 임금 격차, 임금 구조효과로 인한 임금 격차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임금 구조효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격차 역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비정규직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중 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더 많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규직 인력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제6장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분석

제1절 들어가는 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12만 명)가 은퇴를 시작(당시 퇴직연령은 주로 55세) 하던 2010년, ‘2018년까지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더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 하여 정년연장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3년 5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고령자고용법(「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 전 ‘법정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는 이른바 ‘세대 간 일자리전쟁’ 즉, 청년층-고령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개정 후에는 이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한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향후 급속히 줄어들고, 청년층과 중년층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장년층 비중은 급속히 늘어나, 경제활동인구가 2028년을 전후하여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머잖아 노동공급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원활한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의 지원을 통한 청년층 노동공급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3년에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10월)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의 주요 측면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세대와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을 직종분리, 직종별 비교우위, 직종격리지수 등을 통하여 분석한 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연령별(15~35세) 재학 비중, 재학 중 취업 비중, 노동시장 진입(비재학 취업) 비중, 그리고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과 함께 중요한 생애사건인 혼인과 관련하여 연령별(15~40세) 미혼 비중을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다양한 두 집단 간 직종분리, 즉 직종별 비교우위를 직종 대분류 및 중분류 수준에서 살펴보는 한편 집단별 2020년과 2013년 사이의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두 집단 간 직종분리의 정도를 함축하는 직종격리지수의 개념을 소개한 후 2020년 다양한 두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를 비교하는 한편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격리지수 추이를 살펴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로부터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한다.

제2절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

본 절에서는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재학 비중, 재학 중 일자리 병행 비중, 그리고 비재학 중 취업 비중으로 표현한 노동시장 진입의 비중 측면에서 살펴본 후,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겪는 시기에 중요 생애사건 중 하나인 혼인과 관련하여 연령별(15~40세) 미혼 비중을 분석한다.

1. 재학 비중

청년층의 연령별 재학 비중⁷⁾은 [그림 6-1]에서 보듯 2013년에서 202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5~17세 청년층은 거의 대부분 재학(고등학교) 중이며, 18세부터 노동시장 이행(졸업 또는 중퇴)이 시작되는데, 19세에 재학 비중이 75%로 하락(20세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21세(전문대 졸업에 해당)에 69.4%에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3세에 50% 미만에 이르고, 25세에 25%에 이르고 있다. 27세에 이르면 10% 미만에 이르러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으며, 29~31세에는 4%를 전후한 수준이다(그 이후 35세까지 2% 정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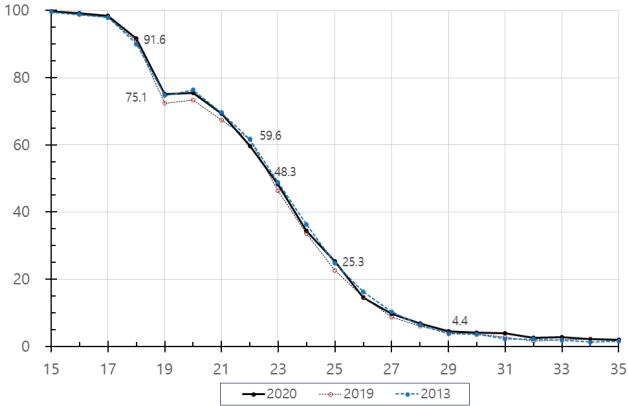
[그림 6-1]의 연령별 재학 비중에서 보듯 성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5~17세 청년층 대부분이 재학 중이라는 점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 다음으로 18~21세 연령층에서는 여성 청년층의 재학 비중이 남성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20세에서는 차이가 7%p(78.1%와 70.9%)에 이르고 있다.

반면 22~28세 연령층에서는 남성 청년층의 재학 비중이 여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차이는 23세와 24세에 25%p(60.7%와 36.0%)와 28%p(48.3%와 19.9%)까지 늘어나다가 25세에 20%p(34.3%와 14.4%), 26세에 12%p(20.2%와 8.2%)로 줄어들고, 다시 27세와 28세에는 6%p(12.5%와 6.7%)와 5%p(8.9%와 4.3%)까지 줄어들었다가 29세 이후에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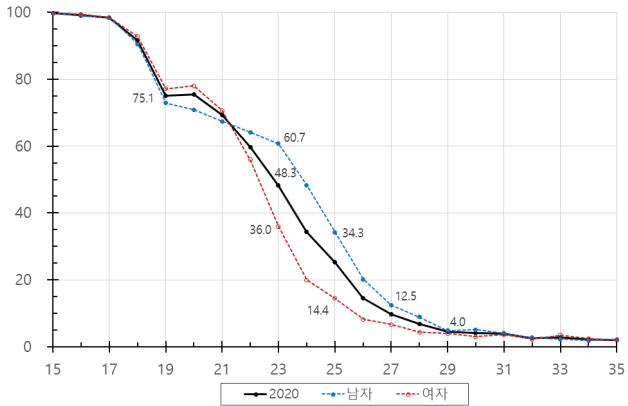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남성 24~28세 청년층의 재학 비중이 각각 2세 적은 여성 청년층의 재학 비중과 유사한 수준(예를 들면 남성 25세에 34.3%, 여성 23세에 36%)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의 상당 부분이 병역의무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7) '재학'은 각급 학교의 재학, 휴학, 이수 중을 포함하며, 졸업 또는 중퇴는 제외함.

[그림 6-1] 연령별 재학 비중
(가) 2013, 2019, 2020년



(나) 성별(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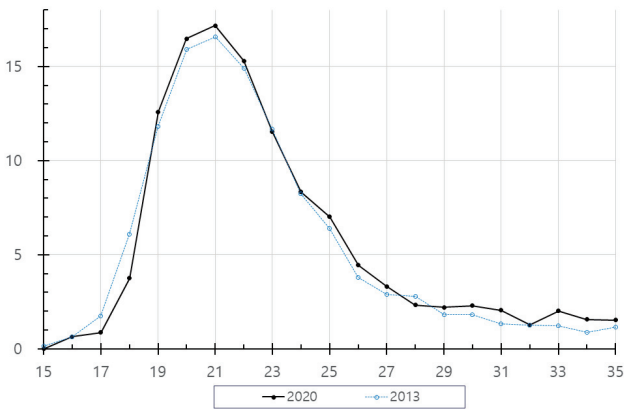
2. 재학 중 취업

[그림 6-2]는 인구 대비 재학-취업 병행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20년의 병행 비중을 2013년과 비교하면, 15~18세, 특히 18세에서 줄어든 반면에 19세 이상에서는 28세를 제외하면 줄어들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령별 병행 비중에는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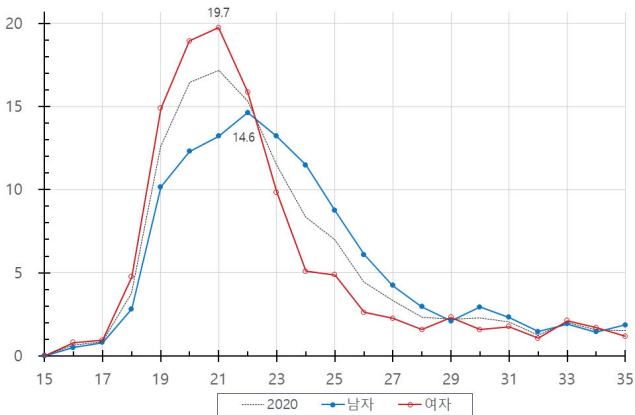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병행 비중을 성별로 보면, 먼저 15~17세에서는 1% 미만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18~22세에서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23~28세에서는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6-2] 재학-취업 병행 비중
(가) 2013년과 2020년



(나) 성별(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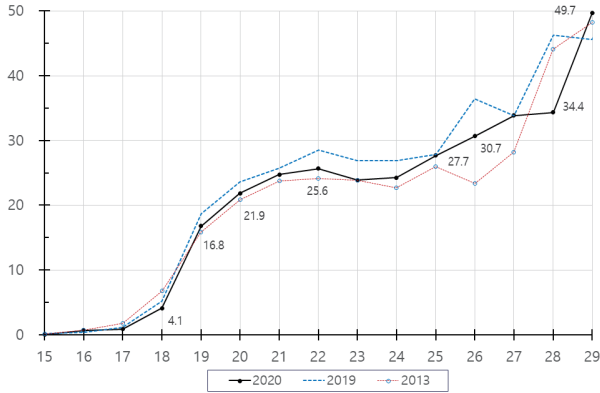
여성의 병행 비중은 18세에는 5%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19세에 15%에 이르고 21세에 20% 가까운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24세가 되면 5%까지 급속하게 하락한다. 21세에서 24세까지의 급속한 하락은 재학 비중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한편 남성의 병행 비중은 18세에는 3%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19세에 10%에 이르고 22세에 15% 가까운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한 뒤에 26, 7세에 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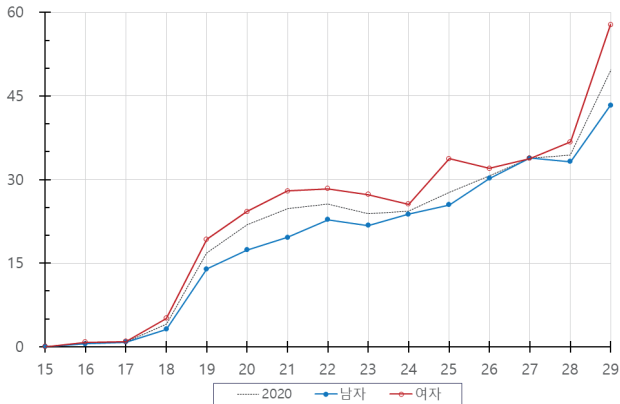
[그림 6-3]은 재학 청년 인구 대비 재학 중 취업 청년의 비중(재학 중 취업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2013년과 2019년 및 2020년을 비교하면, 재학 비중이 25%를 상회하는 25세까지, 재학 중 취업 비중에서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2020년의 재학 중 취업 비중을 보면, 18세에는 4%에 불과하지만 19세에 17%로 급등하고, 21세에 24%에 도달한 후 25세까지 25~28% 수준을 보인다. 26세 이상에서는 재학 비중이 작아 변동폭이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인다.

연령별 재학 중 취업 비중을 성별로 보면, [그림 6-3]에서 보듯 18세 이후 대부분 연령에서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29세를 제외하면 21세와 25세에 차이가 8%p로 가장 크다. 여성의 재학 중 취업 비중은 18세에서 24세까지 역U자 형태(정점은 22세에서 28.4%)를 취하는 반면 남성에서는 19세에서 25세까지(그리고 28세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6-3] 재학 중 취업 비중
(가) 2013, 2019, 2020년



(나) 성별(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3. 노동시장 진입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이행과정을 졸업(비재학) 청년 대비 취업 청년의 비중(취업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자.⁸⁾ [그림

8)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가조사(매년 5월 조사) 자료에서는 졸업 시점과 졸업 이후 첫 일 자리 취업 시점, 첫 일자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6-4]는 2013년과 2020년의 연령별 취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20년 연령별 취업 비중을 보면, 18세에 30% 미만에서 21세 61%로 급등한 후 29세 76%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24세 66%, 27세 72%)를 보이며, 30대에는 73%에서 78%(32세) 사이에서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 취업 비중을 2013년과 비교하면, 재학 비중이 100%에 가까운 15~17세를 제외하면, 18~28세에서는 취업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20세에 10%p, 23세와 24세 및 18세에 8.0~8.8%p 하락)한 반면 29~35세에서는 취업 비중이 상승(32세에 5%p)한 것으로 나타난다.⁹⁾

마지막으로 연령별 취업 비중을 성별로 비교하면, 21~26세 연령에서는 성별 취업 비중이 61%에서 71%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이후 남성의 취업 비중은 34세 89%까지 상승하는 반면 여성의 취업 비중은 28세 72%를 정점으로 35세 59%까지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연령이 많아질수록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¹⁰⁾ 한편 19세와 20세에는 여성의 취업 비중이 각각 34%와 49%로 남성(29%와 3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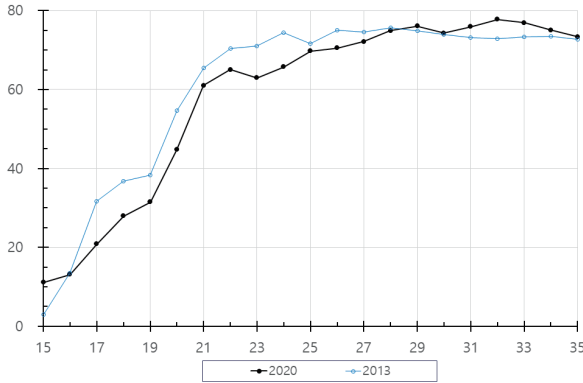
29세 비재학 청년의 취업 비중은 2013년 74.8%에서 2015년 76.2%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 75.4%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2017년 75.3%에서 2018년 76.9%, 2019년 78.5%로 다시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2020년 76.0%로 다시 하락하였다.¹¹⁾

9) 코로나19가 2020년의 취업 비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추세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개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9년의 취업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24세에서는 2.2~5.8%p 유의하게 하락한 반면 25~35세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함, 따라서 2020년의 연령별 취업 비중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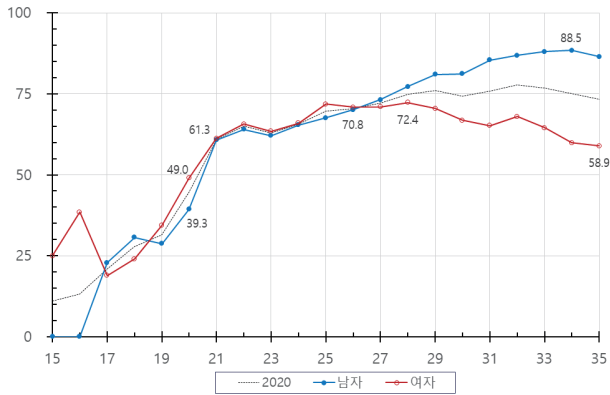
10) 남성의 취업 비중은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35세에 87%에서 38세에 90%까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한편 여성의 취업 비중은 38세 55%까지 하락하였다가 40세 59%까지 다소 상승함.

11) 34세 비재학 청년의 취업 비중은 2013년 73.4%에서 2014년 75.0%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 74.5%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2016년 74.7%에서 2017년 75.9%, 2018년 77.2%로 다시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2019년 76.7%, 2020년 75.1%로 다시 하락함.

[그림 6-4] 연령별 졸업자 취업 비중
(가) 2013년과 2020년



(나) 성별(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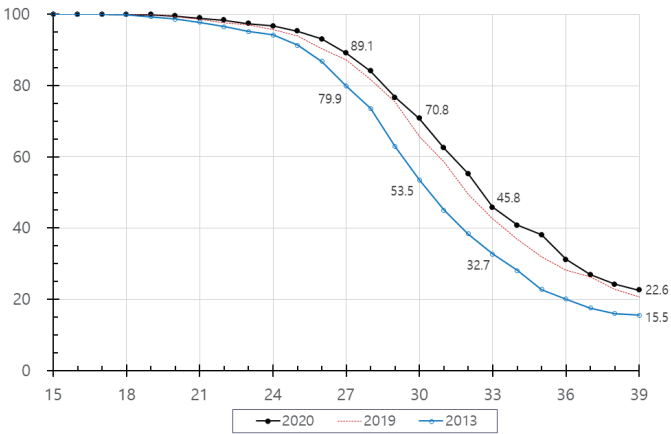
4. 미혼 비중

혼인은 특히 여성의 취업에 여전히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의 교육 수준(인적자본 투자)이 늘어날수록 혼인을 미루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미혼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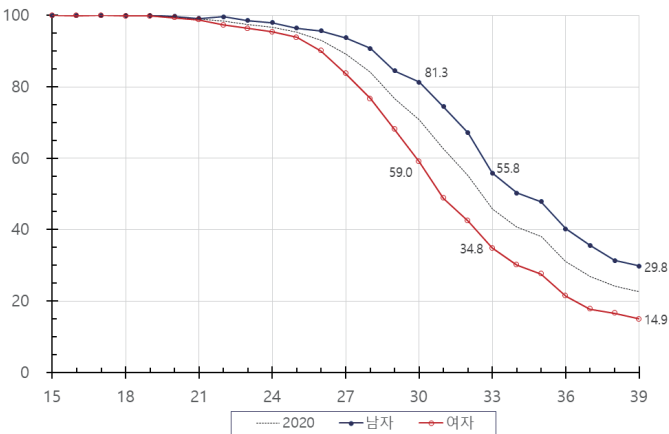
[그림 6-5]는 연령별 미혼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최근으로 올수록 각 연령에서 미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세의 미혼 비중은 2013

년 80% 미만에서 2019년 87%, 2020년 89%로 높아졌으며, 34세의 미혼 비중 역시 2013년 28%에서 2019년 37%, 2020년 41%로 높아졌고, 39세 미혼 비중은 2013년 16%에서 23%로 높아졌다.

[그림 6-5] 연령별 미혼 비중
(가) 2013, 2019, 2020년



(나) 성별(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연령별 미혼 비중을 성별로 보면, 2020년 27세 남성의 미혼 비중은 94%인 반면 여성은 84%로 10%p의 차이를 보이지만 29세에는 84%와 68%로 16%p로 차이가 커지며, 31세에는 75%와 49%로 그러한 차이(26%p)가 정점에 이른다. 그 이후 성별 격차는 완화되지만, 34세 미혼 비중은 남성에서 50%를, 여성에서는 30%를 넘는 수준이며, 39세 미혼 비중 역시 남성과 여성 각각 30%와 15%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이다.

제3절 직종별 비교우위

이 절에서는 두 집단의 직종별 분리를 통하여 비교우위 직종과 집단 간 대체 가능성을 살펴본다(이를 종합하는 지표인 두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를 통한 두 집단의 대체가능성은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직종 분리를 통하여 비교우위 직종과 경합직종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본 후 다양한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청년층의 비교우위 직종을 검토한다. 이에선 재학 청년과 비재학 청년의 직종별 비교우위, 비재학 청년층의 남성과 여성, 고학력과 저학력 간 직종별 비교우위, 비재학 청년층과 준고령층(55~64세)의 직종별 비교우위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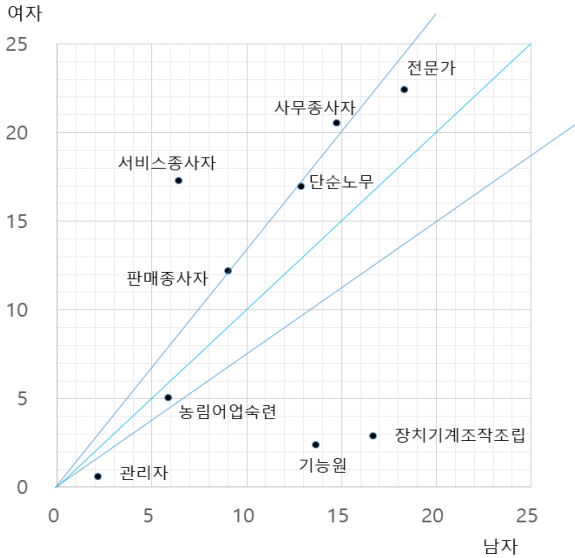
1. 성별 직종분리

[그림 6-6]은 남성과 여성의 직종 분리를 직종대분류 수준에서 보여준다. 그림에서 x-축(y-축)은 남성(여성) 취업자 중 각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각 점은 남성과 여성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직종의 남성과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대각선 우측에 있는 점들은 남성 취업자 중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 취업자 중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남성 비교우위 직종’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에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해당한다.

[그림 6-6] 성별 직종분리(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한편 대각선 좌측에 있는 점들은 여성 취업자 중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 취업자 중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여성 비교 우위 직종’ 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에는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대각선상에 있는 또는 대각선에 가까이 있는 점들은 남성과 여성의 비교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직종을 의미하며, 즉 남성과 여성이 경합하는 직종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이에 속한다. 대각선에 가까이 있는 점들은 대각선에 추가한 두 개의 선 사이에 있는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개의 선은 상대 집단의 취업 비중의 4분의 3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 두 선 사이의 점들은 절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두 집단의 ‘경합직종’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가와 단순노무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가 이에 속한다.

사무 종사자는 이보다 좌측에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여성 비교우위 직종이라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우측에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남성 비교우위 직종이라 할 수 있다.

2. 재학과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별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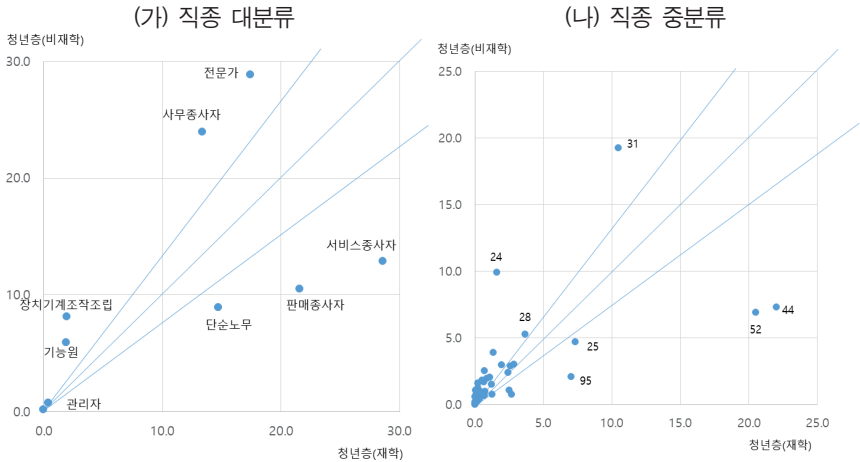
먼저 청년층 일자리를 재학 청년층과 비재학 청년층 일자리로 구분하고 이들 간 비교우위 또는 경합 여부를 살펴본다.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재학 중 취업을 병행하는 일자리와 졸업 후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일자리 간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청년층 일자리를 하나로 묶어 논의하는 것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가져올 것이며,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위한 정책은 후자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재학 청년층과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분리를 직종대분류 수준에서 보면, [그림 6-7]의 (가)에서 보듯,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직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반면 비재학 청년층은 전문가, 사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이 거의 취업하지 않는 관리자나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직종을 제외하면, 이 두 집단 간 경합직종은 없고, 두 집단 간에 직종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서비스 종사자는 재학 청년층의 비교우위가,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는 비재학 청년층의 비교우위가 큰 직종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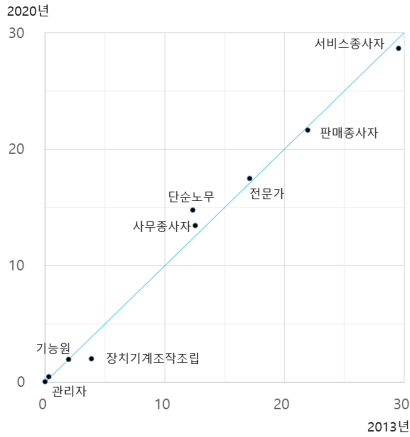
재학 청년층과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분리를 직종중분류 수준에서 보면, [그림 6-7]의 (나)에서 보듯,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취업 비중이 5%를 넘는 직종)은 52(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44(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95(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25(교육 전문가 및 관련 직)이며, 비재학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취업 비중이 5%를 넘는 직종)은 31(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8(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이다.¹³⁾

12) 대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직종분리가 심한 것으로, 한 집단의 비교우위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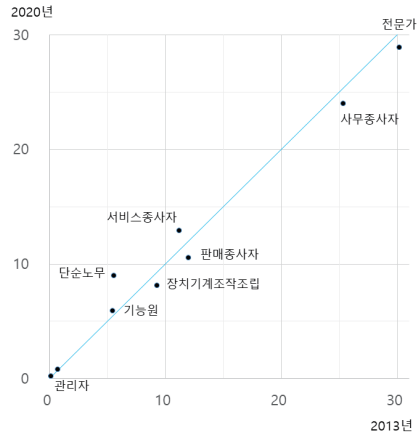
[그림 6-7] 재학과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분리



(다) 재학 청년층의 직종 변화 (2013년과 2020년)



(라)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 변화 (2013년과 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2013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이들 두 집단의 대분류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6-7]의 (다)에서 보듯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의 직종은 대부분 비중의 변화가 없었지만(대각선상에 놓인 점) 장치·기계 조작 및 조

13) 그 외 재학 청년층의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취업 비중이 4% 이내인 중분류 직종 3개 정도임.

립 종사자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유의하게 늘어났다. 반면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은 [그림 6-7]의 (라)에서 보듯,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에서 유의하게 늘어났지만 전문가,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는 다소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이 비재학 청년층 취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3.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별 비교우위

가. 성별 비교우위

비재학 청년층의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비교우위를 살펴보자. 직종 대분류별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그림 6-8]의 (가)에서 보듯 여성은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남성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경합직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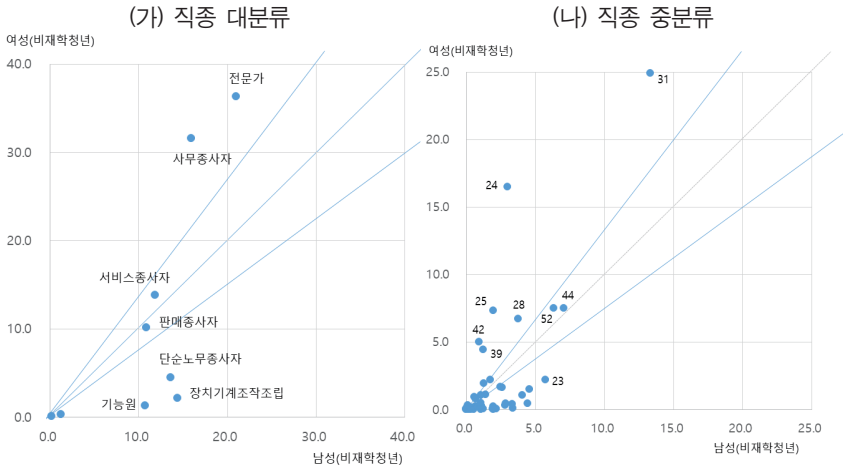
직종 중분류 수준에서 직종별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그림 6-8]의 (나)를 보면, 5%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 중 남성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하나에 불과한 반면 여성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31(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42(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28(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로 상대적으로 직종 수가 많으며, 44(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와 52(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는 경합직종이다.

남성이 비교우위를 갖는 중분류 직종은 취업 비중이 5% 미만인 직종에 몰려 있는데, 취업 비중이 5% 미만인 직종에서 여성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39(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를 포함하여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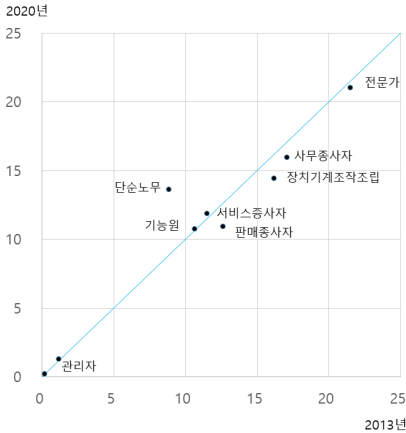
[그림 6-8]의 (다)와 (라)는 각각 2013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비재학 남성과 여성 청년의 대분류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8]의 (다)에서 보듯 비재학 남성 청년에서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2013년 8.9%에서 2020년 13.6%)이 현저하게 늘어난 반면 사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유의하게 줄어들었으며, 전문가,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관리자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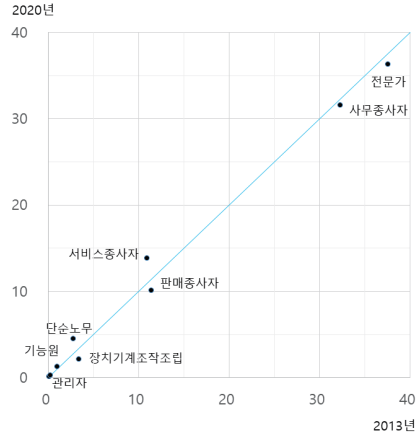
[그림 6-8] 비재학 청년층의 성별 직종분리



(다) 재학 청년층의 직종 변화 (2013년과 2020년)



(라) 비재학 청년층의 직종 변화 (2013년과 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한편 비재학 여성 청년은 [그림 6-8]의 (라)에서 보듯,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2013년 11.0%에서 2020년 13.8%)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 역시 다소 늘어난(4.5%로 1.7%p) 반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판매 종사자, 전문가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으며(각각 1.3%p),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관리자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나. 교육 수준별 비교우위

교육 수준을 고졸 이하 저학력과 전문대졸 이상(대졸과 대학원 포함) 고학력으로 구분하여 비재학 청년층의 교육 수준에 따른 직종별 비교우위를 살펴 보자. [그림 6-9]의 (가)에서 보듯 고학력 비재학 청년층은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에서 현저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모든 직종(취업 비중이 매우 낮은 관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제외)에서는 저학력 비재학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데,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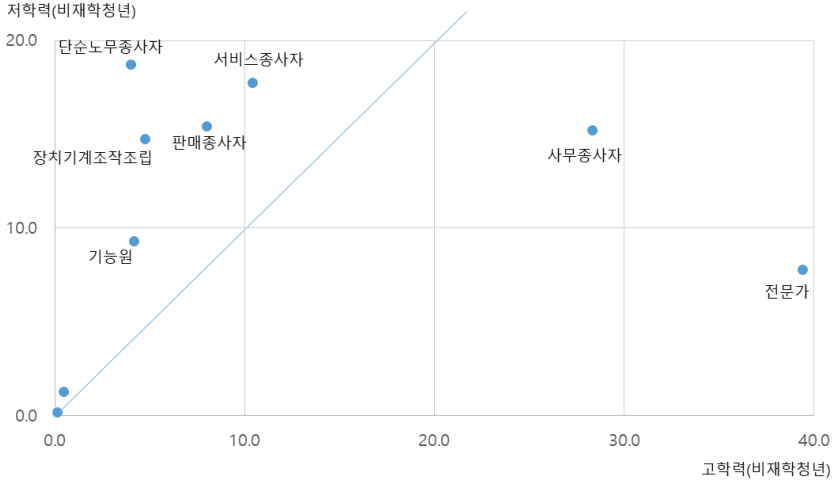
직종 중분류 수준에서 직종별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그림 6-9]의 (나)를 보면, 5%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 중 고학력 비재학 청년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1(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5(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8(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인 반면 저학력 비재학 청년은 44(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와 52(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역직), 92(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취업 비중이 5% 미만(1% 이상)인 중분류 직종 중 고학력 비재학 청년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4개에 불과한 반면 저학력 비재학 청년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20개에 이르고, 경합 직종은 2개 직종에 불과하며, 취업 비중 1% 미만 직종은 12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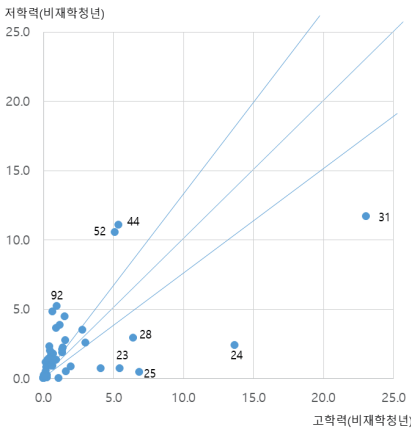
[그림 6-9]의 (다)는 2013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저학력 비재학 청년의 대분류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9]에서 보듯 저학력 비재학 청년에서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2013년 12.7%에서 2020년 18.7%)이 현저하게 늘어난 반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8.2%에서 14.7%)와 판매 종사자(18.5%에서 15.4%)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서비스 종사자(17.7%), 사무 종사자(15.2%), 기능원(8.7%에서 9.3%), 전문가(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관리자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 6-9] 비재학 청년층의 교육 수준별 직종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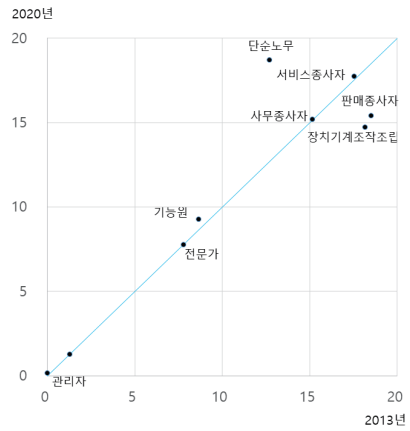
(가) 직종 대분류



(나) 직종 중분류



(다) 비재학 저학력 청년층의 직종 변화 (2013년과 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그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학력 비재학 청년의 취업 중 40% 넘게 차지하는 전문가와 30%를 차지하는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1.2%p와 1.7%p 줄어드는데 그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2.2%p(8.3%에서 10.5%)와 1.7%p(2.3%에서 4.0%) 늘어났다. 그 외 직종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전반적으로 저학력에 비해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가 적은 편이었다.

4.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별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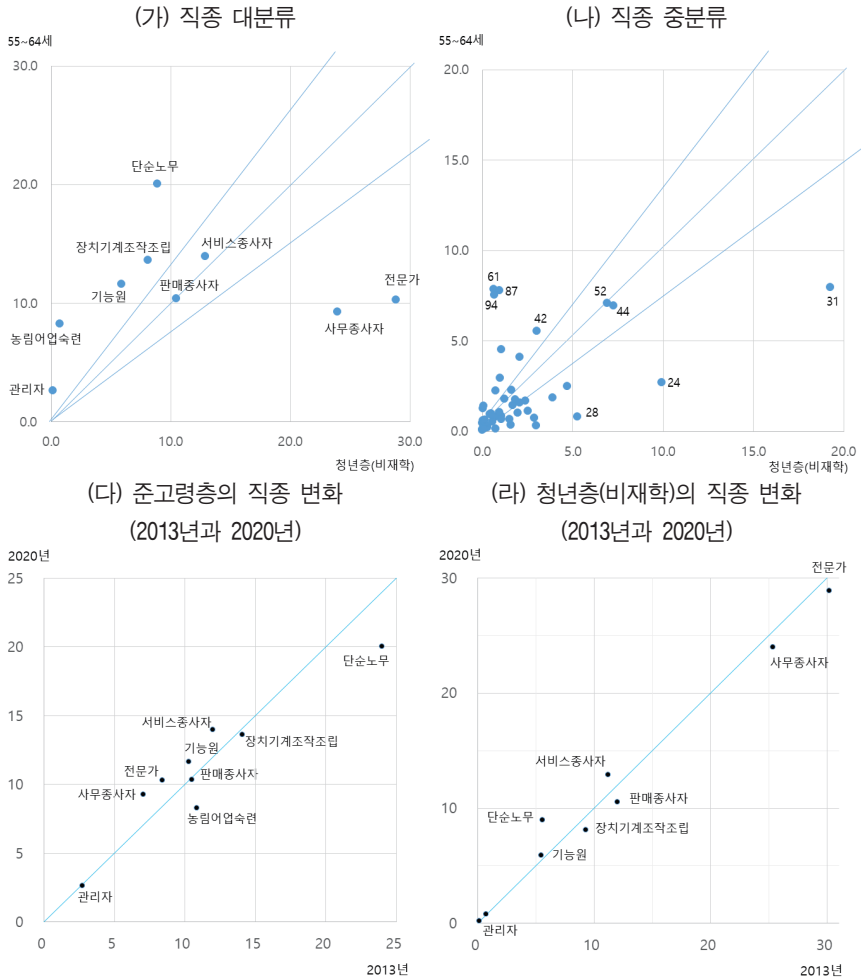
이제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분리를 통하여 두 집단의 직종별 비교우위를 살펴봄으로써 두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능성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청년층은 재학 중 취업 청년을 제외한 비재학 청년(15~29세)이며, 비교집단인 준고령층은 55~64세이다.

[그림 6-10]의 (가)에서 보듯 청년층은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에서 현저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의 취업 비중은 각각 29%와 24%로 10%와 9%를 다소 상회하는 준고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준고령층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현저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관리자에서는 다소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경합직종으로 각각 13%를 전후한 수준과 10%를 다소 넘는 취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종 중분류 수준에서 직종별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그림 6-10]의 (나)를 보면, 5%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 중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31(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8(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인 반면 준고령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61(61농·축산 숙련직), 87(운전 및 운송 관련직), 94(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42(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이며, 52(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와 44(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는 경합직종이다.

취업 비중이 5% 미만(1% 이상)인 중분류 직종 중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10개 정도이며, 준고령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8개, 경합 직종은 5개 정도, 취업 비중 1% 미만 직종은 18개이다.

[그림 6-10] 비재학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분리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그림 6-10]의 (다)는 2013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준고령층의 대분류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0]에서 보듯 준고령층에서 단순노무 종사자(24%에서 20%)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9%에서 8.3%)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진 반면, 사무 종사자(2.1%p), 서비스 종사자(1.9%p), 전문가(1.9%p),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3%p)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장치·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판매 종사자, 관리자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 6-10]의 (라)는 2013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비재학 청년층의 대분류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가.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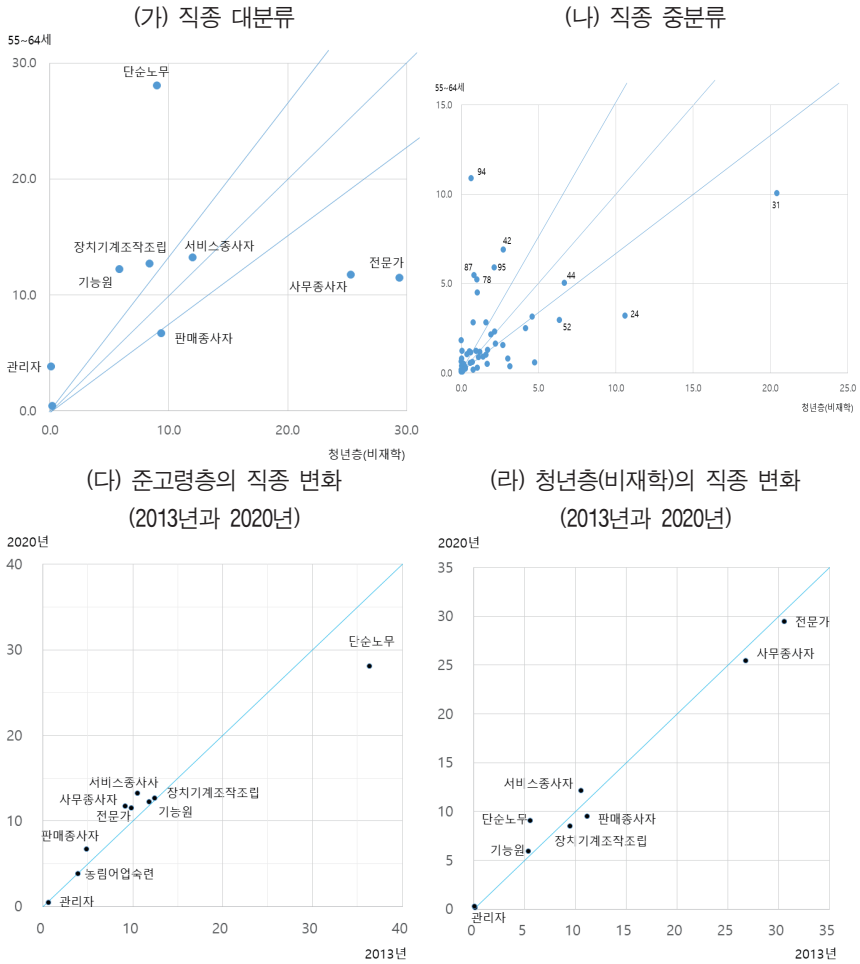
이제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세대 간 직종별 비교우위를 임금근로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그림 6-11]의 (가)에서 보듯 청년층은 전체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에서 현저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의 취업 비중은 각각 29.4%와 25.5%로 11%대의 준고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준고령층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현저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관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다소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경합직종으로 각각 12~13%를 전후한 수준이며, 판매 종사자는 거의 경합직종에 가까운 청년층 비교우위 직종(9.4% 대 6.6%)이다.

직종 중분류 수준에서 직종별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그림 6-11]의 (나)를 보면, 5%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 중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31(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과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52(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로 28(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은 여전히 청년 비교우위 직종이지만 취업 비중이 4.8%로 줄어들었고, 경합직종이던 52(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가 임금근로에서는 청년 비교우위 직종으로 전환되었으며, 경합직종은 44(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만 남았다.

한편 준고령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94(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87(운전 및 운송 관련직), 78(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95(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42(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로, 61(농·축산 숙련직)이 제외된 반면에 78(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95(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가 추가되었다.

취업 비중이 5% 미만(1% 이상)인 중분류 직종 중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종은 10개 정도이고, 준고령층이 비교우위에 있는 직종은 8개, 경합 직종은 7개 정도이며, 취업 비중 1% 미만 직종이 17개이다.

[그림 6-11]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직종분리: 임금근로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그림 6-11]의 (다)와 (라)는 2013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준고령층과 청년층의 대분류 직종별 취업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1]의 (다)에서 보듯 준고령층에서는 취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취업 비중이 36.4%에서 28.0%로 8%p 넘게 하락한 반면 서비스 종사자(2.6%p), 사무 종사자(2.5%p), 판매 종사자(1.7%p), 전문가(1.5%p)의 취업 비중이 유의하게 높

아졌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관리자의 취업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준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직종 수준이 다소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6-11]의 (라)에서 보듯 청년층에서 취업 비중이 높은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의 취업 비중은 각각 1.2%p(30.6%에서 29.4%)와 1.4%p(26.8%에서 25.4%) 낮아졌으며, 판매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취업 비중 역시 다소 낮아진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취업 비중이 각각 3.4%p(5.6%에서 9.0%)와 1.5%p(10.6%에서 12.1%) 높아졌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관리자의 취업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직종 수준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절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 직종격리지수

본 절에서는 두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를 통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러한 직종격리지수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대체가능성의 변화 여부를 검토한다. 직종격리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 개정) 대분류와 중분류 및 소분류 각각을 적용한다.

전체 취업자의 성별 직종격리지수를 직종분리의 기준으로 삼고, 재학 청년과 비재학 청년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 비재학 청년의 남성과 여성, 고학력과 저학력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 그리고 비재학 청년과 다양한 세대(30대, 40-54세 중년층, 55-64세 준고령층,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 간 직종격리지수를 비교 검토한다.

1. 개념 및 정의: 직종격리지수

특정 두 집단(i, j) 간 직종격리지수는

$$D_{ij} = \frac{1}{2} \sum_k \left| \frac{L_{ik}}{L_i} - \frac{L_{jk}}{L_j} \right|$$

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k = 직종¹⁴⁾

i, j = 집단 i 와 j

L_i, L_j = 집단 i 와 j 의 전체 취업자 수

L_{ik}, L_{jk} = 집단 i 와 j 의 취업자 중 직종 k 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

$\frac{L_{ik}}{L_i}$ = 집단 i 의 전체 취업자 대비 직종 k 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

$\frac{L_{jk}}{L_j}$ = 집단 j 의 전체 취업자 대비 직종 k 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

이다. 여기에서 $\left| \frac{L_{ik}}{L_i} - \frac{L_{jk}}{L_j} \right|$ 는 직종 k 에서 집단 i 와 j 가 분리된 정도를 포착한다.

만약 두 특정 집단 사이에 직종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D_{ij}=0$ 이고 만약 완전 분리되어 있으면 $D_{ij}=1$ 의 값을 가진다.¹⁵⁾ 따라서 집단 간 직종격리

14)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개정에는 51개 중분류 직종, 153개 소분류 직종이 있음.

15) 극단적으로 세대 i 는 모든 취업자가 직종 11에 취업하고 세대 j 는 직종 12에 취업해 있

다면, $\left| \frac{L_{ik}}{L_i} - \frac{L_{jk}}{L_j} \right|$ 는 $k=11$ 에서만 $|1-0|=1$, $k=12$ 에서만 $|0-1|=1$ 의 값을 가지며 다

른 모든 직종 k 에서는 $|0-0|=0$ 의 값을 가질 것이므로, 세대 간 직종격리지수는 $D_{ij}=1$ 이 됨. 만약 극단적으로 모든 직종에서 두 세대의 직종별 취업 비중이 동일하다

면, 모든 직종 k 에 대하여 $\left| \frac{L_{ik}}{L_i} - \frac{L_{jk}}{L_j} \right| = |0-0|=0$ 이 될 것이며, 이때 세대 간 직종격리

지수는 $D_{ij}=0$ 이 됨.

지수의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며($0 \leq D_{ij} \leq 1$), 직종격리지수가 1에 접근할수록 두 집단 간 직종격리가 심해지고 대체가능성은 낮아지는(집단 간 분업) 반면 직종격리지수가 0에 접근할수록 두 세대 간 직종격리가 심하지 않고 대체가능성은 높아진다(집단 간 경합).

2.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

[그림 6-12]는 2020년 취업자의 다양한 두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를 보여준다. 먼저 직업분류를 세분할수록 직종격리지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가능성이 낮아져 집단 간 분업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에서는 중분류를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¹⁶⁾

재학-비재학 청년-재학 중 취업 청년과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비재학 청년의 직종격리지수(0.3992)는 성별 직종격리지수(0.4371)보다는 낮아 직종분리가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⁷⁾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비재학 청년의 성별 직종격리지수(0.4404)는 전체 연령층의 성별 직종격리지수와 거의 유사한 수준(차이는 0.0033에 불과)이며, 재학-비재학 청년의 직종격리지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비재학 청년의 성별 직종분리가 다소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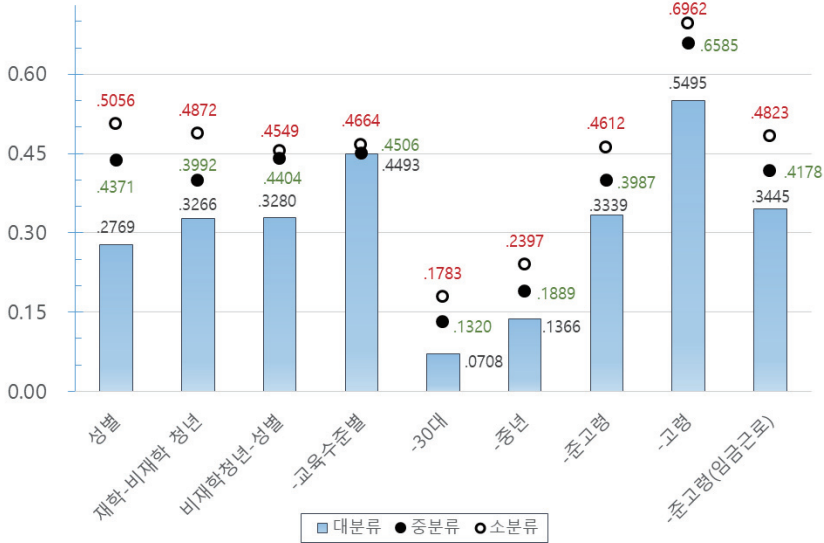
또한 비재학 청년을 고졸 이하 저학력과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으로 구분한 교육 수준별 직종격리지수(0.4506)는 직종 중분류나 소분류 수준에서 비재학 청년의 성별 직종격리지수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직종 대분류 수준에서는 교육 수준별 직종분리가 상당한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직업분류수준에 따른 교육 수준별 직종격리지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16) 예를 들면, 성별 직종격리지수는 대분류에서는 0.28, 중분류에서는 0.44, 소분류에서는 0.51에 이르고 있음.

17) 직종 소분류 수준에서도 동일한 반면 직종 대분류 수준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줌.

18) 직종 소분류 수준에서는 반대로 재학-비재학 직종분리가 성별 직종분리보다 심한 반면 직종 대분류 수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

[그림 6-12] 직종격리지수(2020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비재학 청년과 다양한 연령계층별 세대와의 직종격리지수를 보면, 30대와 의 직종분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세대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종분리가 심해지는데, 30대에서 중년(40~54세) 사이에는 다소 심해지는 반면 중년과 준고령(55~64세) 사이와 준고령과 고령(65세 이상) 사이에 상당히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절에서 보았듯 청년층과 55~64세 연령층 간에는 상당한 직종분리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 두 세대 간에는 일자리 경합보다는 일자리 분업이 더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임금근로만을 대상으로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세대 간 직종격리지수(0.4178)를 보면, 전체 취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0.3987)에 비해 직종분리가 더 심한데, 이는 이들 세대 간 직종분리가 비임금근로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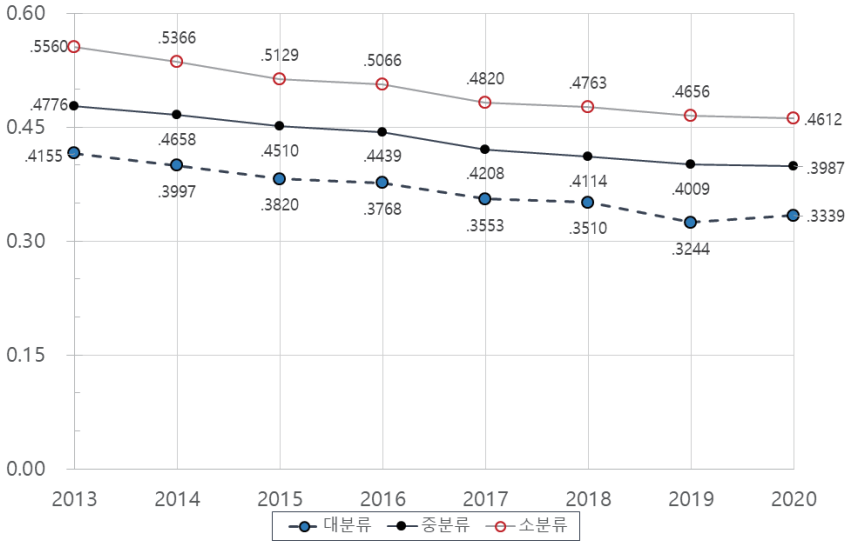
3. 직종격리지수 추이

[그림 6-13]은 청년층과 준고령층 두 세대 간 직종격리지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 모든 시점에서 전체 취업을 고려할 때보다 임금근로만을 고려했을 때, 직종 대분류보다는 중분류, 중분류보다는 소분류 수준을 적용했을 때 직종분리가 더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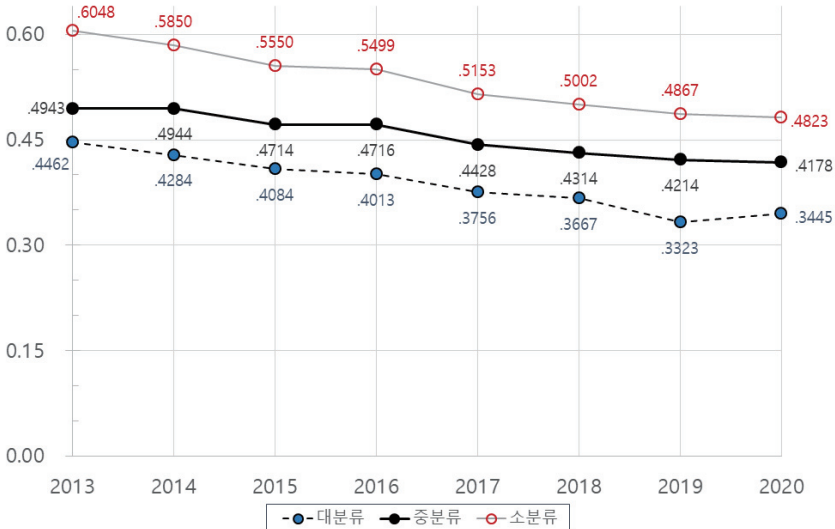
[그림 6-13]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대분류 수준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직종격리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청년층과 준고령층의 일자리를 둘러싼 분업구조는 점차 느슨해지고 경합구조가 강화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¹⁹⁾

19) 안주엽(2011, p.138과 p.140)에서는 2004-2008년에는 직종분리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2008-2009년에는 다소 둔화된 반면 임금근로에서는 모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그림 6-13] 청년-준고령층의 직종격리지수 추이(2013~2020년)
(가) 취업



(나) 임금근로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실태조사 각 연도(하반기 B형 전국 소분류) 원자료.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하는 한편 직종별 비교우위, 직종분리, 직종격리지수 등 지표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3~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10월)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7세에는 거의 대부분 재학 중이지만 19세까지 25%, 23세까지는 50% 이상이 학교를 떠나며, 27세 이후 90%에 이르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3년과 2020년 기간 중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빨리 학교를 떠나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이다.

둘째, 재학 중 취업 비중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9~27세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늘어났으나 2020년에는 다시 줄어들었으며, 18세에서 22세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20~21세에서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셋째, 비재학(졸업) 청년 중 취업한 청년의 비중으로 표현한 노동시장 진입 비중을 보면, 23세까지 급속히 상승하다가 29세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정체 수준을 보이는데, 2013년에 비해 2020년 노동시장 진입 비중은 특히 18~27세 연령에서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21~27세 연령층에서는 성별 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그 이후 여성에서는 28세에 정점에 이른 후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만 남성에서는 34세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미혼 비중은 2013년과 2020년 사이에 모든 연령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 27세에 89%에 이르고, 33세에는 절반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이며, 39세에도 23%에 이른다.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미혼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청년층(비재학)과 준고령층의 직종분리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2013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청년층에서는 이들이 비교우위를 갖는(또한 청년층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인)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취업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 한편 숙련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의

취업 비중은 다소 높아진다. 반면 준고령층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진행된 결과, 이들 집단 간 직종격리수치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세대 간 직종의 분업구조가 완화 또는 경합구조가 강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연령별 재학 비중 등으로 살펴본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모든 청년층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청년층 특성(연령, 성별, 교육 수준)을 중심에 두는 정책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15~17세 청년층은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직접적 정책 대상이 아닌 반면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18~20세는 고졸 미진학 청년, 21~23세는 대졸 여성, 24~26세는 대졸 남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을 마친 여성 청년 중 취업 비중은 27세까지 남성 청년의 취업 비중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34세까지 취업 비중이 상승하는 남성과 달리, 28세 72%에서 35세 59%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데 이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과 준고령층 세대 간 직종의 경합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이는 법정정년 연장(소위 정년 60세 의무화)과 준고령층의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전에는 생애직장을 떠나 이전 일자리에 비해 숙련도가 낮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또는 최종 은퇴)하였다면, 최근에는 60세까지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전 세대에 비해 인적자본(교육과 노동시장 경험)의 수준이 높아진 준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이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 추세로 진행된다면, 노동공급에서의 인구제약을 완화하고자 정년을 연장(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으로 법정정년을 연장, 2033년에 65세)하는 정책을 선택할 때 세대 간 직종의 경합구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청년층 고용을 유인하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를 둘러싼 정책 결정이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7장

청년층 고용정책 분석

제1절 서론

한국에서 본격적인 실업대책이 이루어진 것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이 시작되었던 김대중정부 때였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라 취해진 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정부지원 인턴제를 시행하였다. 이때 청년고용정책은 정부지원 인턴제와 일부 청년 대상 공공근로사업이었다. 이들 정책은 IMF 관리체계가 2002년에 종결되고 실업률도 3.1%로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보면 김대중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청년 대상 정책은 본격적인 청년고용대책이라기보다 실업에 대처한 단기 정책이었다.

청년고용정책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다음 정부였던 노무현정부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도 낮아졌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2004년 5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청년고용정

책을 시작은 노무현정부로 볼 수 있다.

<표 7-1> 1990년대 이후 고용률 급락 시기

(단위: %, %p)

구분	정점-저점 기간	하락 직전 고점	저점	격차
1차	1997.7~1999.2	64.6	55.1	9.5
2차	2008.11~2009.2	61.7	57.1	4.6
3차	2012.7~2013.2	60.0	55.3	4.7
4차	2019.11~2021.1	59.1	53.9	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7.7~2021.7).

이후 이어진 다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도 청년 노동시장 현황에 영향을 받았다. 1997년 이후 20~29세 청년층 고용률의 장기 추세는 4차례에 걸친 급격한 하락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차 시기는 외환위기의 영향에 따른 기업 대규모 구조조정 시기로 고용률이 고점이었던 1997년 7월 64.6%에서 1999년 2월 55.1%로 1년 7개월에 걸쳐 9.5%p 내려갔다. 2차 시기는 미국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였다. 이 시기 고용률은 2008년 11월 61.7%에서 2009년 2월까지 57.1%로 하락하여 3개월에 걸쳐 4.6%p가 하락했다. 3차 시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발 글로벌 경제침체기였다. 이 시기 고용률은 2012년 7월 60%에서 2013년 2월 55.3%로 4.7%p 하락했다. 4차 시기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시기였다. 2019년 11월 59.1%에서 2021년 1월 53.9%로 고용률이 1년 2개월 만에 5.2%p 하락하였다.

<표 7-1>에서 보듯이 하락 직전 고점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복기의 고용률 평균의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청년고용정책은 장기적인 청년층 고용률 하락을 인식하면서 수립되었고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장은 노무현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시행했던 주요 청년정책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취업정보, 진로탐색, 직업상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 1963년 지역별로 44개소 직업안정소가 설치되면서 공공고용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업무와 고용보험 업무가 1998년에 고용안정센터로 통합되었다. 2006년에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취업지원과 실업급여 업무와 함께 직업훈련 관련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정식사업으로 담당하였다. 같은 해 고용안정센터는 고용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모든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2005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에 공공고용서비스 일부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청년고용정책의 고용서비스 중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청년 고용서비스 중 하나는 취업성공패키지Ⅲ(청년) 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공약을 이행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저소득층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2010년부터 저소득층 2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명칭의 정식사업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디딤돌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청년고용정책에 포함되었다. 청년 대상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Ⅲ로 구성되었으며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 청년, 기타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7-2〉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규모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목표인원	참여자수	예 산	
2009	10,000	9,091	10,387	
2010	20,000	25,230	19,712	
2011	50,000	63,967	57,386	
2012	총 계	226,000	143,249	139,620
	저소득	70,000	76,418	
	청년	51,000	41,573	
	중장년	105,000	25,258	
2013	총 계	230,000	208,775	169,642
	저소득	100,000	102,721	
	청년	130,000	70,034	
	중장년	130,000	36,020	
2014	총계	250,000	193,745	217,085
	저소득	130,000	106,986	
	청년	120,000	68,262	
	중장년	120,000	18,497	
2015	총계	360,000	295,402	337,426
	저소득	180,000	137,331	
	청년	130,000	133,472	
	중장년	50,000	24,599	
2016	총계	340,000	366,158	349,362
	저소득	145,000	145,369	
	청년	150,000	192,727	
	중장년	45,000	28,062	
2017	총계	361,000	352,132	441,081
	저소득	136,000	129,881	
	청년	190,000	198,697	
	중장년	35,000	23,554	
2018	총계	311,000	308,291	502,943
	저소득	121,000	104,255	
	청년	160,000	187,046	
	중장년	30,000	16,989	
2019	총계	249,000	223,056	390,751
	저소득	122,000	102,765	
	청년	103,000	104,497	
	중장년	24,000	15,794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20), 고용노동백서.

2012년에는 청년사업과 장년층 사업을 통합하여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청년층은 5만 1천 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Ⅲ(청년·중장년) 사업 참여가 2013년 3만 6,020명에서 2019년 1만 5,794명으로 감소하는 등 해당 연도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해 그다음 해에는 목표인원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목표인원은 2017년까지 19만 명으로 계속 확대되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청년층의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센터의 한정된 인력으로 청년 대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고용센터가 직접 취업성공패키지Ⅲ(청년) 참여자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민간위탁 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5년에는 청년층 목표인원이 1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서울시는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선발하여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성남시는 성남 시내 모든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성남시에서 청년층 실업부조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당시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Ⅲ(청년) 사업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지칭하며 사업을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이 15만 명으로 증가하여 더는 고용센터 인력만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16년부터 모두 민간과 유관기관에 참여자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위탁으로 관리 방식이 변경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비해 참여자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잦은 담당자 교체가 나타났으며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률 중심의 평가로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김덕호, 2020).

박근혜정부는 대학생들과 대학 주변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

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내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2018년에는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급되고 2019년부터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구직활동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보고서를 청년들이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심층상담 및 훈련 등 고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청년센터 설치를 기획하였다. 그 밖에 여성과 전역군인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 기관이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다.

<표 7-3>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고용서비스 사업

(단위: 명, 백만 원)

사업명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	청년 예산	관련 중앙부처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5,000	7,260	고용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18,200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10,000	2,972	
해외 취업지원	7,682	52,625	교육부
고졸자 후속 관리 도입		1,750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900	809	국방부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156,460	5,813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2,072		국토부
중점 육성분야 산업지원 확대	13,339	55	병무청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활성화		2,414	
의무복무 전역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77		보훈처
청년 증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6,940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7,000	3,200	산업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2,700	8,504	여가부
청년여성 역량 강화		20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2,550	8,094	중기부
탈북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60	20	통일부
총 계	207,840	118,676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층 고용 서비스 사업은 17건이며,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은 20만 7,804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4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보훈처가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통일부가 각각 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사업은 2021년 청년도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교육과정에 통학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를 발굴하여 고용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층이 지원 대상이 된다. 구직단념 청년으로 분류되어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직단념 청년 적합도 문답표(30점 만점)에서 21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추가로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청년도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 사업 내용은 구직단념 청년 발굴·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한 후 2~3개월에 걸친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수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창업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이수한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작성 제출하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사업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운영 기간 총 32시간 이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시 수수료가 가능하다. 2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현재 2021년 말까지 한시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2022년에는 지원 목표인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구직단념 청년이 지원금 20만 원에 사회활동 참여 의욕이 고취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구직단념 청년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림 7-1] 구직단념 청년(NEET) 적합도 문답표

구분	가중치	질문	답변항목	
교육이력(1점)	1	1.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요 ② 예	
구직욕구(2점)	1	2. 희망하는 월 임금 수준은 어느 도입니까?(참고문항) 만약 그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_____만 원	
			① 아니요 ② 예	
생활환경(6점)	1	3. 하루 희망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4시간 미만 ② 4시간 이상	
	1	4. 현재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① 부모·친지 등 주변도움 ② 본인 소득	
	1	5. 최근 본인 소득 없이 주변도움으로 생활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6개월 이상 ② 6개월 ~ 3개월 이상 ③ 3개월 미만	
	1	6.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없음 ② 친구 ③ 가족	
	1	7. 하루일과(오전 9시~오후 6시) 중 별다른 일(근로, 구직, 학업 등)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6시간 이상 ② 4~6시간 미만 ③ 3시간 이하	
	1	8. 하루에 컴퓨터 오락이나 TV 시청 등으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6시간 이상 ② 4~6시간 미만 ③ 3시간 이하	
	1	9. 한 달 중 동호회 등 취미생활이나 관심 가는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음 ② 1-2회 ③ 3회 이상	
	직업이력(6점)	자격증 소지여부	1	10.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근로경험		2	11.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보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교육이력		1	12.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없음 ② 1-2회 ③ 3회 이상
전업활동		2	13.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요 ② 예
구직활동(5점)	2	14. 최근 6개월 이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구인정보나 직업정보를 찾기 위해 직업체험 행사에 참석해본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없음 ② 1-2회 ③ 3회 이상	
		15.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해 일자리를 찾아본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없음 ② 1-2회 ③ 3회 이상	
	1	16.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치러본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없음 ② 1-2회 ③ 3회 이상	
제량점수(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검사서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담자의 재량으로 취업의지, 건강, 의사소통능력, 성격 등 부적응 문제, 직업기술 소유 여부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속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만큼 점수 부여 		

자료: 고용노동부(2019),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제3절 국민취업지원 제도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통합되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II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업부조 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6월 제정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목표인원은 64만 명이며 그중 28만 명이 청년층으로 구성된다. I유형 선발형(청년)에 해당하는 지원자격은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100일 이내인 18~34세 청년이다. 소득요건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4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복급여 방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배당 또는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를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이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I유형으로 선발된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해 6개월에 걸쳐 한 달에 5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전제조건으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에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II유형(청년)은 소득이나 재산 또는 취업요건과 무관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I유형(청년) 참여자도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4만 3천 명을 지원하는데 그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목표인원이 3만 8천 명으로 88% 정도에 해당한다.

<표 7-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상세 비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등		청년	증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청년: 18-34세, 증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4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2년 이내 100일(800시간)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비용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소개.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가 취업했을 때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여 장기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제4절 직업훈련(인턴사업)

정부지원 인턴제는 정부가 정책 대상인 인턴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고용장려금 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한국에서 정부지원 인턴제는 1998년 6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청년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미 주요 대기업이 1984년부터 인턴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인턴 프로그램을 갖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종구·김병기, 2008). 삼성, 현대, LG, 대우 등 50개 그룹에서 대학졸업예정자를 인턴으로 고용하였다. 인턴기간은 199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인턴프로그램은 단순업무보조를 비롯해 영업, 기술개발, 토목현장근무, 매장근무 등 직무체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당시 국내 인턴 보수는 4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지급되었다.

<표 7-5> 정부주도형 인턴제 특징

선발전형	인턴기간 지원인원 대상	6개월(삼성: 1년) 5,130명 4학년 1학기 재학생
월 급여 수준	국내 인턴 대우 해외인턴	40~80만 원 800~1200달러
도입기업	현대, 삼성, 대우, LG, SK, 한진 등 50대 그룹	
인턴 프로그램	단순업무보조 / 영업 / 기술개발 / 토목현장근무 / 매장근무 등	
인턴후 혜택	대우 LG 삼성 그 외 기업	인턴사원 프로그램 후 50% 정도 채용 근무성적평가 후 50% 정도 채용 인턴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 인턴사원 프로그램 후 30% 정도 채용

자료: 이종구·김병기(2008) <표 3> 인용.

그러나 이런 정부주도형 인턴제는 그 당시 대기업조차 구조조정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여전히 대졸자와 졸업예정자는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1999년부터 정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인턴제를 시행하였다. 대학주도형 인턴제는 1999년 1월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었다.

<표 7-6> 대학 주도형 인턴제 특징

선발전형	인턴기간	6개월
	지원인원	30천 명
	대상	대졸자, 졸업예정자, 휴학생, 군 전역예정자
	전형	대학에서 모집 및 선발 후 기업에 인턴 연수 위탁
월 급여수준	선발기준	대학성적
	5대 그룹	40만 원
	일반기업	50만 원
	기타	교통비, 중식대 등 수당 별도 지급
도입대학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경원대(현 가천대) 등 서울소재 대학 및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학	
인턴 프로그램	산업현장체험 기회제공 실무능력 증진 위한 업계현황 파악 기회부여 사회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 적합한 작업선택 유도	
인턴 후 혜택	한시적인 취업대비책 중소기업 위주 취업(대졸자 중소기업 취업 회피 현상 뚜렷함) 대기업 인턴사업 정규직 전환율 30-50%	

자료: 이종구·김병기(2008) <표 3> 인용.

대학이 정부에 인턴 인원을 요청하면, 노동부는 대학에 적정 인턴인원을 배정하고 인원수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모집 대상은 대졸자, 대학졸업예정자, 휴학생, 군 전역예정자로 3만 명을 기획하였다. 대학 주도형 인턴제는 대학이 이렇게 인턴제 참여자를 대학성적에 따라 선발하고 연수 대상기관을 발굴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는 연수위탁 방식이었다(이종구·김병기, 2008). 이 연수 대상은 일반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소, 경제·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으로 발굴되어 다양한 일 경험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도록 운영되었다. 그러나 인턴제 참여자 쪽에서 보면 연수 대상 기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급여 등 노동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2001년 8월 정부는 IMF에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고 IMF 관리체계를 종료하였다. 실업률도 3%대로 떨어지면서 김대중정부는 정부지원 인턴제를 더는 기획하지 않았다.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정부는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중 핵심 사업은 앞 절에서 언급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였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29세 청년층이 중소·중견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되면 채용 기업에 최대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표 7-7>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31,250	29,580	32,419	43,931
성별	남성	64.5	67.1	65.4	65.6
	여성	35.5	32.9	34.6	34.4
연령대	15~19세	1.2	4.8	11.4	16.8
	20~24세	29.3	37.8	37.5	37.6
	25~29세	64.6	53.3	46.7	41.7
	30세 이상	5.0	4.1	4.4	3.8
학력	중졸 이하	0.4	0.6	0.5	0.5
	고졸	18.8	23.9	29.2	34.2
	전문대졸	28.3	22.9	21.0	20.0
	4년제 대학졸	51.4	51.3	43.8	43.8
	대학원 이상	1.0	1.4	1.5	1.5
지역	서울	54.9	38.9	36.1	34.6
	인천, 경기, 강원	14.4	24.4	28.9	27.9
	대전, 충남, 충북	5.3	7.2	6.9	7.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7.1	8.0	7.7	8.2
	대구, 경북	9.3	10.7	10.0	10.3
	부산, 울산, 경남	9.0	10.7	10.5	11.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09); 이승렬(2018)에서 재인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는 2009년에 시행되어 3만 1,250명을 지원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4만 3,931명으로 증가하였다. 참여자 중 남성 비중은 65~67%대였으며 참여자 연령대는 25~29세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09년에는 25~29세가 64.6%로 가장 많았고 20~24세가 29.3%로 그다음을 차지하여 20대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25~29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41.7%를 차지했고 20~24세는 37.6%로 증가했다. 15~19세도 2009년 1.2%에서 2012년 16.8%로 증가했다.

참여자 학력은 4년제 대졸자가 가장 많았다. 2009년 4년제 대졸자 비중은 51.4%에서 2012년 43.8%로 줄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대졸자는 2009년 28.3%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2년에는 20%로 감소하면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졸자는 2009년 18.8%로 비중이 세 번째였지만 2012년에는 34.2%로 증가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변화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과 선 취업, 후 진학 같은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정책방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류장수(2015)에 따르면 인턴제 참여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았고 전문직종과 이공계 관련 직종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높았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 전환율의 증가폭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류장수, 2015).

2013년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채용 대상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되었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의 대상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청년정책 연령 변화의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대상 연령도 2014년부터 15~34세로 확대되었다. 반대로 인턴 근무기간은 1~6개월에서 2015년에 1~3개월로 축소되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정규직 전환 이전의 지원에서 정규직 전환 후 지원을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변경되었다(정주호·조민효, 2018).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층 인턴제 사업은 13개 사업이었다.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은 3만 3,426명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각각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가 각각 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은 지원 목표인원이 22천 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인턴사업으로 각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별도의 청년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ICT, 이공계, 공공데이터 등의 디지털 관련 인턴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었다.

〈표 7-8〉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인턴제 사업

(단위: 명, 백만 원)

사업명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	청년 예산	관련 중앙부처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345	2,993	과기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1,235	12,036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500	8,876	국토부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	22,000		기재부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60	754	농식품부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300	87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교육	7,660	98,226	행안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1,020	186,288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63	1,625	농진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13	191	산림청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1,080	중기부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	20	300	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학연계 지원	210	935	
총 계	33,426	314,174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제5절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은 OECD(2014b) 분류기준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관 직업훈련(Institutional training)으로 훈련시간의 75% 이상을 훈련기관(학교·대학, 훈련센터 또는 유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현장 직업훈련(Workplace training)으로 훈련시간의 75% 이상을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세 번째는 훈련시간이 훈련기관과 현장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 통합 직업훈련(Integrated training or Alternate training)이다. 네 번째는 견습특별지원으로 노동시장정책 대상 집단에서 견습생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제공된 장려금 혹은 특정 취약계층에 훈련수당(Training allowance)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앞 절에서 다룬 인턴제는 여기

에서 견습특별지원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인턴제는 제외하고 살펴볼 것이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층 직업 훈련사업으로 분류 가능한 사업은 28건이었다.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은 21만 3,052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1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개 사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개 사업을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조달청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각각 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그린뉴딜 분야) 사업으로 7만 5천 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다음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으로 K-디지털 크레딧과 K-디지털 트레이닝을 포함하면 8만 명을 지원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두 사업은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연관된 사업으로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도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직업훈련사업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목표인원이 1만 7천 명으로 가장 큰 사업은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으로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청년기술인력사업은 지원 목표 인원은 1만 7천 명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 폴리텍대학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기간사업과 전략산업,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년제 학위 과정과 학위전공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청년층 직업훈련 사업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를 제외하면 전문대 재학과 대학 재학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청년층 대학진학률이 70% 수준인 것과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보면 고학력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30% 정도의 고졸 이하 청년들을 고려하면 중간 숙련과 중간 수준 기능의 직업훈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수준의 기능과 중간 수준의 숙련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표 7-9〉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직업훈련 사업

(단위: 명, 백만 원)

사업명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	청년 예산	관련 중앙부처
국민내일배움카드(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6,800	54,067	고용 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그린뉴딜 분야 신규 지정)	75,202	410,528	
기업대학	186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구축[K-디지털 플랫폼]		5,000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크레딧]	60,000	30,000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20,015	186,432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	1,800	21,321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1,485	7,691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청년 기술인력 양성	17,356	32,002	
일·학습 병행제		270,233	
청년고용지원 등[지역산업맞춤형 청년 특화 지원 사업]	8,000	20,000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K-Shield 주니어	350	1,400	
SW마에스트로 과정	150	8,596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 인력양성	670	11,088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514	1,90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350	35,011	
차세대 보안 리더	190	3,800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17,000	34,000	
청년귀농 장교육	150	1,205	농식품부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75	3,376	농진청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100	6,201	문체부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420	10,859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 제공	169	1,998	방사청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700	2,796	산업부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1,802	식약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150	150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20	20	조달청
청년 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200	400	해수부
총 계	213,052	1,164,269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고용장려금은 OECD(2014b) 분류기준에 따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고용장려금인 채용장려금(Recruitment incentives)은 실업자와 그 외 정

책 대상 집단이 고용주가 대부분의 노동비용을 부담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취약계층(장기실업자 등)에게만 제공되는 지출로 재취업수당(Back-to-work bonus), 이직·재배치수당(Mobility/relocation allowance) 혹은 이와 유사한 수당을 포함한다. 그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Employment maintenance incentive)은 구조조정(Restructuring) 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지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금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job sharing)에 지원하는 지출도 고용장려금에 속한다. 직무순환은 일정 기간 한 명의 실업자나 다른 취약계층이 한 명의 기존 근로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자리 나누기는 일정 기간 한 명의 실업자나 다른 취약계층이 기존 근로자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7-10>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고용장려금 사업

(단위: 명, 백만 원)

사업명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	청년 예산	관련 중앙부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10,000	1,028,720	고용 노동부
청년고용지원 등(청년추가고용장려금)	90,000	1,201,802	
청년고용지원 등(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000	120,000	
청년내일채움공제	352,000	1,401,694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31,000	133,000	교육부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104	1,401	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0,000	313,401	중기부
국제옵서버 인력 확대	25	540	해수부
총 계	633,129	4,200,558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2021년에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층 고용장려금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8개 사업의 지원 목표인원은 63만 3,129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4개 사업으로 고용장려금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8년 3월에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이었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고용문제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보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개선하는 방안과 예코세대인 20대 후반 인구 증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정책 방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구체화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인건비(연간 9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부터 지원하며 30인부터 100인 미만은 2명부터 지원하고 100인 이상은 3명부터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한 것을 전제로 목돈(3,000만 원)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매워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촉진하려는 데 방향성을 두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중소기업벤처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3만 명을 지원 목표로 5년간 3천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11만 명을 지원 목표로 예산이 배정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위기 대응 방안 목적과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IT직무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최대 180만 원)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6절 직접 일자리 창출

OECD(2014b) 분류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사업은 장기실업자 혹은 그 외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해 (유사한 프로젝트가 민간 부문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 혹은 비영리 부문에서 공동체에 급여를 제공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건비는 공적자금(Public finance)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나 비생산적 상황에서 종신 보호 일자리(Lifetime sheltered work) 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 사례는 공공근로사업이었다.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28조 1항에 따라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규모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자치부가 운영했으며 경제가 안정된 2005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998년 7,801억 원에서 1999년에 1조 5,12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가 2000년부터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감소했다. 2002년 3,711억 원을 거쳐 2004년에는 1,44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7-11> 연도별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실업률

(단위: 억 원, %)

연도	국비	지방비	합계	실업률
1998	4,948	2,853	7,801	7.0
1999	10,928	4,196	15,124	6.3
2000	4,200	3,698	7,898	4.1
2001	2,000	2,589	4,589	3.8
2002	1,750	1,961	3,711	3.1
2003	775	1,034	1,809	3.4
2004	500	940	1,440	3.5

자료: 행정자치부(2004).

공공근로사업은 김대중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2000년에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되어 2002년에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을 때는 실업률도 3.1%로 하락하였다. 이에 맞추어 공공근로사업도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직접 일자리 창출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때 확대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하여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시행될 일자리를 포함하였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많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를 위탁한 일자리사업이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층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8개 사업으로 448명의 청년층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대체로 중앙부처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로 100명 미만의 작은 규모로 기획되었다. 이런 일자리사업 내용을 보면 관련 분야 전공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일자리로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대상이었다.

<표 7-12> 2021년 중앙부처 청년층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단위: 명, 백만 원)

사업명	청년층 지원 목표인원	청년 예산	관련 중앙부처
국립도서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74	1,332	문체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재택 모니터링	90	1,201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90	2,310	문화재청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	3	100	산림청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2	63,687	여가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60	580	특허청
수산자원 조사원 인력 확대	25	395	해수부
담유지관리	94	1,241	환경부
총 계	448	70,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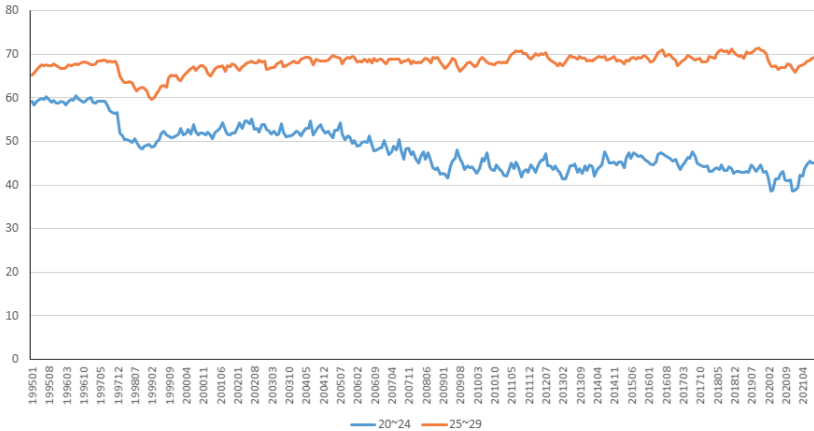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제7절 소결

지금까지 고용서비스, 인턴제,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청년 고용정책을 분석하였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현재 청년고용정책의 특징을 보면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탄소중립)과 연계된 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 고용정책은 참여자인 청년에게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았다. 이런 정책 흐름은 장기적인 청년정책의 흐름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명박정부의 마이스터고 육성과 박근혜정부의 일·학습병행 같은 고졸 취업 정책도 있지만 기술 변화와 70% 이상의 대학진학률을 고려하면 고학력 중심의 청년정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림 7-2] 20대 청년층 고용률 장기 추세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29세 청년층 고용률의 장기추세를 1995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면 연령대별로 다른 추이가 나타난다. 20대 후반인 25~29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전에 65~69%대를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60%로 하락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70% 안팎을 오가며 이전 수준 이상을 회복하였다. 반대로 20대 초반인 20~2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전에는 60% 안팎을 유지하다 외환위기 구조조정기에는 50%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후

소폭 회복했지만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코로나19 영향 이전에도 4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대 초반 고용률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고용률 하락은 대학진학률 상승효과도 있지만 청년고용정책이 고학력 중심으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20대 초반이 청년고용정책에서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이런 측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20대 청년층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초반과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저숙련·저기능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게 중간 수준의 기능과 중간 수준의 숙련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중숙련·중기능 역량의 일자리의 노동조건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아닌 숙련 수준에 맞는 임금이 제공되어야 하고 초과근로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중숙련·중기능 역량의 일자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中等교육에서 직업·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적성검사 결과만 보여주거나 직업 동영상만 보여주는 형식적인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중학생부터 정기적으로 직업상담사가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하거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8장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의 인력수급 현황과 노동시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청년층 인력수급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인력공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많이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과 전문대 졸업 학력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14년과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15세 이상 20세 미만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반면에 25세 이상 30세 미만 취업자는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육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고학력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전문대 졸업 이하 학력의 취업자는 감소했다.

청년층 인력수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를 엔트로피 균형 방법을 이용해 통제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2020년 모두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2013년 수준을 유지하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 특성이 모두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 대비 2019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했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에도 감소폭이 더 작았을 수 있다.

지역별 청년층 인력수급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4%였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56.3%였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와 비교해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3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6%p 증가했으며 청년층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5%p 늘어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모든 연령대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가장 컸다. 수도권 비중의 증가는 15세 이상 20세 미만과 30세 이상 35세 미전에서 빠르게 이루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청년층이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았으며 비중 증가 속도도 빨랐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컸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층과 전문대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컸다.

3장에서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3년 43만 7천 명에서 2017년 53만 6천 명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에는 다시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실업자 증가와 함께

2013년 6.1%에서 2017년 7.6%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7.1%로 다소 하락했다. 로짓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 연령층일수록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의 경우가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상대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었다. 2020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8천 명으로 2013년 636만 7천 명에서 90만 9천 명, 연평균 2.2% 감소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96만 6천 명, 연평균 2.7% 감소했다. 이처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데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같은 경기 충격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NEETs)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준 주된 활동 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과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는 청년을 니트로 정의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는 60만 7천 명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규모는 2013년 46만 7천 명에서 2020년 60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니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2017년 이전까지는 남성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컸지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증가한 2017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장에서는 노동시장 내외부를 가르는 경계 주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경계취업자'로 정의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쉽게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초단기 취업자와 시간 측면에서 불충분하게 취업한 초단시간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일시휴직자는 현재 취업 중인 경계취업자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미취업자인 경계취업자이다. 이들을 모두 경계취업자로 분류함으로써 유동적인 과정에 놓인 불안정성을 포착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경계취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13.2% 수준이며 청년 중에서는 16.4%로 더 높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경계취업자 증대를 촉진했을 수 있으나 연도별 3-8월 기준으로 2021년까지 변화를 확인한 결과, 추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청년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인구효과를 통제하여도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초단시간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학력 수준별로 대졸 이상 학력자를 중심으로 늘었지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고졸 이하 학력자, 성별로는 여성 중에서 크게 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이 과거보다 높은 확률로 노동시간 측면에서 불완전하게 취업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경계취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수는 574만 8천 명으로 상용직이 많았으며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등에 많은 사람이 종사했으며 근로형태별로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이 382만 8천 명, 비정규직은 201만 5천 명이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8.8시간이었으며 월 임금은 229만 9천 원이었다.

Fortin, Lemieux and Firpo(2011)의 방법을 활용한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임금근로자와 35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간의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중년층 대비 청년층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 격차에서는 구성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임금 구조효과에 따른 불평등한 임금 격차 역시 존재했다. 분위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 10분위, 50분위, 90분위 임금 격차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와 구조효과와 함께 변수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구조효과 역시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평균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구성효과는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임금 구조효과는 10분위, 50분위 임금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90분위 임금 격차는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에서는 구성효과와 함께 변수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구조효과 역시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평균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서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구성효과는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임금 구조효과는 10분위, 50분위 임금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90분위 임금 격차는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장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7세에는 거의 대부분 재학 중이지만 19세까지 25%, 23세까지 50% 이상이 학교를 떠나며, 27세 이후 90%에 이르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빨리 학교를 떠나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이다. 둘째, 재학 중 취업 비중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9~27세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2020년에는 다시 낮아졌으며, 18세에서 22세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20~21세에서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셋째, 비재학(졸업) 청년 중 취업한 청년의 비중으로 표현한 노동시장 진입 비중을 보면, 23세까지 급속히 상승하다가 29세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정체 수준을 보이는데, 2013년에 비해 2020년 노동시장 진입 비중은 특히 18~27세 연령에서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21~27세 연령층에서는 성별 격차가 거의 없다. 반면 그 이후 여성에서는 28세에 정점에 이른 후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만 남성에서는 34세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관측된다. 넷째, 미혼 비중은 2013년과 2020년 사이에 모든 연령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 27세에 89%에 이르며, 33세에는 절반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며, 39세에도 23%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미혼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청년층(비재학)과 준고령층의 직종분리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2013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청년층에서는 이들이 비교우위를 갖는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취업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 한편 숙련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의 취업 비중은 다소 높아진다. 반면에 준고령층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진행된 결과, 이들 집단 간 직종격리지수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세대 간 직종의 분업구조가 완화 또는 경합구조가 강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7장은 청년과 관련된 주요 고용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센터로 통합되어 공공고용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는 주로 민간위탁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마다 청년 고용서비스가 운영되어 통합된 고용서비스가 청년층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대표적인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인 정부지원 인턴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턴제 운영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중소기업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청년층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외하면 전문대 이상 학력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70% 수준의 대학진학률과 미래산업 대비라는 차원에서 고학력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중간수준의 숙련과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층 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청년을 IT직무로 신규채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고학력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고용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이 제공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런 청년고용사업 진행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20대 초반이나 고졸 이하 학력 청년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 취약계층에 놓인 20대 초반과 고졸이하 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청년고용정책이 수립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는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크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중 더 많은 청년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정책은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분석에 따르면 모든 청년층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청년층의 특성(연령, 성별, 교육 수준)을 중심에 두는 정책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년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과 함께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든 데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수준,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도 낮은 청년층 비정규직 일자리 등의 노동시장 현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용서비스 정책, 일 경험 정책 등 공급 측면의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청년들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비수도권 역시 안정적인 인력수급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하다.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청년층과 준고령층 세대 간 직종 경합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준고령층의 경우 이전에는 생애직장을 떠나 이전 일자리에 비해 숙련도가 낮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했다면, 최근에는 60세까지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인력공급 측면의 인구 제약을 우회하고자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을 선택할 때 세대 간 직종의 경합구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청년층의 고용을 유인하는 추가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노동부(2006). 『2006 노동백서』, 노동부.
- 고용노동부(2020). 『2020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 국회입법조사처(2009).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정책, 실적의 조사·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노동부.
- 금재호·최재문(2021).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추세와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 39(1): 103-135.
- 김광석(2015).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김기현(2005). 「니트(NEET): 일본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55-63.
- 김기현(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 김덕호(2020).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20(1): 29-63.
- 김대일(2004).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유경준 편, 『한국경제구조변화와 고용 창출』, 한국개발연구원.
- 김범식·장용희(2020). 「서울시 니트의 특성 분석: 성별 비교 분석」, 『서울도시연구』, 21(1): 111-128.
- 김유선(202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21.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18.
- 김유환·김기승(2018). 「임금분포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21(3): 167-190.
- 김종욱(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17년 4월호.
- 김호원·이종구(2018).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변천과정과 시기별 특징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33(2): 61-84.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 남재량(2007).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0(2): 1-31.
- 류장수(2015). 「청년인턴제의 성과분석」,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 박기성·김용민(2007). 「정규-비정규 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2003년과 2005년」, 『노동정책연구』, 7(3): 35-62.
- 박진희·김두순·이재성(2015). 「최근 청년노동시장 현황과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9주년 기념 ‘청년고용 이렇게 풀자; 청년고용 현황과 정책제언’ 세미나 자료집.
- 양지윤·백광호·최석현·고희원(2017).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립(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Issue & Focus』, 제395호.
- 이규용·금재호·안주엽·윤자영·김기현·이지은·신선옥·이혜정·김기홍(2015).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2018).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변천과 평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2018년 3월호.
- 이시균·정재현·김수현·홍현균·정순기·방글·공정승·이혜연·김영달·엄미정·정현준·이학기·이용호·김재진(2019).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 수요 전망 2018-2035』, 한국고용정보원.
- 이종구·김병기(2008). 「한국의 인턴사원제도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사학』, 23(3): 261~298.
-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주엽(2001).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24(1): 67-96.
- 이인재·김태기(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2(3): 1-26.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아·김수현(2017).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 『경제와 사회』, 114:194-224.
- 전병유·김혜원·김용주·이병희·최형재·황덕순(2012).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정주호·조민호(2018).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57~81.
- 행정안전부(2004). 『1998-2004 공공근로 사업백서』, 행정안전부.

홍성민·박진희(2012). 「청년층 희망 일자리와 실제 취업 일자리 격차 분석 - 고학력 청년 실업 원인에 대한 고찰」, 『입법과 정책』, 4(1): 131-146.

Barsky, R., Bound, J., Charles, K.K. and Lupton, J.P.(2002). “Accounting for the Black-White Wealth Gap: A Nonparametric Approach”,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459): 663-673.

Blinder, A.S.(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436-455.

Cotton, J.(1988).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2): 236-43.

DiNardo, J., Fortin, N.M., and Lemieux, T.(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1001-1044.

Firpo, S., Fortin, N.N., and Lemieux, T.(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3): 953-973.

Fortin, N.N., Lemieux, T., and Firpo, S.(2011). “Decomposition Methods in Economics”, in Ashenfelter, O. and D. C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Hainmueller, J.(2012). “Entropy Balancing for Causal Effects: A Multivariate Reweighting Method to Produce Balanced Samples in Observational Studies” . *Political Analysis*, 20(1): 25-46.

Koenker, R. and Basset, G.(1978). “Regression Quantiles”, *Econometrica*, 46(1): 33-50.

Machado, J.A. and Mata, J.(2005).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Changes in Wage Distribution Using Quantile Regression”,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4): 445-465.

Melly, B.(2005). “Decomposition of Difference in Distribution Using Quantile Regression”, *Labour Economics*, 12(4): 577-590.

Oaxaca, R.L.(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693-709.

Oaxaca, R.L. and Ransom, M.R.(1999). “Identification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1(1): 154-157.

OECD(2014a). *Education at a Glance*, OECD.

OECD(2014b). *Coverage and Classification of OECD Data for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in Labour Market Programmes*, OECD.

- Rodgers, G. and Rodgers, J.(1989).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Reimers, C.W.(1983).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Hispanic and Black Men”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4): 570-579.
-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Yun, M.S.(2005). “A Simple Solution to the Identification Problem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s” , *Economic Inquiry*, 43(4): 766-772.

<부표 1> 지역별 연령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세 이상 20세 미만>																	
2013	37	14	16	14	8	6	4	0	61	6	4	9	6	6	13	13	3
2014	45	16	14	16	8	6	5	0	64	5	7	9	7	6	10	7	3
2015	37	16	13	15	9	5	5	0	71	4	10	11	10	10	9	12	5
2016	53	10	9	15	7	7	4	0	67	4	6	15	5	8	10	11	3
2017	41	17	7	14	7	2	3	1	69	7	8	6	3	8	8	12	2
2018	27	8	8	14	7	8	4	1	59	6	9	11	4	8	9	8	3
2019	38	11	5	16	5	6	3	1	60	5	6	9	5	3	8	10	4
2020	28	10	5	8	5	5	3	0	49	5	5	5	5	4	5	7	4
<20세 이상 25세 미만>																	
2013	276	85	57	89	39	48	29	0	342	36	50	76	43	43	70	70	15
2014	305	96	67	85	40	58	27	0	350	38	55	85	57	43	76	85	17
2015	305	95	71	95	39	57	30	0	412	39	53	85	52	41	77	85	21
2016	320	101	69	101	40	55	31	0	388	42	58	78	44	38	80	84	22
2017	295	92	56	92	48	47	31	6	394	56	55	64	44	32	71	76	19
2018	281	93	64	99	46	45	30	8	372	43	55	63	44	35	62	75	19
2019	259	107	54	96	48	45	26	7	367	45	50	63	39	38	68	72	18
2020	271	78	59	90	40	48	26	5	314	39	42	63	38	31	61	65	16
<25세 이상 30세 미만>																	
2013	605	154	108	135	64	76	53	0	620	49	71	92	68	63	111	128	23
2014	592	150	105	145	67	76	52	0	604	44	74	99	62	62	120	127	23
2015	556	152	111	144	63	75	56	0	618	52	66	108	57	58	116	130	25
2016	576	161	111	151	62	82	59	0	640	52	70	107	71	66	104	148	27
2017	599	157	100	159	63	86	58	12	676	58	79	99	58	61	107	138	27
2018	621	164	110	165	67	80	54	14	716	62	81	108	58	63	105	141	30
2019	655	156	118	165	72	88	53	15	735	60	81	108	68	70	107	131	27
2020	644	166	116	156	80	87	48	17	702	57	83	104	67	58	109	127	28
<30세 이상 35세 미만>																	
2013	735	187	138	191	89	93	67	0	767	64	82	125	84	75	135	196	30
2014	726	193	132	183	91	93	67	0	785	62	84	129	88	82	138	185	33
2015	696	184	127	177	89	86	67	0	750	62	84	132	82	78	119	183	32
2016	656	175	121	165	76	77	63	0	715	62	80	132	77	67	125	158	32
2017	616	167	111	156	70	72	61	17	706	56	74	112	69	70	116	155	33
2018	609	154	106	155	69	74	61	19	703	56	76	107	70	66	108	160	32
2019	605	150	101	157	66	73	56	20	709	58	77	100	64	62	95	158	31
2020	616	139	102	152	70	72	53	23	738	56	73	99	70	62	96	142	29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부표 2> 지역별 성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성>																	
2013	831	227	163	239	99	125	95	0	994	85	122	190	117	102	184	243	37
2014	815	248	165	231	108	129	97	0	999	80	123	192	119	107	193	245	42
2015	783	235	169	234	105	121	98	0	1,010	84	119	199	111	110	190	240	47
2016	759	230	162	237	104	112	96	0	984	80	111	200	106	99	196	244	43
2017	740	224	144	220	98	113	89	20	1,012	94	121	173	94	89	185	232	41
2018	697	209	150	230	99	110	84	22	993	87	121	166	104	99	166	236	47
2019	732	209	152	225	95	120	79	24	1,024	89	118	162	106	100	165	211	43
2020	714	207	148	221	94	113	79	24	994	84	115	153	98	88	167	208	40
<여성>																	
2013	822	213	156	190	101	97	58	0	797	71	86	111	85	85	145	165	33
2014	854	207	154	199	98	104	53	0	803	70	96	129	95	86	150	159	34
2015	810	212	152	197	95	102	59	0	841	72	94	137	89	78	131	170	35
2016	846	217	147	194	82	108	61	0	827	81	103	131	92	80	123	157	41
2017	812	208	130	201	91	95	64	16	833	83	95	108	81	82	117	149	40
2018	841	210	139	203	91	96	65	19	856	79	100	122	73	73	119	148	37
2019	826	216	125	210	95	92	59	20	846	79	97	118	71	73	114	160	37
2020	845	186	134	185	100	99	50	22	809	74	88	118	81	68	104	133	3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부표 3> 지역별 교육 수준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학교 졸업 이하>																	
2013	26	8	10	11	4	6	4	0	33	5	7	8	4	7	13	13	2
2014	24	8	6	15	3	6	4	0	40	4	6	7	8	7	11	11	1
2015	23	8	6	9	3	4	2	0	36	6	8	8	7	7	12	10	4
2016	33	10	5	12	5	4	4	0	40	6	7	11	5	6	14	14	3
2017	24	7	4	9	5	1	4	1	53	4	6	9	6	6	10	11	3
2018	22	5	8	8	5	2	6	1	48	5	9	8	3	7	8	12	3
2019	17	8	7	7	4	3	3	0	45	5	7	10	4	5	7	10	3
2020	15	8	5	8	4	4	2	1	35	2	4	8	5	6	7	7	4
<고등학교 졸업>																	
2013	457	151	96	170	64	73	52	0	643	56	79	129	71	73	118	127	25
2014	491	149	102	170	69	81	48	0	641	58	92	144	81	71	127	132	27
2015	444	146	100	174	68	75	56	0	658	60	94	147	70	74	126	138	33
2016	472	149	103	175	68	74	57	0	632	60	80	141	74	70	126	138	32
2017	443	143	90	162	69	72	50	9	649	73	84	126	70	68	122	144	25
2018	424	135	93	167	68	73	51	11	637	63	84	129	76	71	113	144	28
2019	416	148	92	173	71	74	47	12	665	65	80	124	73	69	112	144	28
2020	425	129	90	160	69	79	45	10	628	58	80	123	69	57	102	129	29
<전문대 졸업>																	
2013	296	95	96	106	44	45	42	0	380	34	49	68	44	46	92	104	24
2014	288	96	86	105	43	42	42	0	381	31	52	71	46	54	89	104	26
2015	282	93	87	98	36	43	37	0	406	30	41	71	44	49	85	106	24
2016	283	87	81	103	33	37	42	0	390	32	48	70	36	45	80	100	25
2017	258	77	62	107	33	35	37	4	377	32	47	54	30	34	75	82	22
2018	257	74	58	110	33	35	36	6	362	34	46	56	28	37	69	85	23
2019	263	68	55	104	30	31	37	7	366	34	46	57	27	40	66	77	21
2020	276	62	71	95	30	34	36	6	359	33	42	53	30	38	67	71	17
<4년제 대학 이상>																	
2013	874	185	117	142	89	99	56	0	734	61	73	97	83	62	106	163	20
2014	865	201	125	140	90	104	56	0	740	57	69	101	79	60	116	158	22
2015	844	200	129	150	92	100	62	0	751	61	70	110	80	58	98	157	21
2016	817	201	120	142	79	106	55	0	750	64	79	109	83	58	99	149	24
2017	826	205	118	142	82	100	63	22	765	68	79	92	69	62	96	144	32
2018	834	205	130	148	84	97	57	24	802	64	82	95	70	57	94	143	29
2019	861	201	123	150	85	104	50	25	794	65	82	89	71	60	93	140	28
2020	843	193	117	144	90	95	46	28	780	64	77	87	76	54	96	135	2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부표 4> 지역별 연령대별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세 이상 20세 미만>																	
2013	33	14	15	12	8	6	3	0	58	6	4	9	6	6	12	13	3
2014	42	15	12	15	8	6	5	0	60	5	7	9	7	6	9	7	3
2015	34	16	12	13	9	5	4	0	65	3	10	8	10	8	8	10	4
2016	50	10	9	13	7	7	4	0	55	4	6	15	5	8	9	11	3
2017	37	17	6	12	7	2	3	1	64	7	8	5	3	7	8	12	2
2018	24	7	8	13	6	8	3	1	58	5	9	10	4	7	8	8	2
2019	35	9	5	15	4	6	3	1	59	4	5	9	5	3	7	10	4
2020	25	8	4	8	5	4	3	0	46	5	4	5	5	4	5	7	4
<20세 이상 25세 미만>																	
2013	252	76	51	83	35	46	27	0	316	32	46	66	40	39	58	67	15
2014	268	91	61	75	40	54	24	0	321	36	51	77	54	38	68	80	17
2015	278	86	65	87	37	54	27	0	367	35	52	79	46	39	74	79	21
2016	293	87	60	93	38	51	26	0	346	39	56	73	41	32	70	79	21
2017	274	84	47	86	42	45	28	6	350	50	53	53	42	29	64	70	18
2018	246	87	59	90	44	42	27	6	330	39	51	58	41	34	61	68	18
2019	232	99	50	86	46	40	23	7	335	42	48	61	35	34	63	65	17
2020	241	68	54	80	35	47	24	4	292	37	36	57	32	31	53	60	14
<25세 이상 30세 미만>																	
2013	557	142	99	123	61	70	49	0	576	47	68	85	66	60	100	118	21
2014	536	138	94	136	63	72	50	0	565	42	68	92	58	58	110	113	22
2015	516	142	102	129	58	70	52	0	579	46	64	102	55	54	112	122	23
2016	515	154	101	134	56	78	53	0	602	48	64	100	67	59	93	137	26
2017	539	141	88	145	58	78	53	11	623	51	76	90	58	57	103	127	26
2018	571	149	97	154	61	73	47	14	653	60	78	99	56	61	99	129	28
2019	622	148	110	153	66	82	50	14	683	54	76	97	60	68	97	122	26
2020	589	155	106	145	72	84	41	17	642	51	79	100	62	55	102	111	26
<30세 이상 35세 미만>																	
2013	703	176	130	184	86	92	65	0	748	61	80	124	81	73	129	190	29
2014	689	184	130	174	87	92	66	0	770	57	84	124	85	78	137	182	33
2015	674	178	124	169	86	84	65	0	731	60	83	128	81	77	115	176	31
2016	622	169	117	158	74	73	61	0	686	60	78	128	75	65	120	154	31
2017	585	161	103	150	68	70	59	16	677	53	73	109	68	66	112	151	32
2018	577	146	99	147	69	70	57	18	675	54	74	104	68	66	102	155	32
2019	579	148	94	150	64	70	55	19	690	55	75	97	60	61	90	154	30
2020	586	134	91	140	68	69	51	23	707	54	71	98	69	60	88	141	29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부표 5> 지역별 성별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성>																	
2013	769	208	150	225	91	119	90	0	941	79	116	180	112	98	166	229	36
2014	747	230	152	217	103	123	91	0	945	74	116	181	116	100	180	232	41
2015	738	223	159	214	99	114	94	0	945	77	117	191	108	103	182	227	44
2016	696	214	148	220	97	106	85	0	924	75	106	189	100	89	182	231	41
2017	677	209	126	200	89	105	81	19	931	84	117	157	92	81	175	219	38
2018	644	188	134	215	94	101	75	22	916	82	117	156	100	97	158	220	44
2019	690	199	141	209	90	112	75	22	965	83	112	153	95	97	150	203	41
2020	660	192	132	204	86	108	73	23	925	79	107	148	90	84	154	193	38
<여성>																	
2013	777	201	144	178	98	94	55	0	756	66	83	104	81	81	132	160	32
2014	787	198	145	182	96	101	52	0	769	66	92	121	89	82	144	150	33
2015	766	199	144	184	91	99	55	0	796	67	92	127	84	76	128	160	35
2016	783	206	138	179	78	103	58	0	765	77	98	126	89	75	111	149	40
2017	759	194	119	194	87	90	61	15	783	77	92	101	79	79	113	141	39
2018	773	202	129	189	86	91	60	17	800	76	96	114	70	72	112	139	36
2019	779	204	118	196	91	86	56	19	803	72	93	111	65	70	107	148	36
2020	782	174	122	171	93	95	46	21	762	68	84	113	76	66	95	127	3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부표 6> 지역별 교육 수준별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학교 졸업 이하>																	
2013	23	7	9	10	4	5	3	0	33	4	6	8	4	7	13	11	2
2014	22	7	5	14	3	6	4	0	37	4	6	7	8	7	10	11	1
2015	22	8	5	7	3	4	2	0	34	5	8	7	6	7	12	9	4
2016	29	10	4	11	5	3	4	0	35	5	7	10	4	6	13	13	3
2017	22	7	4	7	4	1	3	1	48	4	5	8	6	6	10	11	3
2018	20	5	7	7	4	1	5	1	45	4	9	7	3	7	7	12	3
2019	16	8	6	6	4	3	3	0	44	4	6	9	4	5	6	9	3
2020	15	7	5	7	4	3	2	1	33	2	4	8	4	6	6	6	4
<고등학교 졸업>																	
2013	419	141	87	159	59	70	49	0	607	53	76	121	67	68	101	121	24
2014	443	138	96	155	66	76	45	0	610	54	89	135	78	67	119	126	27
2015	414	138	93	158	64	71	53	0	614	54	92	136	66	69	121	131	32
2016	434	139	95	160	65	71	49	0	586	57	77	133	72	64	117	132	31
2017	403	135	80	150	65	68	45	8	602	66	81	113	68	64	115	135	24
2018	384	126	87	159	65	67	46	10	587	59	81	122	72	69	108	135	27
2019	381	139	87	162	67	68	45	11	627	60	77	118	69	65	103	138	26
2020	382	119	81	146	63	75	41	9	586	55	75	117	64	56	92	120	27
<전문대 졸업>																	
2013	279	87	92	100	42	42	41	0	361	32	47	62	43	44	85	100	23
2014	270	92	82	99	42	42	41	0	362	29	49	67	43	51	86	98	25
2015	269	88	83	91	35	42	35	0	386	29	41	68	42	47	82	101	24
2016	257	81	75	96	32	36	38	0	363	31	46	67	35	41	73	95	24
2017	239	73	55	103	31	33	35	3	348	31	46	50	29	32	72	78	21
2018	236	70	52	100	31	33	33	5	336	33	44	52	28	37	66	80	22
2019	248	65	51	96	28	29	36	7	347	31	45	55	23	39	63	72	21
2020	255	57	64	87	29	33	33	6	338	31	39	52	28	36	62	66	15
<4년제 대학 이상>																	
2013	825	173	107	134	85	95	52	0	696	56	69	92	79	59	99	156	19
2014	801	191	115	131	87	100	53	0	705	53	65	94	76	56	108	147	22
2015	798	189	122	141	88	96	58	0	707	57	68	107	77	56	94	146	19
2016	760	191	111	131	74	100	52	0	705	59	75	104	78	53	90	141	23
2017	771	189	106	133	76	94	59	21	716	60	76	87	69	57	91	136	30
2018	777	188	117	138	79	90	51	23	747	61	78	89	66	56	89	133	28
2019	823	192	114	141	81	97	47	23	750	59	77	81	64	58	85	132	27
2020	790	183	105	134	83	92	42	28	731	58	73	85	71	52	88	127	2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자료.

집필진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인력수급 및 노동시장 분석

인 쇄 2021년 12월
발 행 2021년 12월
발 행 인 나영돈
발 행 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 02-2271-2526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052-7



청년층 인력수급 및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1577-7114 www.keis.or.kr

비매품/무료
93320



9 788963 310527

ISBN 978-89-6331-052-7